

# 속초의 민요



장정룡 · 이한길

속초문화원 2003



## 목 차

	발 간 사	4
	속초시 행정 지도	6
	사진자료	8
	속초의 민요 채록 악보	17
Ι	.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37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 장정룡(강릉대)	39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 이한길(강릉대)	60
I	. 속초 민요의 실제	79
	1. 문헌자료	81
	2. 채록자료	108
	도문 <mark>동 농요 회원 명단</mark>	223

# 속초의 민요를 발간하며



속초문화원장 최 용 문

21세기의 주역은 "전통 문화" 가 우선이다. 우리가 그리도 관심 을 표명하던 지역문화의 보급과 전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시대가 된 것이다.

비슷한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 하고 감동적인 설악의 하늘아래 펼쳐져 있는 지구상에 단 한곳이 바로 우리의 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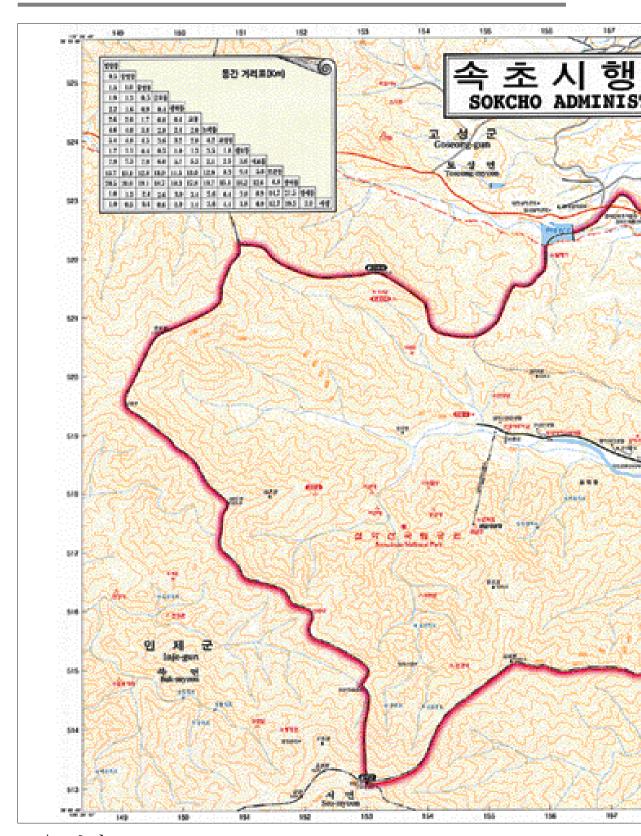
설악은 우리네의 뿌리이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 있는 전통문화 의 체험의 장으로 거듭 발전시키 고 있다.

그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 없는 질주와 노력은 지역의 사실 이요, 과학이며, 미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바램인 것이 다.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속 초의 민요"가 늦으나마 본원 불혹 의 나이에 내놓음에 뜻을 더해 본다. 그 모진 세월 속에 숨어있는 문화의 모습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 우리들의 시간과 함께하게 될 것이며 함께 불리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문화의 21세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공간으로 체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고 판단해본다.

끝으로 집필하신 교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까지가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진정한 문화가족 의 기치를 되살려 함께하는 전통문화 사회, 함께하는 체험문화 의 장으로서 내일의 밝은 태양이 되기를 기대한다.



6 •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 7





입장: 신목과 서낭대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장면



입장





서낭고사 : 신목을 향해 주민들이 모여 절을 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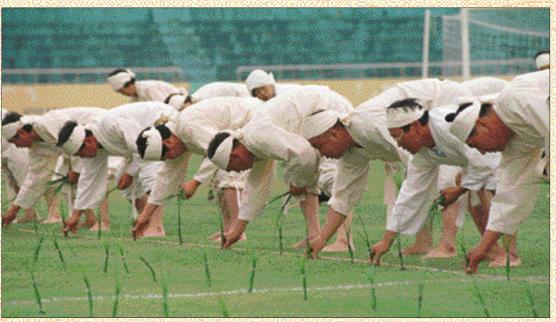


서<mark>낭고사 : 신목을 향해 마을</mark>의 안녕과 소원을 기원하는 장면





논삶는 마당 : 한스레를 끌고 가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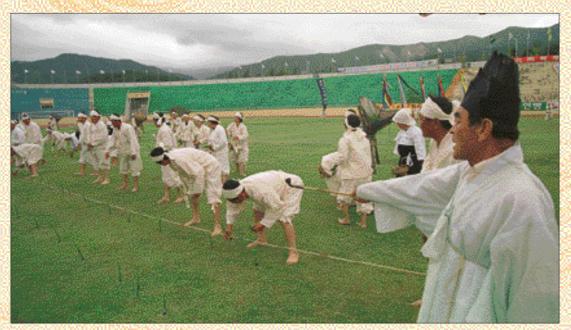


모심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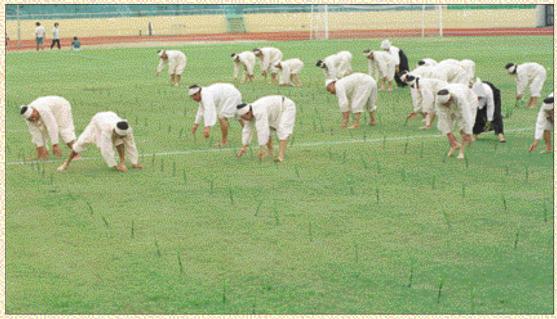


모심는 마당 : 모를 다 심고 나서 한바탕 노는 장면



김매기 마당 : 좌상의 지휘하에 초벌 김을 매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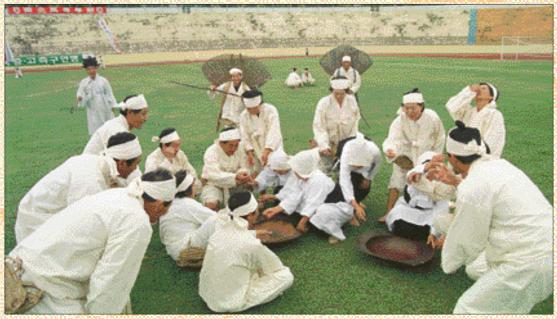


김매기 마당 : 두벌 김을 메는 장면



김매기 마당 : 세벌 김을 메는 장면





질먹기 마당 : 김을 다 맨 후 삼삼오오 모여서 질을 먹는다



파대치기와 새쫓기 마당 : 파대를 쳐서 새를 쫓는 장면





벼베기 마당: 벼를 베어서 묶는 장면



벼베기 마당 : 볏가리를 만드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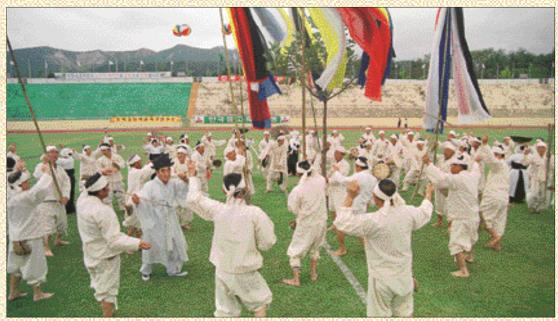


타작 마당 : 도리깨질과 태질을 하는 장면



도문메나리 농요를 열창하는 소리꾼들





황덕굿 마당 : 추수와 탈곡이 끝난 후 마을 잔치를 여는 장면



황덕굿 마당 : 뒤풀이로 출연자들이 모여서 흥을 돋구는 장면

# 속초민요 악보

### 속초 도문메나리(논매는소리)





### 속초 니나니난실



### 속초 양양의 노래



### 속초 나물캐는소리





### 속초 산대소리



### 속초 화투풀이





### 속초 지경다지기(집터닦는소리)





### 속초 주머니소리





### 속초 천자뒷풀이



### 속초 한글뒷풀이



### 속초 담바구타령







### 속초 한단소리



Ⅰ.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장 정 룡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 1) 속초시 지역개관

속초시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에 있으며,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인제군, 남쪽으로 양양군, 북쪽으로 고성군과 연접해 있다. 태백산맥의 능선인 해발 1708m의 설악산과 1327m의 마등령과 같은 높은 산이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냉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난다. 하천은 雙川과 靑草川이 있는데, 연장 16km의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 도문평야를 이루고, 청초천은 연장 12km로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청초호에 이르는데, 소야평야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하천의 하구에는 후기 빙하기 때 해수면의 상승으로 영랑호. 청초호 등 석호가 생겨났다.

설악산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데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는 세번째로, 그리고 태백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69년 관광지에 이어 1970년에 국립공원이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본부는 설악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2년 8월 12일 설악산을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雪嶽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雪山, 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과 『증보문헌비고』에는 극히 높고 험한 산으로서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듬해 여름에 이르러야 비로소 없어진다고 했으며, 노산 이은상 선생은 본래 솔뫼였는데 한자로 쓰다보니 설악이 되었다고 하였다. 솔뫼의 솔은 설의 음역으로 신성・숭고・결백・생명을 뜻한다고 한다.

속초지역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외옹치 남쪽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되어온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빈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시의 해안선은 총 9.4km에 달하며, 조양동 1464번지 일원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은 해안 백사장 450m에 총면적 4만㎡이다. 속초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이외에 동서로 이어주는 도로는 미시령이 유일하다.

속초라는 명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여지도서』의 기록이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여지도서』에 의하면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9명, 여자 182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하던 중 조선 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양양도호부 所川面에 속했다. 도문면과 소천면은 靑垈山을 사이에 두고 이북 이 소천면, 이남이 도문면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도문면은 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옹진, 신흥사 등 6개 리, 소천면은 논산, 부월, 속진, 속초 등 4개 리를 두고 있었다. 1914년 3월 1일 府令 제111호로 지방제도 개혁으로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을 만든 후 면사 무소는 대포리에 두었다. 束津里와 束草里가 합해졌고 論山里에서 蘆里(蘆洞里)가 분리되었고 上道門里와 下道門里 사이에 中道門里가 신설되었다. 또한 신흥사가 위치한 지역은 獐項里가 되었고. 甕津里와 勿淄里는 大浦를 중심으로 하여 안팎에 있다고 하여 外甕峙里. 內勿淄里로 불 렀다. 蘆里는 과거 습지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늘어 분리 독립하였고, 獐項里는 노 루목고개에서 온 지명으로 노루목 고개 일대 즉. 현재 설악산 신단지 B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雪嶽洞에 해당한다. 靑草湖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그에 인접한 束草里가 점점 커져서 1937년 7월 1일 도천면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 었다. 따라서 당시의 속초면은 속초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상 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 등 11개의 리로 구성되었다. 1938년에는 읍면에 부분적인 지자제가 시행되어 민선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府令 제104호로 속초면 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속초리는 1구에서 4구로 분구되고, 노리에서는 도리 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비로소 행정권이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었다. 이때 다시 부월리에서 온정리가,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으며,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 5구와 6구를 신설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로 속초읍은 속초시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로 되었고, 1966년 1월 1일 동 명칭으로 변경을 해 12개 동으로 되었다.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초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개명하였다.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척대리는 다시 합쳐져 조양동으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노학동으로,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는 대포동으로, 상도문리, 하도문리, 중도문리는 도문동으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개명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되어 장사동이 되면서 13개동이 되었다. 다시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가 설악동으로 편입되면서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고, 1990년 4월 1일 市조례 제1293호로 법정동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었고, 1998

년 10월 17일 市조례 제1657호로 행정동 중 영랑동과 장사동이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 도문 동,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현재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8개 동이 되었다.

장정룡의『속초의 향토민속』(1992)에 다음과 같이 지명유래가 수록되어 있다.

속초는 묶을 東자, 풀 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 지형이 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한다.

1967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속초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東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속초는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국가지정 보물 443호로 신라 진덕여왕 6년 652년 자장율사는 향성사를 창건하였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움집터,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등이 다수 발견되어 사적 376호로 지정되었다. 신흥사는 1912년경에는 건봉사의 末寺였으나 1971년 조계종 3교구 본사가 되었다. 사찰 내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14호 신흥사 극락보전, 15호 신흥사 경판, 104호 신흥사 보제루가 있고, 신흥사는 문화재자료 7호, 신흥사 부도군은 115호로 지정되었다. 도문동 김종우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85호이고, 도문동 김근수 가옥은 문화재 자료 64호이다. 계조암은 신흥사 북방 2.3km 지점 천후산의 석굴 안에 위치한 암자로 의상, 원효 두 조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계조암이라 명명했다.

청초호는 쌍성호, 진성호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둘레가 약 5km나 되는 큰 호수로 그 모양이술단지처럼 생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조 때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켰고 쌍성호의 아름다음이 영랑호보다 훌륭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8경의 하나로 들고 있다. 속초의 민속예술로 속초산대놀이가 1985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1991년에는 대포동의 용왕수살굿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의 고유 민속놀이로 속초지방에서 행해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 받았다.

所野八景이라하여 이 지역의 8가지 절경이 있는데, 舟橋夜火 溫井朝霞 靑岱畵屏 靑湖磨鏡 論山朝陽 蘆洞明月 梨洞白雪 鳥島歸帆 등이 그것이다. 속초시는 이것을 발전시켜 1999년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영랑호의 범바위, 영금정의 등대전망대, 대포의 외옹치, 내물치의 설악 해맞이 공원, 청초호,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상도문의 학무정, 청대리의 청대산을 속초의 팔경으로 선정하였다. 설악제는 산악인들의 제례에서 출발하였는데, 1966년 제1회 설악제는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로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설악문화제로 개명하여 순수 문

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속초시는 1999년에 청초호변에서 국제관광EXPO를 개최하였고, 2000년 4월 바닷길로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 이르는 항로가 개설되었다. 또한 북한 금강산 관광선도 출항을 하고 있어 속초 설악산과 금강산, 백두산을 연결한 환동해권 중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 2) 속초시 민요의 실제

속초는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이라고 읊는 팔경가처럼, 바다와 산악을 끼고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고,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소리도 풍부하게 이어져왔다.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뱃소리가 연면히 이어져왔고, 도문뜰,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을 풀이한 농산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은 것이 특징이다. 소리의 닮은 형태는 양양메나리와 흡사한 것은 도문동과 양양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는 또한 실향민의 고장이며 수산도시이므로 수산노동요도 해안권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어로방식의 변화로 가창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청호동 지역에는 함경도 피난민의 뱃소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함경방언과 마찬가지로 소리권의 독자적인 섬으로 남은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 10월 14일 동해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 (1) 농산노동요

속초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어 뱃소리가 발달하였지만 설악산 산자락을 중심으로 한 도문평야와 조양평야에는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다.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며 질을 짜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못자리를 심고 논을 가는데, 흔히 소 두 마리로 가는 경우 '한스레'라 하여 큰 스레를 소에 걸어 사용하고, 소 한 마리로갈 때는 '쪽스레'라 하여 조금 작은 스레를 사용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논삶는소리다.

다음 예문 ①이 그 예이다. 논을 다 삶으면 본격적으로 모를 심는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한춤 소리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니가 하니 나도 한다 한춤' 하는 소리로, 노동의 속도를 배가하며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소리다. 예문 ②는 모심는소리다.

- ① 이러 올라서라 바로 가란 얘기다 이소야 어디 둘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여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 ② 얼른 하더라니 한 춤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모내기가 끝나면 김을 맨다.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는 모가 약해서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조심스레 김을 맨다. 그러나 두벌김부터는 소리를 하면서 흥겹게 김을 맨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메나리다. 도문동에서는 예로부터 독특한 메나리라 불리는 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예문 ③이 그 예이다.

③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나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나 떴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나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나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도문메나리는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김매기 소리로 전승되는데 춘천, 삼척, 양양, 속초일대에 전승된다.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문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농민들이 3~4명 짝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메나리 민요에 관한 관심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민요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반적인 전승상황이나 구연방식, 음악적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몇몇 민요 연구자나 국악관련연구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에 비하여 많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는데 露雀 洪思容, 李在郁, 韓晶東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洪露雀은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는 글을 『別乾坤』(1928.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딸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럭저럭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넋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른 관심을 표현하였다.

李在郁은 메나리에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所謂'山有花歌'와'산유해''미나리'의 交涉」을 「新興」(1931.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렸던'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산유화'를 관련지어'山有'는'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훈독하여'뫼노리''뫼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이후에도 메나리를 언급하는데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별다른 검토 없이 이후 연구자들이 仍用하였다.

韓晶東은 『朝光』(1939.10)「내 故鄕의 民謠 情調, 平安道篇」에서 메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三千里』(1936.8)라는 잡지에 「메나리야 메나리야」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앞의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高晶玉은 「조선민요의 분류」에서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 『任東權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성창되는 '미나리꽃'과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 『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sup>3</sup> 이후 姜騰鶴은 삼척 메나리의 가창방식·가창구조·기능양상·오독떼기의 비교 등을 논했고<sup>4)</sup> 金英云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연구로도 성과를 거두었다.<sup>5</sup>

<sup>1)</sup> 高晶玉, 『朝鮮民謠研究』(서울:首善社,1949), 183쪽.

<sup>2)</sup> 任東權, 『韓國民謠史』(서울:집문당, 1964), 32쪽.

<sup>3)</sup>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검토와 메아리 원형가능성 고찰」, 『民學會報』15(1987), 16~30쪽.

<sup>4)</sup> 姜騰鶴, 「삼척지역의 메나리에 관한 연구」, 『泮橋語文研究』(서울: 반교어문연구회, 1990).

또한 李素羅는 한국의 농요를 정리하면서 삼척군 지역 농요 메나리를 채보하여「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라는 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요 권·용도·가창방법·이재욱의 가정에 대한 견해 등을 발표하면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sup>6)</sup>

필자도 삼척지방의 민간신앙과 지명유래를 조사하면서 채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삼척지역 마을신앙과 메나리」(『들소리』 제4호, 농민요보존회, 1993.2), 「삼척 메나리」(『강원일보 사라지는 강원풍물』, 1994.4)라는 단편적인 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속초시 도문동 도문 메나리를 발굴하여 김영운에게 자료로 제공한 바 있고 필자의 저서에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

메아리도 아니고 미나리도 아닌 이 명칭에 대한 의문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나리'도 아니고 '나리꽃'도 아니다. 무슨 뜻에서 메나리라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메나리에 관한 이론들이 정확한 의미를 적출하지 못한 것에서 연유했을 수도 있다. '메나리'라는 용어의 유사범주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나리'가 있으며 이밖에 여러 명칭으로 '뫼노리'·'메노리'·'민아리'·'미누리'·'면아리'·'네나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현재 국악계에서 '메나리조'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는 형편이다. 우선,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퉁소나 젓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니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山有花〉를 풀어서 '뫼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외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 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욱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욱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慶尙道 善美那里歌 按美那里 疑是山遊歌之轉 盖我認山日美 遊日奴里故也"<sup>90</sup>라고 한 것에서 유추하였는데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외노리로, 외노리에서 미나리로

<sup>5)</sup> 金英云,「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研究」, 『국악원논문집』 제4집(서울:국립국악원,1992), 「嶺東農謠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研究」, 『韓國音樂研究』 제20집(서울: 한국국악학회,1992)

<sup>6)</sup> 李素羅, 『韓國의 農謠』제4집(서울:현암사, 1990).

<sup>7)</sup> 장정룡, 『속초지방의 향토민속』 (속초:속초문화원, 1992), 89쪽.

<sup>8) 『</sup>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권 메나리(1991), 790쪽.

<sup>9)</sup> 李能和、『朝鮮女俗考』 참조.

訛傳하지는 아니하엿슬가"라고 의심하였다.<sup>10</sup> 이 견해를 수용한 高晶玉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럴럴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百濟事蹟〉〈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山有花兮 山有花兮〉代身 여기에는〈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욱씨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一山遊—뫼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 例다.<sup>111</sup>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욱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래 전에 洪露雀이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메나리'라는 용어는 우리 민요가락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메나리'의 어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메나리라 하는 보물! 한자로 쓰면 조선의 민요 그것이란다"<sup>12)</sup>고 말하여 민요를 범칭했던 것이다.

그러면 메나리와 미나리, 山有花歌가 같은 민요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이소라는 산유화가를 백제가곡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산유해(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善山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창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벨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 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래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謠는 조선시대 구전민요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 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讖謠라고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sup>13)</sup>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

<sup>10)</sup> 李在郁,「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1931.12) 최철 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서울: 정음사, 1984), 126~132쪽 재록.

<sup>11)</sup> 高晶玉, 前掲書, 183쪽.

<sup>12)</sup> 露雀,「朝鮮은 메나리 나라」, 『別乾坤』(1928.5). 최철·설성경 편저, 『민요의 연구』(서울:정음사, 1984), 104~109쪽 재록.

<sup>13) 『</sup>민속예술 사전』(서울:한국문예진흥원, 1979), 123쪽 참조.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야하 미나리야하 너홀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 <sup>14)</sup>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렀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들아 저아이들아 참메나리 캐러가자" <sup>15)</sup> 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싣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수 있다. <sup>16)</sup>

메나리는 뫼노리(산놀이)나 미나리 나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뫼'와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간지방의 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설로 메나리는 뫼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요라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하나 신빙성이 없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도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sup>17)</sup> 간취 된다. 韓晶東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 故鄉의 民謠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附記하였다.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謠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퍽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謠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니와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워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sup>18)</sup>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춤 춤사위에서 '민사위' 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

<sup>14)</sup> 李素羅, 『韓國의 農謠』4집(서울:현암사, 1990), 742쪽.

<sup>15)</sup> 林和 編. 李在郁 解題、『朝鮮民謠選」(서울:學藝社, 1929), 175쪽,

<sup>16)</sup> 김태갑·조성일 편저, 『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사, 1981), 22~25쪽.

<sup>17)</sup> 成慶麟・張師勛 共編,『朝鮮의 民謠』(서울:國際音樂文化社, 1949), 151쪽 참조.

<sup>18)</sup> 韓晶東,「내 故鄕의 民謠 情調」, 「朝光」(1939.10). 최철 · 설성경, 「민요연구」(서울: 정음사, 1984), 213~214쪽 재록.

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찰은 어원적으로 보다 상세한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음악적으로도 보다 면 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김연갑이 "메나리조 노래 중 메나리, 山有花, 山遊 花는 사실상 같은 음의 전사, 훈독에 불과하다는 것, 한자적 영향으로 또 다른 문자형태로 파생, 정착된 것일 뿐"이라는 언급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노래, 산노래, 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 <sup>19)</sup> 이소라 역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견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되고,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山遊歌가 아니라 아라리. 아리랑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아라리'의 축약형으로 고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 調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한 분파가 아닐까 하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속초 메나리는 삼척이나 양양 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면서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간불교문화적 영향하에서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농사의 진행상 가을 추수를 할 때에도 다른 농촌처럼 소리가 있다. 벼베는소리다. 벼를 베어놓은 후 볏단을 가지런히 세운다. 이때도 역시 소리를 하는데 아래 예문 ④, ⑤가 그 예이다.

- ④ 흠청흠청 하더니 하-안 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흠처흠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 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sup>19)</sup> 김연갑, 상게논문 30쪽.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한 타래 세웠습니다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한단이로구나두단이로구나석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두타래 세웠습니다.

농촌의 즐거움은 타작을 하여 낱알을 곳간에 저장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아래 ⑥은 도리깨를 갖고 타작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다. 타작을 하면 벼 검불로 몸이 따끔거리는데 이를 털기 위해서 벼 검불을 터는 소리를 한다. 황덕불을 피워놓고 옷자락을 흔들며 옷에 걸린 벼 검불을 태워버린다.

 ⑥ 자 때려라/저-호-저-호-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아흐-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벼 나갑니다 벼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⑦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네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위의 예문 ①~⑦은 도문동의 김남형 씨가 부른 소리다.

# (2) 수산노동요

속초 민요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산노동요인 뱃소리다. 이번 조사에서 뱃소리를 많이 채록하지 못하였으나 돛배(풍선배)라는 무동력선으로 조업을 할 때는 소리의 전승이 가능하였다. 이 경우에는 힘든 노동이 많이 가미되므로 다양한 뱃소리가 불려졌는데,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뱃소리를 부른 연령층이 아니다. 동명항에서 만난 김갑용 씨는 연세가 79살이었으나 뱃소리를 잘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뱃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세상을 달리하여 채록이 더욱 힘들었다.

채록된 뱃소리는 놀배기소리(노젓는소리)로는 '으샤으샤' (대포동 김병국), '어야디여' (동명동 최재윤, 영랑동 김갑용), '에라소 가래라소' (장사동 김현배) 등이 있다. 1945년 이전에 일본배들은 '어여차 디야' (김갑용 증언)라 하였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었으니 산대로고기를 푸라는 소리다. '가래라소' 혹은 '에라소 가래로다' 등으로 부른다. 길게 할 적에는 사설을 집어넣어 가사를 만든다. 그물당기는소리는 요즘은 '어샤어샤'를 많이 쓰나 과거엔 '당겨보자 에야디여'를 즐겨 썼다고 한다.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면 '푸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많다'라는 말이나 '또' 등의 말들은 쓰지 않는다. '다리어내자'는 함경도에서 그물을 당기는 소리라고도 하나 속초지방에서도 많이 쓰였다고 한다. 아마도 소리가 서로 넘나들어 서로가 영향을 교류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사동에서는 고기그물 당길 때 '에이산자' 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자~자~' 하고 소리한다. 단순한 가사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자~' 라고 소리할 때마다 힘을 불끈불끈 주어 배를 나아가게 한다. 든대질이란 '설망' 즉 진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를 옮기는 과정에 부르는 소리다. 이 과정에 아래 예문 ⑥처럼 다양한 사설이 들어간다.

속초 지방의 뱃소리를 보면, 다양한 사설을 가진 여러 소리가 있는데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그물당기는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띠는데 허리도리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다리어소리는 그물 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고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대포동 그물당기는 소리는 정치망 그물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 그물을 돋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배에 퍼 담아 올 때 부르는 소리다.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 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어이' 하면서 서로 숨을 맞춰 가지고 '야이야이'로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라고 한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때 부르는 소리는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이 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은 없고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대' 라 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는 받쳐주는 받침대 를 '게'라 하는데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가사를 보면, 뱃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문도 있고, 또 뱃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지문도 있다. 아래 예문 ①~⑦은 뱃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문들이다.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베끼어라 보자'등의 후렴도 농촌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특히 ⑥의 예문은 이 지역 뱃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알 수 있는데, 남쪽 삼척 앞 바다에서부터 강릉, 양양, 간성, 장전 앞 바다를 거쳐 위로는 함경도 원산 앞 바다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바다 일과 관련된 정보와 소리들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소리는 든대소리뿐만 아니라 산대소리에도 응용되고 있음을 봐서는 다른 여러 소리에도 가창자 능력에 따라 응용되었을 것이다. 예문 ⑦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원산내기 바람이 뱃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동명동 최재윤 씨도 샛바람이라고 부르는 원산내기 바람이 가장 무섭고, 다음이 내바람 즉 하늬바람이라도 하면서 맞바람 즉 마파람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한 바람이라고 한다. 예문 ⑤에서는 뱃사람이 고기를 잡은 후 어떤 순서로 고기를 나눠 갖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대포동(외옹치)의 김병국 씨에 의하면 명태바리는 선장, 기관장, 낚시사공, 선원이 있어서 잡은 고기를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낙수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

①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 다리어소리 〉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눕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 다리어소리〉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 가래소리 〉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베끼소리〉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이라소 가래로구나 〈 산대소리〉

### Ⅰ.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6)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든대소리〉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깬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베끼소리〉

이처럼 뱃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산촌 등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졌던 가사도 뱃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래의 예문 ⑧~⑩는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다. 이런 보편적인 가사에 뱃소리 특유의 후렴을 붙여 부르면 뱃소리가 된다.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로다

 우리 저 멍텅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에라소 가래로다 〈 산대소리 〉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II)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가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 〉

	베끼어라 보자	면 효자나고	⑩ 아들을나면
	베끼어라 보자	열녀나고	딸이나면
	베끼어라 보자	특소나고	소가나면
	베끼어라 보자	봉황나고	닭이나면
	베끼어라 보자	삽살개고	개가나면
<	베끼어라 보자	용마로다	말이나면

〈베끼소리〉

이외에도 고기숫자를 세는 소리도 있다. 속초에서는 주로 명태를 잡는데, 명태를 잡아 풀어놓고 고기 숫자를 셋 때 '하나이요 둘이요 서이요' 하면서 흥겨운 리듬 속에 고기를 세어 묶어내어 놓는다. 이 소리는 노동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노래이다. 단순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되는 리듬은 노동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 동해안 뱃소리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지역이면서도 함경도 풍속들이 교차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뱃소리와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가 습합되어 어부들의 희노애락을 담았다. 이번조사에서 이북 실향민들이 부른 북한지역뱃소리는 제외하였다.

# (3) 유희요

아라리는 속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속초에서도 아라리는 도처에서 불려진다. 속초 지방에서는 아라리와 가사는 같아도 곡조는 어랑타령의 곡조로 불려지고, 뱃노래, 청춘가의 곡조로도 불려진다. 다음은 그 예이다.

- ①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 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최월선(영랑동)
- ②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김순녀(도문동)
- ③ 울너머 담너머 꼴베는 총각아/눈치가 있거랑은 외 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④ 산이 높아야 골골이 짚지요/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얼매나 깊느냐 차종용(노학동)

①은 어랑타령 ②, ③은 뱃노래 ④는 청춘가이다. 그러나 그 가사는 아라리 곡조로 불려진다. 속초에서는 강원도 어느 산골과는 달리 아라리의 절절한 한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것은 그만 큼 노래의 곡조가 어랑타령, 뱃노래처럼 흥겨운 곡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겨운 곡조는 필연적으로 놀이를 동반하고 또 유희적 상황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가창자 대부분이 장구를 즐겨 치는 분들이다. 삼월 삼짇날 화전놀이를 가거나, 농사일을 끝내고 호미씻이를 하거나 그 외 여러 행사 때 많이 불려져서 농촌에서 불려지는 아라리와 차이가 생겼으며. 가사는 슬픈데 흥겨움으로 끝난다. 다음은 그런 몇 가지 예이다.

- ⑤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나 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영애(동명동)
- ⑥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 박계랑(도무동)

이런 흥겨움은 아라리, 어랑타령, 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유희요에서도 보여진다. 대표적인 유희요로 가장 많이 채록된 것이 다리뽑기이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 ⑦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 천두 만두 두만두 / 짝 발레 회양주 전기춘(도문동)
- ® 한알개 두알개 / 삼사 너구리 / 똥개 망개 / 참낭그 지게통 / 고불통 내아들 - 남복우(장사동)
- ⑨ 재짱 개짱 / 쇠스레 넉장 / 콩죽 팥죽 / 얻어 먹었니 / 못얻어 먹었니 / 사 마 / 지 꽁 − 김정수(도문동)
- ⑩ 이동 저동 행기똥 / 지 할미 곱새 똥 김옥진(영랑동) 김영애(동명동) 김윤문(영랑동)
- ① 이원 지원 / 가매 꼬지 박계랑(도문동)
- ⑩ 이거리 저거리 갓고리 / 심지 망근 도망근 / 짝 바리 호양강 / 도루메 장치 장두깨 / 모 개 밭에 작서리 / 동 지 섣 달 / 대서리 - 이응숙(대포동)
- ③ 욍그리 땡그리 / 죄가 재축 / 오리 고이기 / 먹으나 못먹으나 / 죄가 때끔 차종용(노학동)

④ 욍그리 땡그리 / 삼사 똥개 망개 / 참나물 등거리 / 고등어 짠지 / 죄가 때끔 - 차종용(노학동)

위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리를 뻗어놓고 여럿이 다리를 서로 집어넣은 후 이 소리를 하면서 다리를 하나씩 친다. 한쪽 다리를 칠때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치다보면 필경 마지막 소리에 걸리는 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다리를 구부려놓고 다시 남은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또 이 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 소리들은 여성 가창자에게 채록이 되었으나 ⑩의 예는 남성 가창자(대포동 김병국)에게서도 채록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다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을 경우 방귀 냄새가 나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방귀뀐놈이라 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요로서 춘향이 놀이를 또 들 수 있다. 여럿이 모여 한사람을 지목하여 손바닥을 마주치게 한 후 춘향이 소리를 하면 차츰 마주 대었던 손바닥이 차츰차츰 벌어지면, 그 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신들린 듯 춤을 추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도문동에서 채록한 춘향이 소리다.

#### ⑤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이도령님 만났을 때 종글종글 내리시오/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 – 박선춘(도문동)

# 3) 속초시 민요 일람표

#### ◈ 임산노동요

임산물채취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풀써는 소리			0				
나물캐는 소리	0		0	0			

### ◈ 공산노동요

임산물채취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풀써는 소리			0				
나물캐는 소리			0		0		

# ◈ 농산노동요

논농사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논가는소리			0				
논삶는소리			0				
모심는소리		0	0				
논매는소리			0				
벼베는소리		0	0				
볏단세우는소리			0				
도리깨질하는소리			0				
검불날리는소리			0				

# ◈ 수산노동요

고기잡이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노젓는소리		0		0	0	0	
그물당기는소리		0		0	0	0	
고기푸는소리		0		0		0	
든대질하는소리		0		0	0	0	
고기터는소리		0					

### ◈ 토건노동요

토목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목도하는 소리			0				

지역명 건축요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땅다지는 소리			0				

# ◈ 상업노동요

사술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고기세는 소리		0				0	

# ◈ 가사노동요

살림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다듬이질하는 소리		0					

### ◈ 가사노동요

살림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다듬이질하는 소리		0					

지역명 건축요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아기어르는 소리	0	0	0		0	0	
아기재우는 소리	0		0		0		

### ◈ 기원의식요

안녕기원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고사지내는 소리			0				

### ◈ 벽사의식요

축질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배쓸어주는 소리			0	0	0	0	

# ◈ 통과의식요

장례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초초아뢰는 소리			0				
운상하는 소리			0				

# ◈ 동작유희요

동작경기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다리뽑기하는 소리	0	0	0	0	0	0	

# ◈ 언어유희요

말풀이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천자풀이하는 소리	0		0				
한글풀이하는 소리	0		0				
화투풀이하는 소리	0	0	0	0			

말엮기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어휘맞취엮는 소리		0					

말잊기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조건으로있는 소리		0					

# ◈ 놀림유희요

신체놀림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이빠진 아이 놀리는 소리	0	0	0	0	0		

인물놀림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엿장수 놀리는 소리	0						

# ◈ 자연물 상대 유희요

잡기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잠자리잡는 소리	0		0				

부림.	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ㅂ	방아깨비부리는 소리				0			
	잠자리부리는 소리			0				

조절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삼잡는 소리			0				

완상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제비보고하는소리			0				
꿩보고하는소리	0	0	0	0	0	0	
참새보고하는소리	0						
비둘기흉내내는소리			0	0	0	0	
부엉이흉내내는소리	0						
뻐국새흉내내는소리			0				
할미꽃보고하는소리	0						

# ◈ 신비체험유희요

최면술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춤추게하는 소리		0	0				

### ◈ 생활의식요

상황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방귀뀌며하는 소리		0					
추울때하는 소리			0				

# ◈ 조형유희요

만들기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모래집짓는 소리			0	0			
풀각시만드는 소리	0	0	0			0	

# ◈ 가창유희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비기능창곡요	0	0	0	0	0	0	
비기능사설요							

#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이 한 길 (강릉대학교 국문과 강사)

# 1) 들어가는 말

농요란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김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를 중부지방에서는 메나리라고 한다. 이 메나리는 미노리, 미나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메나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 장정룡, 강등학, 김영운 등이 영동지방의 메나리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도문동의 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는 범패소리 와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여겨진다. 아시다시피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는 아 마도 이 지역의 인근에 절이 많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창자들은 도문동과 이웃한 양양 상복리에도 많이 있다. 이곳은 도문동과는 평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양양 상복리의 메나리를 보면 도문동의 메나리의 특색을 더욱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도문 메나리 농요의 전승 과정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는 사실 그 근원은 오래되었다. 김남형 옹은(남·81세, 도문동 거주) 양양에서 태어나 도문동에서 장가들어 이곳에서 생업을 일궜다. 이분은 메나리를 이곳에 장가 온이후 처외숙 되는 故오세준, 故박남식 등에게서 메나리를 배웠다. 당시 김남형은 19살이었고, 오세준은 50여 세가 넘었었다고 한다. 사실 메나리 가사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박남식이란 분은 가사를 아주 또 박또박하게 말을 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양양 방면 논을 하서평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장재터라고도 부른다 - 이곳 도문뜰에서 메나리 소리를 하면 양양 쪽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듣고 메나리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서로가 소리가 들릴 만큼 메나리 소리가 우렁찼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모가 아직 어릴 때, 즉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에는 메나리는 하지 않았다. 약한 벼가 무너진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벌 김을 맬 때부터 메나리를 했다. 네벌 김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세벌 김을 매니까 두 번 정도 김을 맬 때마다 메나리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일꾼들은 따라서 메나리를 부른다. 그런데 메나리라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소리여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였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배우려 하다가 끝내 못 배우고 마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메나리 소리는 아쉽게도 기계화 영농이 시작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를 심고 김 매기를 하는 것이 기계가 대신하면서부터 차츰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한 소리를 할 필요 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영농기계가 들어오고, 제초제가 들어온 것은 20년은 넘었고, 30년은 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차츰 메나리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전신인 태백문화제가 있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이 마을에서는 김남형, 오순석, 이상옥 등이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요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무렵만 해도 도문동에 메나리는 전승되고 있었던 것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었다.

당시 김 맬 때는 삼베적삼을 대체로 입었는데 머리에 수건은 같은 것은 매지 않은 것으로 김 남형 옹은 증언한다. 삼베적삼을 입고 팔다리는 시원하게 걷고 김을 매었다. 다음은 2002년 현 지에서 채록한 자료에서 일부 인용한 구절이다.

조사자 : 언제까지 소리를 했나요?

김남형 : 기계가 들어온 다음, 제초제가 나온 다음부터 소리를 안 했다. 20년은 더 되었으

나 30년은 안 된 것 같다. 70년대 후반에 제초제 나온 것 같다.

조사자: 김맬 때 어떤 옷을 입었나요

김남형 : 삼베중후 적삼.

이후 기계화 영농으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고유한 소리는 차츰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강원의 민요』를 편집하면 중 속초에서 이 메나리가 발굴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문동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농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논 삶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메나리소리, 벼베는소리, 도리깨질하는소리, 볏가리지우는

소리 등 수많은 소리가 채록되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옛 소리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속초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도문메나리 농요의 발굴이 시작되었고,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도문메나리농요〉로 참가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필자는 지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 3)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 내용

도문동 마을은 예전부터 농악이 있어서 정초가 되면 지신을 집집마다 찾아가 지신도 밟아주고 또 마을의 중요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마을의 단합을 꾀하였다. 지금도 마을의 그런 전통이 이어져 주민자치위원회를 여타 동리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당시 농기에는 - 이 지역에서는 농상기라고도 불렀다. - 광목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고 붉은 수술(까치발)을 달았다. 위에는 수꿩의 깃털로 장식했는데 분량은 다른 마을보다도 풍성하게 보이려고 꿩 두 마리 분량을 사용했다. 이를 꿩장목이라고 불렀다.

김남형: 누가 치고 가잖아요. 가다가 도중에 서낭나무가 있으면 서낭굿을 치고 가요. '서 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라고 치고 가요.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굿을 쳐요. '앗따 그 다리 잘도 났다. 칠렁칠렁 건네가자'

오명현: 서낭에 가서 뭐를 받아오더군요.

조사자 : 그게 뭐죠?

오명현: 예. 신을 받아오죠.

조사자: 대나무에 한지를 걸죠? 서낭대라고 하나요?

김남형: 서낭님을 받는다고 하여, '서낭 서낭서낭님 …' 쇠를 치죠. 종이, 실을 잡아매고, 언제 이집 하고 들어가서, 서낭기를 세워놓고 마당굿을 치거든요. 그러면 몇 되박 혹은 몇 말 내놓아요. 고사반을 치기도 하고……

조사자 : 어떤 헝겊을 매다나요?

김남형: 광목, 보화죠. 어떤 집에 들어가 박대를 받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낭대를 까꾸로(거꾸로) 끌고 나옵니다. 뭐냐하면 이놈의 집 잘 되지 말아라 하고 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농악대를 끌고 신흥사 절에까지 가 봤어요.

상기 예문에서 보다시피 농기 외에도 성황당에는 서낭대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는 한지를 착착 접어 걸고, 또 실도 동여매 놓았다. 성황당에서 먼저 서낭굿을 한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 리굿도 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당굿도 쳤다. 그러면 주인은 마당 지신을 밟아주어 고맙다고 쌀을 성의껏 내놓았는데, 일부 박대를 하는 집이 있으면 서낭대를 거꾸로 끌고 나오곤 했다. 또한 마을의 중요 행사를 위해 걸립을 할 때에는 당시 인근 신흥사에까지 가서 지신을 밟아주기도 했다.

당시 서낭쇠는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밖의 서낭님…' 이었는데, 이 유형의 쇠는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되는 쇠가락이다. 다리쇠 또한 '앗따 그 다리 잘도 났다. 칠렁칠렁 건네가자…' 인데이 역시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된다.

60~70년 전 만해도 이곳은 행정구역상 속초시가 아니라 양양군 소속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도문동이 되었는데, 60~70년 전에 양양에서 별신 마당이 열리면 마을대항 농악 경연대회도 같이 열리곤 했었는데, 당시 이 지역의 농악의 구성을 보면 논 같고, 논 삶고, 모심고, 김 매고, 벼 베고, 탈곡하고, 벼 지우고 이런 식으로 꾸며 참가했었다고 한다.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한 〈도문 메나리 농요〉의 내용은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는 전체 과정을 놀이로 작품화하면서 ①성황굿 ②논삶는소리 ③모심는소리 ④김매는소리 ⑤질먹기 ⑥벼베는소리 ⑦황덕굿 등 7개의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 (1) 첫째 마당 : 서낭굿

첫째 마당은 서낭굿으로 시작한다.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성황당에 모여 성황님께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밖의 서낭님…'이라는 서낭굿을 치는데, 이를 작품화하여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인사를 드리면 성황님은 마을주민들의 정성을 갸륵하게 받으시어 응감을 한다. 신목이 으스스 소리를 내며 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서낭굿이 끝나면 상쇠는 농악대를 이끌고 이동하여 다음 마당을 준비한다. 다음은 당시 사용한 서낭쇠 사설이다.

아하

모십시다 모십시다 성황님을 모십시다. 성황성황 성황님 강원도라 속초시의 설악산의 정기가 내려뻗은 도문동의 성황님을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기를 축원~~ 하옵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을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성황님께 비옵니다. 성황님께 비옵니다.

### (2) 둘째 마당: 논삶는소리

봄이 오면 농촌은 농사 준비로 분주해진다. 논도 삶아야하고 모도 준비해야 한다. 도문동은 농사철에 부르는 농요가 풍부하게 전해진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농사와 더불어 소리도 시작이 된다.

논삶는소리는 흔히 소모는소리로 알려져 있는데,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로 농사를 지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인데,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간다. 혹 소 한 마리로, 즉 쪽스레로 논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논을 갈 때이때 다양한 소리가 전해진다. 대체로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이 표현된 이 소리는 소를 다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에 따라 또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 □ 소모는소리

이러이러

어디야 이~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곬으로만 찾어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둬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셨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둬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룩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잽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둬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러 이~ 어둬

와와

소가 제 길을 잘 찾아 제 골로 가다가도 어떤 때는 소가 성이 났는지 제 골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 이럴 때 소모는 이가 - 소모는 이를 이 지역에서는 성군이라고 한다. - 고 삐를 조정하며 소를 달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작품화하였다. 가령 한스레이므로 두 마리 소가 서로 몸을 비비며 장난을 하거나, 또 잘 가던 소가 갑자기 가지를 않고 성군을 골탕을 먹인다던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논을 갈고 삶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를 찐다. 이때 모를 찔 때도 또한 소리를 한다. 흔히 한춤소리라 알려진 것인데, 도문동의 모찌는소리는 다음과 같다.

#### □ 모찌는소리

A: 얼른 하더라니 한 춤

B: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C: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A: 얼른 하더니 또 한춤

B: 나도 또 한춤 나간다.

C: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A: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편의상 A,B,C 라고 구분을 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몇 명이 참가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다.

당시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을 - 이 마을에서는 질 레라고 하기도 한다. -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았다가 그 사람이 하게 하는데,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 더 많은 분량을 남겨놓을 때도 있었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셨는데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쪘다. 모를 다 찌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왔다.

김남형: 농상기를 만들어요.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농상기 패들이 여느 질레가 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모를 쪄요. 들어올 적에도 뚱땅거리고 들어오고, 안 온 놈 것은 좌상이 내놔요. 요건 그놈 거. 하면서. 늦게 온 놈에게 "너 저거 심어."합니다. 꼼짝 못하고 심습니다.

조사자: 영좌, 대방 이런 조직이 없었나요?

#### Ⅰ.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김남형 : 좌상은 나이가 많은 분이 합니다. 일도 같이 합니다. 좌상이 늦게 온 사람 골탕을

먹이려고 매야할 논자락을 많이 할당합니다.

조사자 : 농악대의 대장은 상쇠지요?

김남형: 상쇠가 아니고 좌상, 나이 많은 사람이죠.

### (3) 셋째 마당: 모심는소리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려졌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 □ 모심는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가네 어느새 점심참이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가네 정든님방 들시간이 늦어가네

# (4) 넷째 마당: 김매는소리

김매는소리를 메나리라고 한다.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친다. 이 때부터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

내는 소리로서 하루 중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소리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본고 4장 '도문메나리농요의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 (5) 다섯째 마당 : 질 먹기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라고 한다. 이 마당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저마다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 장기 자랑도 하고 여인들은 함지를 이고 술상을 들고 분주히 오고가는 쾌활한 농촌의 하루 풍경을 그려내었다.

### (6) 여섯째 마당 : 벼베는소리

한해 농사가 풍년이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면서 소리를 한다. 이 소리를 달리 '한단소리' 라고도 하는데, 벼를 베어넘기며 '~한단' 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 □ 벼베는소리

흥청흥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흠처흠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볏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볏단을 세운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여기까지 형상화했으나 이하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았다.

### □ 볏단세우는소리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병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댕이 한다고 한다. 탯돌(태상이라고도 한다)에 쳐서 떨어진 벼 낟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한다. 탯돌이란 널찍한 돌멩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이때도 물론 소리를 했다.

#### □ 상도리깨소리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사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흐-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랫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탈곡을 하여 볏가리가 이만큼 모아 있으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

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볏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아한다.

#### □ 볏가리지우는소리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짝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쎄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뚜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후렴: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후렴: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후렴: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왓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쎄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후력: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병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한번 더 까부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이나 키를 든 이나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낟알을 삼태기로 - 여기에서는 산대미라 한다 - 퍼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벼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 (7) 일곱째 마당 : 황덕굿

풍년이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햇곡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흥겹게 노는 마당을 표현했다. 이 마당의 특징은 아무런 형태 없이 자유롭게 논다는 것이다. 차례를 올릴 때 축문은 다음과 같고 제관은 좌상이 담당했다.

#### 口 祝文

維 歲次 癸未年 八月보름 祭官 최선준 敢昭告于 江原道 東草市 上道門洞 雨順風調 時和年豊 五穀豊登 六畜繁盛 災殃消滅 祝願祈禱 酒果脯醯 明薦歌格 尙 饗

#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인데, 여타 농요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이 메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창법하고도 유사하지만, 그 그윽하면서도 우렁찬 맛은 여타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는 아마도 인근 사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사이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처녀가 등장하고 명사십리 해당화가 등장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가창자가자기 스스로 지어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아래 인용한 가사는 농부들이 즐겨 애창했던 가사이기에 나름대로 농부의 애환을 잘 표현한 것으로 집작하여 적어 본 것이다.

# <u>가)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u>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떳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녹수청산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속에속잎 절여두고 속에속잎 나를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김매기 소리는 사실 미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하게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소리를 한다. 이게 동강소리이다. 물론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도문동에 동강소리는 맥이 끊겼다. 오순석(남・64) 씨도 예전에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확실히 가사와 곡조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인근 양양 상복리에는 아직도 메나리와 동강소리가 전해온다. 다음은 양양 상복리의 현전하는 메나리와 동강소리이다.<sup>20)</sup>

<sup>20) 2003</sup>년 2월 양양 상복리에서 직접 채록했다. 메나리소리는 『강원의 민요』에서 일부 가사를 보충 인용했다.

#### □ 미나리소리

심심하고 양암한데 질꾸내기 불러아어주게 매여주게 매여주게 매여나주게 손을세워 매여아어주게 이-히-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아어이냐 이-히-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롱발이 태워아어주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나쿵쿵 때려아어주게 이-히-

#### □ 동강소리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이-히-그게어찌 연줄이냐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서 그늘졌지 이-히-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여나아어 떼어주오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위 양양의 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러진다. 이에 반해 도문동 메나리는 위 밑줄 친 가)에서 보다시피 4음보의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다. 이에 반해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배미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하며 오무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 때 강릉은 오독떼기를 부른다. 속초/양양의 메나리가 강릉의 오똑떼기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sup>21)</sup> 강릉 아래 삼척은 속초/양양처럼 미노리라는 말을 쓴다. 다음은 삼척 지방의 미노리이다.

#### □ 삼척미노리<sup>22)</sup>

동해동천 솟는해야 일모서산을 넘어간다. ()|-후-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그꽃도또다시 핀나이다 ()|-후-닭이우네 닭이우네 모시밭골에 닭이우네 거기에누가 닭이드냐 명산군에 임닭이세 ()|-후-이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드냐 방실방실 웃는님은 다먹어보고서 해가지오 ()|-후-사해중생 농부들아 인간신고 섦어마오 산너머공장 생긴후에 귀중하기가 농사로다 ()|-후-소가우네 소가우네 고운년앞뜰에 소가우우 ()|-후-

삼척의 미노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도문메나리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강등학은 삼척의 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써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파악하였다. <sup>23)</sup>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 (별지 악보 참조)

<sup>21)</sup> 장정룡. "삼척 메나리 민요의 특성과 그 이해". 『江原道 民俗研究』(서울: 국학자료원 2002), p.218.

<sup>22) 2001</sup>년 삼척 지방에서 직접 채록한 자료이다. 가창자 이춘홍(女・62).

<sup>23)</sup> 장정룡, 상게논문, p.218에서 재인용.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해' 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 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다. 이왕에 농사일을 하면서 불려진 소리이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바닷가 영동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볼진대 바닷가와 관련 있는 구절이 거의 없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길쌈도 하고 닭도 키우고 소가 등장하고 이런 농촌의 풍경이 양양과 삼척의 메나리에는 잘 드러나 있는데 반하여, 속초 도문동의 메나리에는 이런 세밀한 지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 또한 사찰이 많은 도문동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지는 않나 짐작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후일로 미룬다.

가창방법을 보면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여나주게'를 선창자가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나머지 분들이 부르는 식이다. 농요가 집단요로서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에 가장 좋은 이유가 이런 점에서도 발견이된다. 함께 하는 노동요로서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부상조하는 풍속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 4) 끝내는 말

속초시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재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차츰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옛날부터 뿌리내린 토착민이 많아 지금도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이 보존되고 있다. 2002년 이곳에서 필자는 논삶는 소리, 모찌는소리, 김매는소리(메나리), 벼베는소리, 볏단세우는소리, 상도리깨질하는소리, 볏 가리지우는소리 등 농요뿐만 아니라 아리랑, 어랑타령, 시집살이요, 둥게소리, 주머니타령, 담 바구타령, 다복녀, 지경다지는소리, 비둘기흉내내는소리, 천자풀이 등 수많은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창자들의 고령화로 앞길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다행히 제20회 강원민속예술 축제에 도문동 농요가 속초시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고, 필자 또한 지도할 수 있는 행운 을 얻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도문메나리농 요〉라는 작품이 탄생했고, 오순석, 최도수 등 훌륭한 소리꾼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주지하다시피 농요다. 농요 속에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 그 속에 녹아 있다. 일종의 노동요인 셈인데,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는 등 그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소리를 한다. 메나리 소리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

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후에 즐겨 불렀다던 동강소리를 미처 복원할 수 없었다.

메나리 소리는 중부지방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소리로서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삼척의 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의 메나리는  $4 \cdot 4$ 조의 음수율을 가능한 한지키려 노력하는데,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진다. 또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기 않는다. 그러나 그 곡조를 유심히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양양과 비슷한 점이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도문동 메나리 농요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미진한 점이 눈에 많이 띈다. 우선 삼척, 양양 등 여타 메나리와의 본격적인 대비고찰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도문동 메 나리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도문메나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 속초 도문메나리(논매는소리)





# Ⅱ. 속초민요의 실제



## 1. 문 헌 자 료

속초시의 민요와 관계하여 다음 서적을 참고자료로 조사하여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각 편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었던 속초 민요의 특징을 간략히 적어보았다.

#### 〈참고자료〉

속초시. 『속초시지』, 1991.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장정룡, 「속초시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장정룡 · 김무림 공저.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문화방송 편, 『한국민요대전』, 1996.

## 1)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어업노동요로서 〈지어소리〉는 노젓는 소리고, 〈다리어소리〉는 그물당기는 소리다. 〈가래소리〉는 고기 퍼 올리는 소리고 〈베끼소리〉는 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어업노동요 중 일부를 전재한다.

#### ◇ 지어소리

가래밀어 예. 밉니다

어야어야 다이어 차이어가 어이어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잘도간다 어이여차

잘도미네 어이여차

#### Ⅱ. 속초민요의 실제

앞발은 버티고 어이여차 뒷발은 밀고 어이여차 앞당겨서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 제보자: 김봉준(남·67), 1997,3,20, 장사동

#### ◇ 지어소리

에헤라 저어라 배저어라 에헬라 에라 보잔다 에헤라 에라 보잔다 에헤라 저어라 보자 지어라지어라 음 음 저어라 보자 음음 지어라 간다 음음 손허리 저렇게 배기고 음음 어찌 둘러싸겠니 음음 - 제보자: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 다리어소리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 다리어라 내자꾸나 다리어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 - 제보자: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 다리어소리

다리구내자 다리구내자 다려보자 다려보자 아, 많이 올라온다 다려보자 다려보자 아, 다디기다. 다디기 올라온다 막올라온다 다리구내자 다리구내자

- 제보자 : 전윤이(남·81), 1997.11.28, 장사동

#### ◇ 다리어소리

에야 어야 어허야

에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어야

잘도하네 어야 잘도하네 어야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눕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 제보자 : 김봉준(남 · 67), 1997.3.20, 장사동

#### ◇ 가래소리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니잘나고 에라선 가래로구나 내잘나도 소용없잖냐 에라선 가래로구나 오늘이 이르게되면 에라선 가래로구나 한배 만선해실고 에라선 가래로구나 우리고향 들어가면은 에라선 가래로구나 얼매나 기본좋고 명이나느냐 에라선 가래로구나

- 제보자 :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 가래소리

에라솔 가래라솔

얼씨구좋다 에라솔 가래라솔 밥굶드니 에라솔 가래라솔 성황님이 에라솔 가래라솔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 제보자 : 강양수(남·70), 1994.11.2, 장사동

#### ◇ 가래소리

가래가래라 가래라로구나 에이야 가래라소 요번 가래는 누구의 가랠까 에이야 가래라소 요번 가래는 이도령 가래요 에이야 가래라소 두 번째 가래는 춘향의 가래 에이야 가래라소 산천초목이 울릴 때까지 에이야 가래라소 슬퍼말게 슬퍼말어 에이야 가래라소 늙어진다고 슬퍼말게 에이야 가래라소 - 제보자 : 김봉준(남·67), 1997, 3, 20, 장사동

#### ◇ 베끼소리

벗겨라 보자 벗겨라

벳기어라 보자꾸나 벳겨라벳기어라 보자꾸나

니가내가 잘하든 벳기어라 보자꾸나

내가너가 잘하든 벗기고 벗기고나 보자꾸나

지손질이 저러구 벳기어라 보자꾸나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벳기어라 보자

소년고생을 안아졌나 멧기어라 모자 들어쳐라 몰아쳐 벳기어라 보자

벗기고 벗기고자 보자

- 제보자 : 김형준(남·74), 1987.5.27, 청호동

#### ◇ 베끼소리

어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 벳기어라 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슬렁슬렁 벗기자고 에라 벗기고 보자 이말저말 하지말고 에라 벗기고 보자 이등칸에서 들어내라 에라 벗기고 보자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 - 제보자 :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 산대소리

에헤 산자	에헤 산지	ŀ
에헤라 산자	에헤 산지	ŀ
에 넘어라 한마디 하자	에헤 산지	ŀ
에헤 산자	에헤 산지	ŀ
에 넘어라 오늘어디	에헤 산지	ŀ
어헤 산자	에헤 산지	ŀ
올려라 올려라	에헤 산지	ŀ
에이야 사이다		

- 제보자 : 김현태(남·67), 1994.11.3, 대포동

## 2)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이 책에서는 속초의 민요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노동요로서 해 안가에서는 어업노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농촌마을에서는 농업노동요, 토목노동 요. 임업노동요, 길쌈노동요가 조사되었다. 속초의 어업노동요에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당기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른 〈베끼소리〉, 고기를 퍼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새롭게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바다로 이동하는 재래식 이동기구인 든대로 일을 하며 부르는 〈든 대질소리〉도 전한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을 넣기 때문인 것 같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푸면서 부른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제창의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일명 〈배내리는소리〉라고도 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농업노동요는 〈메나리소리〉, 〈논삶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벼베는소리〉, 〈나부야소리〉, 〈이랴소리〉 등이 있다. 도문동의 김남형(남·73), 오대환(남·54), 노학동의 김병철(남·74) 등이 불러주었다.

토목노동요는 대포동의 허삼용(남·77), 홍종덕(남·70)이 부른 〈지정소리〉가 조사되었다. 이 소리는 〈지지미〉라고도 하고, '지자야'라는 후렴을 붙였다. 임업노동요로 〈목도소리〉가 있고, 길쌈노동요로 〈베짜는소리〉가 있다.

의식요는 노동요에 비해 많지 않았다. 〈운상소리〉,〈달구소리〉,〈회심곡〉등이 조사되었고, 유희요로〈가갸거겨소리〉,〈곱새치기소리〉,〈각설이타령〉,〈다북녀〉,〈비둘기〉등이 조사되었 다.

#### ◇ 든대소리(배 진수하는 소리)

자 자, 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
자 자, 이럴 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개문항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 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나 가구 동네술집은 낮에나 가자

### ◇ 가래소리(고기 퍼담는 소리)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니잘나고 내잘나도 소용없잖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똑같이 들어서 당겨다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오늘이 이렇게 되면은	에라소 가래로구나
한 배 만선 해서 싣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고향 들어가면은	에라소 가래로구나
얼매나 기분좋고 명이나느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내하는 소리는 다같이 맞춰	에라소 가래로구나
솜씨 많이 당겨주오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에라소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산대 저산대 다걸어 실었네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뱃짐이 들었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몰이 한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바다에 들어서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죽서루나 구경가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하면 죽서루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참석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청간정을 지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에 들어가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구경이나 가보세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산이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구름같이 보이는구나 천하명산이 그아니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바다가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앞바다에 들어서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리저리 댕기다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년춘삼월 호시절에 에라소 가래로구나 잎이지고 꽃이핀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 ◇ 논매는소리(도문메나리)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다함께 논김을 매어보자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을 입고 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동해나 동창에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떴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되었으니
지루한 점심때를 몹시도 기다렸다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심심하고 양양한데 질꼬내기 불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떼 새솔잎나네
녹수청강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저여나간다 말만에말고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잘도하네 잘도하네 총각대방 잘도하네

- 제보자 : 김남형(남 · 73), 도문동

#### ◇ 모찌는소리

얼럴럴 하더니 또 한춤이라 나도 그저 또 한춤 나간다 얼럴럴 하더니 나도 또 한춤이라 - 제보자: 김남형(남·73), 도문동

#### ◇ 벼묶는소리(한단 소리)

한 줌 두 줌 석 줌 하니 또 한 단이라 나도 마쳐 또 한단 묶어냈다 얼른 하더니 아흐 한 단 나가네 얼른 하더니 아흐 또 한 단 나가네 얼른 하더니 또 한 단 묶었다 니 한 단 벳으면 나도 한 단 베었다 얼른 하더니 아흐 나도 한 단 묶었다 얼른 뚝딱하더니 나 또 한 단 나간다 - 제보자 : 김남형(남·73), 도문동

#### ◇ 이랴소리(소모는 소리)

이러 이러 디어 디어 / 이러 이러 올라서라 어디어 우측으로 돌아라 / 이러 어서 가자 일녁서산 해는 지는데 /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가자 이 소야 / 이러이러 이러 가자 야 이눔의 소야 빨리 가자 / 해는 다 져간다 해는 서산에 지고 / 니가 더디 가면 이걸 못다 갈면 어떡하나 / 빨리 가자 이 쇠새끼야

해는 다지고 / 이러 이 소야 빨리가자

해는 다 서산에 지구 / 이러 이러 이러 이러 가자

- 제보자 : 김남형(남 · 73), 도문동

#### ◇ 나부야소리(검불날리는소리)

(자 또바리 여기 받쳤어요)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빙글빙글 돌아가며 에헤이 에호 여기부치고 저기부치고 에헤이 에호 바람세게 부쳐주소 에헤이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이호

(자 또바리가 나왔어요 또 한 번 넘겨야 합니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소리가 맞지 않으면 에헤이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치가 부서질 듯 합니다 에헤이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자 두 번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더 넘겨야 해요)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비클빙글 들어가며 에헤이 에호 이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에호 이호

(자 세 번째 또바리 나왔습니다) - 제보자 : 김병철(남·74), 노학동

#### ◇ 지정소리(땅다지는소리)

이 집짓고 삼 년만에 /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낳고 / 에헤라 지자야 에헤라 지자야 열녀가 죽어야 열녀가 서지 / 에헤라 지자야 에헤라 지자야 서산에 지는 해는 / 지고 싶어지나 에헤라 지자야 날버리고 가시는 님은 / 에헤라 지자야

가고싶어 간단 말이냐 / 에헤라 지자야

에에라 지자야 에헤라 지자야

- 제보자 : 허삼용(남 · 77), 홍종덕(남 · 70), 대포동

#### ◇ 허영차소리(목도 소리)

자재여 어기정 어기정차 어기정 어기저라 저기 가는 저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우나 삼계 어기저야 이여차 어라 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녁 달 돗는다 어기저야 이여차 어라

#### ◇ 베짜는 소리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어 잉에 걸어 딸각딸각 짜듯하니 대문밖에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쥐고 두손으로 펴어보니 부모죽은 편지로다 한 모텡이를 돌아가서 비네(비녀) 빼서 땅꽂고 또 한 모텡이 돌아가서 머리 풀어 산발하고 또 한 모텡이 돌아가서 부모죽은 지불 땅에 내가왔네 내가왔네 부모죽은 부모얼굴 다시 보자니 이에 이년 오랄 적에 왜 못오고 이제와서 어찌하나 - 제보자: 고성녀(여·80), 설약동

#### ◇ 운상소리

에호 에헤호 어이갈까 어이갈까 에호 에헤호 북망산천 어이갈까 저승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에호 에헤호 어이갈까 어이갈까

#### ◇ 덜구소리

에헤루 덜구야 에헤루 덜구야 이산을 써서 삼 년 만이면 에헤루 덜구야 아들이 나면 효자가 되고 에헤루 덜구야 딸이 나면 열녀가 난다 에헤루 덜구야

#### ◇ 가갸거겨소리(한글뒷풀이 소리)

기역 니은 디글 리을 기역자로야 집을 짓고 지긋지긋 살자더니 인연이 지중치 못하구나 가이기야 거이겨하니 가이없는 이내 몸 그지 없이 되었구나 고이기요 구이교하니 고생하던 우리 낭군 구원하기가 짝이 없네 나니야 너냐하니 나귀등에 솔질하여 조선팔도를 유람하자 노니요 누니요하니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리라 라리야 러료하니 날아가는 원앙새 널과 날과 짝을 짓자 로리요 루료하니 노류장화 이게 유지 처처마다 있건만 마미야 모묘하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낭군이 모지도다 바비야 버벼하니 밥을 먹다가 남생각 목이 메어 못먹겠네 보비여 부류하니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을 보고지고 라리요 러료하니 날아가는 원양새야 널과 날과 짝을 짓자 - 제보자: 김병철(남·76), 노학동

#### ◇ 곱세치기소리(노름하는소리)

일자도 모르는게 판무식 이북단천은 행정고 삼을삼을 얽은님 여기저기 가다가 남행리에 정들이지 말어 오를으를 오진보 오기요 밤중오신 손님 괄세를 말고 천대를 말아라 그대불림 잘못났소 내불림 정불림이라 - 제보자: 김병철(남·76), 노학동

#### ◇ 숫자풀이소리(각설이타령)

얼씨구 씨고씨고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일장호서야 물떠놔라 적은 각시가 내려온다. 푸움 품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이자나 한 자 들고보오 이나침침 야순박에 박중 샛별이 완연했네 푸움 품바라 정좋다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삼자나 한 자 들고보오 삼동구리 놋촛대에 제상밑으로 들어갔네 푸움 품바라 각설이 어덜거리고나 들어가자 사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사대행차 떠났네 점심참이가 늦어오네 푸움 품바라 각설이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오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오색가지 베를 모아 공기단으로 돛을 달고 맑은 날 선들분다 유월정창 더운 날에 볕샅보기가 늦어온다 푸움 품바라 각설아 거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육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육지장지 대장지 대공사신 들어갈 제 노천조천 찾아간다 푸움 품바라 정좋다 거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칠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칠년 대한 왕가뭄에 정제시마 떨어지네 푸움 품바라 각설이 어덜거리고나 들어가자 팔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우리야 행차 팔행자 너거행자 칠행자 한 서당에 글 배워도 제사금자가 늦어온다 푸움 품바라 각설이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구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앉아간다 안간장 궁덩이 모자라 못보고 설설긴다 기개장 무릅팍 모자라 못볼래 아가리 크다 대구장 엄청시러워 못볼래 푸움 품바라 각설이 어덜거리고나 들어가자 열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요놈의 각설이 요래도 하룻장만 빠져도 지집 자식을 골리네 푸움 품바라 각설아

- 제보자 : 임옥순(여 · 75), 동명동

#### ◇ 다북녀

다북다북 다북네야 해가진데 어디가니 우리엄마 산소가서 젖먹으러 나는간다 산높아서 못갈러라 물깊어서 못갈러라 산높으면 기어가고 물깊으면 헤엄쳐서 우리엄마 산소가서 노랑참외 열렸드라 하나따서 맛을보니 우리엄마 젖맛일새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 어디로 울며가니 우리엄니 무덤가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물깊어서 못간다오 물깊으면 헤엄치지 산높아서 못간다오 산높으면 기어가지 명태줄까 명태싫다 가지줄까 가지싫어 우리엄마 젖을다오 우리엄마 무덤가에 기어기어 가서보니 빗깔좋고 탐스러운 개똥참외 열렸기에 두손으로 따가지고 먹어보니 우리엄마 살아생전 먹여주시던 젖맛이요 - 제보자 : 이옥순(여 · 80). 설악동

#### ◇ 할미꽃

뒷동산에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천만가지 꽃중에 무슨꽃이 못되어 허리굽고 등굽은 할미꽃이 되었나

#### ◇ 비둘기

가는고개 비둘기야 너어디가 자고왔나 앞을열개 내려달아 금도개비 자는방에 누에잠을 자고왔다 살기는 좋더라만 줌이트면 싸리둥정 부모그려 못살러라

## 3)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속초지역은 과거에 양양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농요는 도문동 등 양양과 가까운 곳에 주로 남아있고 설악산 등 산악지방에서는 초동들이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나 핏골에서 나무하면서 부르던 노래, 산삼 캐는 〈심메소리〉도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업요는 속초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다수가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

중남자 도령님이요

무릎밑에 멍석아기

#### ◇ 조양동 지신제 고사소리

상남자 서방님

무릎위에 동자매기

국태민안이 범율전 세화연풍이 돌아든다 대조 등극할 때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봉황을 눌러 대궐을 짓고 대궐앞엔 육조로다 오명문이 가감사요 삼정승 육판서 각도 각읍을 마려할 때 경상도 71주가 대모관이오 전라도 54관 함경도 34관 강원도 경관이 대모관 강원도를 들어서서 26과을 마려할 때 춘천하고도 도계면이요 원주하고도 현감동 영월하고도 단종대왕 인제하고도 지방도 양양하고도 속초시 영동시군을 잡아든다 동으로는 조양동이요 시로는 속초시 양씨가정을 잡아든다

하남자 여자이기

구석구석 처자아기

작년신수는 가렸거니와

정월액은

이월영동 삼월삼짇 유월유두 칠월칠석

시월중기 십일월동지

온갖 살이 심하다니 물앞 출입하옵시면 물앞 출입하옵시면

고개고개 서왕살

칠십삼만에 성주살이오 아래웃방에는 삼신살이오 사랑에는 걸객살이오 형제지간에 의논살

치켜나 잡아라 천둥살이요

을지경도 수문장살을

난데없는 봉황이 또 한 날개를 치니

큰아기가 자라날 때 억수장마에 비퍼붓듯

심심산천에 칡줄얽듯

과거보러

어떤배를 잡아타니 돌배를 잡아타니 흙토산을 잡아타니 가랑잎배를 잡아타니 철배를 잡아타니

고생고생 무릅쓰고 춘당서를 바라보니

강구연월 동문여라

삼시관 받아보니 자자야 마다 구절이요

한림학사 제수받아

양씨가문의 영화로다

금년신수를 가려보자

정월대보름으로 막아내고

사월초파일 오월단오

팔월한가위 구월구일

십이월그믐 그건 그러하거니와

살풀이나 하여보자 두되도 서왕살이요 서되도 서왕살이요

거리거리 서왕살 마당에는 벼락살

일오팔십에 조왕살이오 도장에는 지석살이오 부모자식에는 고생살이오 부부지간에는 이별살이요

내려잡이라 기둥살이오

천지백살 다 풀어내니 근들아니 영화로다

한나래를 쭉치니 102만석을 점지하고

귀동자 아기를 점지하고

외 크듯 가지 크듯 왕대밭에 대손솟듯

높은산에 구름걷듯 뭉기뭉기 자라나서

한양에 올라갈 때 써어져서 못타고 가라앉아 못타고 풀어져서 못타고 바람무서워 못타고 지남철이 무섭더라 한양에 당도하니 어떤글자 걸렸드냐

일필휘지를 선정하니

어허 그글 잘지었다 귀마다 관주로다

금의환양하니

#### ◇ 든대소리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우리배를 내리다보니 이리저리 하다보니 사공님은 배를 내려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자 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삼척하면 죽서루요 강릉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 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하면 낙산사요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 바다에 들어가보니 금강산이 좋을시고 일만이천 봉우리를 천하명산 그 아니냐 만경대를 올라가니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명년춘삼월 호시절에 보고보고 암만봐도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개문항이 만복래라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내 손발이 다얼었구나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하니 정라진 들어가니 나를 보고 손을 치네 동네 술집은 낮에 나가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하면 경포대요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 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동해끼고 솟은산이 구름같이 몰렸으니 장안사를 구경하고 마의태자 어디갔나 원산 바닷가가 나서는구나 이러저러 댕기다보니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잎이피고 꽃이핀다 보배인들 배이어라

#### ◇ 지정다지기

가을철이 얼른되니 저 농부 거동보소 낫자루 꽁무니차고 나갈적에 빈말이요 앞마당 노적이요 노적가리가 좋을시고

이리 툭처 썩나가니 돌아올적엔 찬말이라 말마같은 상노놈은 절방을 걸어 저들이고 비오리같은 종년들은 따발이 받쳐 여드리고 바깥마당도 노적이라

#### ◇ 도문메나리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요놈 매어 매어나주게 다함께 논김을 매어보자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아어지고 시원한 백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나 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 떴다 아침해가 높이 떠서 점심 때가 되었다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늦어가네 지루한 점심 때를 점심참이 되었으니 몹시도 기다렸다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요놈 매어 매어나 주게 심심하고 얌얌한데 질꼬내기 불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떼 새솔잎나네 배추 씻는 저 처녀야 녹수청강 흐르는 물에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 지나 명년삼월 다시 피지

## 4)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속초의 어업노동요는 청호동을 비롯하여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등에서 주로 전승된다. 어업 노동요를 흔히들 뱃소리라고 하는데 청호동의 경우 함경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것이 많은 실정이고,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어로 부르던 것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노노젓는 배 가 대부분으로 조업 시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힘들게 고기를 잡을 때 박자와 흥을 맞추 고 듣게 하여 주는 소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고생스런 바다 일을 하는 데는 소리꾼의 소리가 씩씩해야 일할 맛이 난다고 한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곳에서 '허리도리'라 하는데, 힘이 센 앞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어부들이 후렴을 제창하는 형식이다

#### ◇ 지어소리

헹-헤 헹-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이팔청춘 그립도다 간다더니 왜 왔던가 울고가더니 왜 왔더냐 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을 발편 잠이나 자구 가거라 자꾸 가구나 지어라 내지 가지 만사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 오동추야 달 밝은데 님의 생각이 절루 만난다 요차보자 지어라 내자 가자가자 빨리가자 이수건너 배로 가자 배로함께 어서가자 조그마한 자라 등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크다하는 저 달을 싣고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우리 고향 언제가나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화같은 밝은 밤은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저 달보고 울지를 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님아님아 정든님아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요내 가슴을 만지어 보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청천 하늘에 별두나 많다

#### ◇ 다리어소리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지
다리어라	내자꾸나	다리어라	내지
니가내가	어째하든	다리어라	내지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라	내지
동지섣달	기나긴밤	다리어라	내지
누웠으니	잠이오나	다리어라	내지
앉아있은들	님이오나	다리어라	내지
잠도님도	아니온다	다리어라	내지
배가고파	받은밥은	다리어라	내지
돌도많고	니도많다	다리어라	내지
어느시절에	님을만나	다리어라	내지
돌가리고	니가리나	다리어라	내지
동지섣달	설한풍에	다리어라	내지
손발시러	내못살겠네	다리어라	내지
원수로다	원수로다	다리어라	내지
악마금전이	원수로다	다리어라	내지
이내팔자	기박하여	다리어라	내지
이모양이	되었구나	다리어라	내지

동해동산	돋는해는	다리어라 내자
저산으로	일몰하고	다리어라 내자
우리할일	늦어가네	다리어라 내자
꽃같은	고운님을	다리어라 내자
열매같이	맺어놓고	다리어라 내자
가지가지	뻗은정은	다리어라 내자
뿌리같이	깊었구나	다리어라 내자
적설이	자진토록	다리어라 내자
춘소식을	몰랐더니	다리어라 내자
귀용덕이	천봉난이	다리어라 내자
와유생심에	수동요라	다리어라 내자
추야장밤도	길다마는	다리어라 내자
나만혼자	밤이긴가	다리어라 내자
어느시절에	님을만나	다리어라 내자
긴밤을	짧게셀까	다리어라 내자
구구청병	일인호야	다리어라 내자
부산이둥실	높이떴다	다리어라 내자
양국에	잦은안개	다리어라 내자
월봉으로	돌아든다	다리어라 내자
오월이라	단오날	다리어라 내자
양류속에	그네매고	다리어라 내자
그네뛰는	요처녀야	다리어라 내자
한번굴러	<b>앞줄높아</b>	다리어라 내자
두번굴러	뒷줄높아	다리어라 내자
삼사번	굴러대니	다리어라 내자
녹수청산	자진토다	다리어라 내자
말없는	청산이요	다리어라 내자
태가없는	유수로다	다리어라 내자
값없는	청풍이요	다리어라 내자
임자없는	이몸이라	다리어라 내자
일락서산	해는지고	다리어라 내자
월출동산	달이떳네	다리어라 내자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0.77.	E1310131 11171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간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가실적에	오마하더니	다리어라 내자
가고나니	그만이구나	다리어라 내자
우리부모	날양할제	다리어라 내자
젖은자리	마른자리	다리어라 내자
이리저리	가려눕혀	다리어라 내자
이런고생	시킬려고	다리어라 내자
세살적에	중이나 줬으면	다리어라 내자
이런고상	없을텐데	다리어라 내자
금강산이	좋을시고	다리어라 내자
동해끼고	솟은산이	다리어라 내자
일만이천	봉우리를	다리어라 내자
구름같이	몰렸으나	다리어라 내자
천하명산	그어디냐	다리어라 내자
장안사를	구경하고	다리어라 내자
만경대를	올라가니	다리어라 내자
마의태자	어디갔나	다리어라 내자
보고보고	암만봐도	다리어라 내자
보배인들	배이어라	다리어라 내자
저기가는	저놈봐라	다리어라 내자
나를보면	손을친다	다리어라 내자
손을친데	밤에가고	다리어라 내자
동네술집은	낮에가자	다리어라 내자
잘도하네	잘도하네	다리어라 내자
앞발을 버E	1고 뒤로 자빠져	다리어라 내자
눕지말고 누	부쩍부쩍 당겨주네	다리어라 내자

### ◇ 베끼소리

베끼어라 노	년 <b>자</b>	베끼어라 보자
해는지고	저문날에	베끼어라 보자
고베없는	소를놓고	베끼어라 보자

그소찾기	망경이다	베끼어라	보자
손흔드는데는	밤에가구	베끼어라	보자
동리술집은	낮에가구	베끼어라	보자
첫날밤에	색시벗기듯	베끼어라	보자
이리저리	베씨어보자	베끼어라	보자
나는좋네	나는좋네	베끼어라	보자
처녀총각이	나는좋네	베끼어라	보자
귀밑머리	치켜들고	베끼어라	보자
입맞추기	나는좋네	베끼어라	보자
어이끼고	내자	베끼어라	보자
잘걸렸네	못걸렸네	베끼어라	보자
명주바지	잘살걸리듯	베끼어라	보자
대추나무	연줄걸리듯	베끼어라	보자
연못안	연당안에	베끼어라	보자
연밥따는	요처녀야	베끼어라	보자
연밥은	내따줄게	베끼어라	보자
내품안에	잠들거라	베끼어라	보자
잠들기는	어렵지않소	베끼어라	보자
연밥따기	늦어간다	베끼어라	보자
얻어먹다	빌어먹다	베끼어라	보자
집이라걸	지어노니	베끼어라	보자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녀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삽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용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베끼어라	보자
개문항이	만복래라	베끼어라	보자
동지섣달	긴긴밤에	베끼어라	보자
닭개는	잠자는데	베끼어라	보자
우리팔자	무슨팔자	베끼어라	보자
이런고생을	하느냐	베끼어라	보자
이눔을쥐면	저눔이나오고	베끼어라	보자

저눔을쥐면	이눔이나온다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기운을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에	베끼어라	보자
취한술이	절로깬다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이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푸른푸른	봄배추는	베끼어라	보자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베끼어라	보자
옥에갇힌	춘향이는	베끼어라	보자
이도령만	기다린다	베끼어라	보자

## ◇ 산대소리

에라소 가래로구	에라소 가래로구나 퍼실어보자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에라소 가래로구나
지멋에 젖어 축늘어졌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산대 저산대 다걸어 실었네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뱃짐이 들었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몰이 한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바다에 들어서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죽서루나 구경가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하면 죽서루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참석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청간정을 지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에 들어가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구경이나 가보세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이 좋을시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동해끼고 솟은산이 에라소 가래로구나 구름같이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천하명산이 그아니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바다가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앞바다에 들어서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리저리 댕기다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아가 동자야 술 부어라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매일장춘 먹고나 놀자 아니먹고 아니쓰면 에라소 가래로구나 왕장군이 고잘래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춘추시절은 적망인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개고충은 넋을 잃었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인간청춘 늙어간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산도설고 물도설은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떤사람은 팔자가 좋아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고대광실 높은집에 살림큰애기 안고 노는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 이런 고상을 하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부자리 좋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왕구성 풍세 샛별 요강이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람간장 다 녹인다

산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로구나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저 멍텅구리는 에라소 가래로구나 뚫린 구멍도 못뚫는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세상만사는 무과주요 술이나 먹구 놀아보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 산대 저 산대 거두시더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만선이 되어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를 몰아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항에 입항하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왕 지나왔던 곳에 원산시내나 구경가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골목 저골목 당기다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꽃이진다고 서러워마라 내년춘삼월에 다시 만나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 ◇ 든대소리

자네지 내내지

우리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 다 얼었구나 들어보세 들어보세 우리배를 들어보세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로다 개고층이 넋을 잃었다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인간청춘 다 늙어간다 어떤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림큰애기 안고 노는데 우리 팔자가 기박하여 이런 고상 하는구나 가자가자 어서 가자 보배 건지러 어서가자

## 5)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6.

#### ◇ 논매는소리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나간다 말만에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심심하고 얌얌한데 질꼬내기 불러아어보세 잘도하네 잘도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오늘해도 석양이네 골골마다 그늘아어졌네

#### ◇ 검불날리는소리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아됩니다)	
에호에호	에호에호
이야 합니다	)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이호에호 아됩니다)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이호에호 이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

## 2. 채록자료

여기에 실린 자료는 2002년 속초지역에서 채록한 것이다. 동별로 순서대로 적는다.

### 1) 속초시 노학동(蘆鶴洞)

노학동은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의 蘆와 척산리 학사평의 鶴을 때 이름지었다. 면적은 22.26㎢이고, 인구는 7310세대 21263명, 남자 10481명, 여자1078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며, 주민 대부분이 3차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법정동은 노학동과 청학동(교동 일부 지역 포함) 2개 동이며 45통 240반으로 되어있다. 현재 아파트 증설 및 택지개발로 시의 중심부로 부상하였으며, 속초시내 유일한 대학인 동우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후기 『읍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노학동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던 것이 그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강점기 때 행정상 노리가 신설되었고 습지대의개발과 버덩의 개척에 따라 더욱 더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동시에 노리는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4개 리로 갈라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지역에서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 이주해와 신흥리가 신설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으로 명명되었다.

노리(蘆里)는 노학동의 중심마을이며 갈골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논으로 조성되어 있던 앞버 덩 일대가 예전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蘆洞, 蘆洞里, 蘆里로 명명하였다.

응골은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應谷, 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 이름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있다. 마을이 청대산 두루 봉 앞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설과 또 하나는 스님이 시주를 왔을 때 스님의 시주에 잘 응해주었다는 설이다.

도리원리(桃李源里)는 노리 동북쪽 둔덕에 위치한 마을로 과거 노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 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졌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고 하였다 하나, 지금 되린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발음의 변화에서 마을 이름이 명명된 듯하다.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두안 덕, 뒤란덕, 되란덕이라고 불리다가 한자로 표기할 때 도리원으로 된 듯하다.

이목리(梨木里)는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로 과거 노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졌다. 돌배나무골이라는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 梨木洞, 梨洞, 梨洞里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梨木里로 최종 명명하였다.

척산리(尺山里)는 과거 노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졌다.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온천으로 유명하다. 척산이라는 이름은 마을 뒤 목우재라는 고개와 관련이 있다. 고개, 재가 있는 산이므로 잿산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尺山으로 명명하였다. 그 외 농사철 마을 뒷산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다는 설, 마을 뒷산이 마치 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다는 설, 동네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피륙이 마치산처럼 쌓여 불려졌다는 설, 물난리가 심해 농경지 경계가 불분명해 산에 올라 경계를 정하거나, 가을 농사의 소출을 측정하여 각자의 세곡이나 세물을 결정하던 산을 가리켜 척산이라 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척산리 관내에 척산온천이 있어 관광단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930년대 땅속에서 저절로 뜨거운 물이 솟아올라 온천임이 알려진 후로 1969년 온천수 개발에 성공하였고, 1976년 정부는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1978년 10월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하였다.

학사평은 전통적으로 행정상 독립된 동리를 이루지 못하고 노리에 속하다가, 1942년 이후에는 척산리에 속하였다가 1966년 동제 실시 후 노학동에 속하였다.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 자 대신 '학' 자를 써서 학사평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으로 딱사발로 통칭 불린다

신흥리는 5.16 이후 군사정부의 개간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 해와서 뒷버덩에 새로 일으킨 마을로 자활촌이라 불려졌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제를 실시한 후 노학동에 속하였다.

속초시 노학동 척산리 김주현 댁. 2002. 7. 15

김주현: 남·81

김주현: 남·81, 속초시 노학동 42통 2반 / 춘천에서 출생하여 3살 때 학사평으로 이사왔다. 45년 전에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다. 근처에 개량서당에 몇 해간 다니다가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에 1년 정도 가 있었다. 사주, 풍수 등에 밝고,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 하였지만 이날은 감기에 걸려 목이 좋지 않았다.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조사자 : 이 마을에 유래가 있나요?

김주현: 저 앞산이 자 尺자거든. 자처럼 질게 생겼거든. 노학동은 저 앞에 갈밭이 있었어요. 그 앞에 물이 있거든. 학이 내려와 벌거지(벌레) 주어 먹느라 있었거든. 그래서 노학동이지요.

조사자 : 학교는 다니셨나요?

김주현: 학교 서당 10년 다녔어요. 선상이 집으로 다니며 한 달씩 돌림차례 하면서 하는 그런 선상(선생)이지 머(뭐). 관립학교는 몇 해 다니다 말았어요. 개량서당이라고 이곳에 있었는데 한 이태 다녔지.

조사자 : 논 삶을 때 소모는 소리하나요?

김주현: 우리가 소 두 마리 갖고 몰았어요. 스레가 둘이거든, 두 마리가 끌고 다니거든. 마라소가 기운이 세야 되고, 두 마리로 끄는 것을 제리소(겨리)소라 해요. 쪽스레는 하나가 모는 게 쪽스레고 한스레는 둘이 모는 거고.

#### ◇ 소모는소리

김주현 : 이러 이소

어에 이러 이소

#### ◇ 노랫가락

김주현 : 놀아 젊어만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화려춘풍 올라시 해를쫓던 저두견아 어다공산 어드메도 노래둔절 왜왔느냐 밤에밤중에 너우는소리 겨우든잠 다깨운다. 이리이리 아니누지는 못하리라

## ◇ 어랑타령

김주현: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가는 소리

고무공장 단보짐만 싸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려언마 디여라 내 사령아

속초시 노학동 노리 이연호 댁, 2002, 7, 20

차종용 : 여·85

예전에 도리원리였던 곳을 찾아갔으나 채록에 실패한 후 다시 노리였던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마침 한 주민이 이연호(여·75) 댁에 할머니들이 많이 모인다는 정보를 주어 그곳을 찾아가는 도중에 차종용 할머니를 만나 같이 모시고 갔다.

차종용: 여·85, 속초시 노학동 39통 6반 / 부모 때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로 남편은 35살에 사망하고 아들 3형제는 한국전쟁 때 사망하여 지금은 이곳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연세에 비해 정정하고 기억력이 비상하였다. 지금도 밤새도록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 ◇ 박타는소리

차종용: 시르렁실근 톱질이야 실근실근 톱질이야

아이구 엄니야 당겨주소 시르렁실근 당겨주소 큰자식은 토소리가고 작은자식은 이리로오너라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놈의 가난이야 어떤 사람은 팔자좋아 고대광실야 높은집에 부귀나 영화로 잘살건만 요놈팔자 무슨팔자래 박을 따서야 먹고사니 요런팔자가 또어디있나

시르렁 실근 당겨주게 마누라님에 톱소리 좀야 들어보소

 톱질을야 하자하니
 배가 고파서 못하겠네

 이박을야 어서따서
 박속을랑 끓여먹고

 바가질랑은 팔어가지고
 생맹포를 다려보세

 시르렁실근 당겨주게
 이박을 따개거든

 아무것두야 나오지말고
 박한통 나와주소

이띠리리 띠리리 이띠리리 닐리 닐리이야

## ◇ 토끼화상

차종용: 토끼여 화상을 그려라 토끼화상을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렀소

일월선 봉화대 24 붕그리던 환쟁이

난 25 국천자 능허대 일월 그리던 환쟁이

동정유리 청황연(靑黃硯) 오징어불러 먹갈어

양두화 덤썩 풀어 이리야저리 그린다

천하명산 승기(승지)간에 경기(경개)보던야 눈 그리고

앵무공작 지저귈제 소래야 듣던 귀그리고

방장봉에 20 운무중에 내잘맞던 코그리고

난초진초(지초) 온갖화초 꽃따먹던야 입그리고

대한엄동 설한에 방풍하던 털그리고

우편은 청산이요 좌편은 녹수로다

녹수청산 깊은곳에 양금주축(주춤) 펄펄뛰던

두귀는 쭝긋쭝긋 두눈은 도래도래

허리는질쑥 꽁지는뭉툭 앞발은짜르고 뒷발은길어

깜짝깜짝 잘두뛴다.

24) 李謫仙 鳳凰臺 : 중국 당나라 이백이 놀던 봉황대

25) 난 : 鸞은 난새 혹은 봉황새의 일종으로 천자(황제)를 상징하는 동물. 26) 방장봉래(方丈蓬萊) : 신선이 살고 있다던 방장산과 봉래산을 의미함. 아미산을 반유토(아미산월반윤추) <sup>27</sup> 들에서 더할소냐 아니야 넸다 별주부야 너가지고 나거라(가거라)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띠리리 닐리리야

## ◇ 다북녀

차종용: 다북다북다북네야 너어두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진곳에 젖먹으러 울고간다

야야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뒷동산에야 고목낭기 잎이피면 온다더라

산나무 잎이피지 죽은나무도 잎이피나

아가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살강밑에 삶은팥이 싹이나면 온다더라

산팥이 싹이나지 삶은 팥도 싹이나너

아가아가 울지마라

부뚜막에 엎은 박이 싹이 나면 온다더라

산박이 싹이나지 떼겐(떼어낸)박도 싹이나너

아가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펭풍(병풍)모레 그린닭이 홰를치면 온다더라

산닭이 홰를치지 그린닭도 홰를치너

아가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아가아가 울지마라 니가울면 남의눈에서 피눈물난다

#### ◇ 창부타령

차종용: 인생부두 소년들아 젊었을적에 덕을닦소

빈객삼천 맹상군두나 죽어지면은 자취없고

<sup>27)</sup> 蛾眉山月半輪秋: 李白의 〈蛾眉山月歌〉의 한 詩句로, 三峽으로 가는 도중 蛾眉山의 달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지었다 한다.

백자천손 광부냥(곽분양)<sup>200</sup>두야 죽어지면은 허사로다 영웅인들야 늙지를알고(말고) 호걸인들야 죽잖을까 여홍(영웅)두나 자랑을 말고 호걸두야 말을 마소 이세월이 견고할줄 태산같이나 믿었더니 백년광음 못다가서야 백발되니나 슬프도다 이내일심야 늙어져서 한구석에야 앉었으니 오늘 누가나 알아줄까 생각하고 생각하니야 원통하구나 절통하다 이한몸이 돌아가면 다시오기는 어렵도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 ♦ 새타령

차종용: 새가새가 날아든다

온갖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야 문전에 풍년새

상구꼭심 무인초 우렁비 조물새들이

농촌화답에 짝을지어 쌍긋쌍긋 날아든다.

말잘하는 앵무새 춤잘추는 학두루미

소태미 수국 앵맥이는 주루루

저쑤구기 29 울음운다 저황조 울음운다

이산에가면 쑤꾹쑤꾹 저산에가도 쑤꾹쑤꾹

좌우로다니며 울음운다

저황조 울음운다 저꾀꼬리 울음운다

아무데가나 이쁜새 온갖소리를 다하며

바람아 등천 부지마라

추풍낙엽이 떨어서 명년삼월이 돌아오면

목동의 요지가 니아니냐

<sup>28)</sup> 곽분양 :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명장 郭子儀. 안록산의 난을 토벌하였고 그외 수많은 전공을 세워 汾陽 王으로 봉해짐. 곽분양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

<sup>29)</sup> 소쩍새

띠리리리 무엇을 물어다 집을질까 무엇을 물어다 집을제(지어) 건넌산 가리오 능수버들 막교지상에 꾀꼬리 요리롱 저리롱 좌우로 다니며 울음운다. 띠띠 띠리리

## ◇ 청춘가

차종용: 청천 하날에 잔별두 많고요

요내가슴에는 수심도 많구나 곤곤한 세상을 근근히 지내니 불쌍한 이몸이야 괴로이 부는구나

당사실 맺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맺힌거는 무엇으로 푸느냐

인생은 일장의 또춘몽하니나 세상만사가 아아 꿈받기로구나

날다려 가려므라 날모셔 가거라 화영낭군이 날다려 가려므나

산이 높아야 골골이 짚지요 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얼매나 깊느냐

악마야 부수야 황금만 알았지 생사람 죽는줄은 왜몰라 주느냐

우리아버지가 왜나를 낳아가지고 한고상 못할고상 요렇게 시키나

## ◇ 시집살이

차종용: 세살먹어서 어머닐잃고 다섯살먹어서 아버질잃고

삼오시오야 열다섯살에 시집살이가 웬일인가 하늘같은 서방님을요 태산같이나 믿었더니 우연히우연히 병이들어서 대한약방에 약을지어 풍로화리에 약을때려서 베포수건에 짜가지고 한손에는 약을들고요 한손으로 고를찢고

정든님의얼굴이 데다보다가 숙넘어야 간줄을 몰랐구나

죽는사람도 불쌍치만 산사람도 불쌍하네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청춘과부가 웬일이냐 얼씨구 얼씨구나 정말두좋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 ◇ 한글뒷풀이

차종용: 지역자로 집을짓구나 지긋지긋이 사쟀더니

인연이 지중치못하구나

가이없는야 이내몸이나 거지없이 되었구나 고생하던 우리낭군야 구건하기가 짝이없네 나귀등에나 소질하여서 조선팔도에 유람할까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날어가는야 원앙새야 너와나와나 짝을짓자 노류화자 인개유지 <sup>30</sup>는 처첩마둥에 다있건만 마재마재나 마쟀던님아 당사윌이 못가 님생각난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화영낭군이 모지도다 밥을먹다가 임생각에 목이미어서 못먹겠네

소슬단풍(蕭瑟丹楓)야 찬바람에 울고가는야 저 기러기

보고지고야 보고지고 우리낭군을 보고지고

사신행차 바쁜길에 중간에참이 늦었구나

한양손님 가거들랑 이내소식 정코가소

<sup>30)</sup> 路柳墻花 人皆可折이 원문. 길가의 버들, 담장의 꽃은 누구나 꺾을 수 있다는 뜻

아시다덤썩 안는손이 인정없이는 떨어졌네 오동복판(梧桐腹板) 거문고를(): 세줄늘() 듯 타노라니 백학이 하마 제짐작하여 우르우르 춤을춘다 자주종종 만내던 님이 영소식이 무소식 조별당군 <sup>31)</sup>도 내당군인데 편지나 없을수냐 차라리여 죽었더면 요런꼴 저런꼴 아니볼껄 초당안에나 깊이든잠 학의소리에 놀라깨니 그학소리는 간데없고 들리나니나 물소릴세 타도타도 뭘타도하니 어느누길 바래 여기왔네 토지지신이 감동하여서 임보게나 도와줍소 퍼요퍼요 보고싶어요 임이나하영 보고싶어요 폭포수(): ㅎㄹ는물() 풍기덩실 빠졌더면 요런고통을 안당할걸 화영낭군도 내낭군인데 소식조차나 돈절할까 호협하게나 먹었던 맘이 당사월이못가 임생각나네 여원과천 기내실(지나는)길에 가는풀잎이 웬일이냐 얼씨구 얼씨구나 정말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 ◇ 아리랑

차종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야 두고서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자축을 날넘게주게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야 두고서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당사실로 맺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맺힌거는 뭐로 푸나

31) 早別郎君: 이른 아침에 이별한 낭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남포야 등잔아 불밝히라 버렸던 낭군님 다시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구야 월심에 환하던 얼골(얼굴)이 본것이 화근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둘이 앉아서 합환주 합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 나물캐는소리

차종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로 와다시 넘겨나주게 산천초목이여 불붙은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 요내속에야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야 고개나 자축을 와다시 넘겨주게

> 삼팔령 이남은야 왜갈려나(갈라) 놓구 보고싶은야 부모자식은 못보고 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로 날 넘겨나주게

> 무정한여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 임이그리워 죽은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나고개를 날 넘겨주소

아들딸을여 만나고야 삼재불공을야 말고 딸같은야 여자를야 괄세를 마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를 잘두 넘어간다

아리랑여 고개는야 열두나 고개지 우리님야 만내는(만나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아린아리랑 스리야스리랑 아라리가 났소 아리아리랑 고개나 자축을 나를 넘겨주게

산이나여 높어야지 골골이나 짚지 조꼬만야 여자속이나 얼매나 깊너 아린아리랑 스리스리랑 심에나 나무는 매디매디야 꺾어두나 꽃만피네

우리나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길러서 어디메다가 줄데가없어서 이곳에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로 와다시 넘겨주게

참나물여 즈내기 <sup>32</sup>여 쓸어진 곳에 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를 나를 넘겨주게

갈철인지야 봄철인지야 나는야 몰랐더니 뒷동산에야 진달래꽃이나 나를 알궈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나 언제 또 넘어보나

## ♦ 욍그리 땡그리 33

차종용: 욍그리 땡그리

죄가 재축 오리 고이기 먹으나 못먹으나

죄가 때끔

왕그리 땡그리 삼사 똥개 망개 참나물 등거리 고등어 짠지 죄가 때끔

## ◇ 화투풀이

차종용: 정월이라 드는정은 이월매조로 막아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하마음 사월흑쌀(흑싸리)로 헤쳐놓고

오월난초에 노던나비는 유월목단에 춤을추니

칠월홍돼지 홀로누워서 팔월명월을 체다보네(쳐다보네)

구월국화 피는꽃이야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이불려도 그대생각 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이날려도 그대생각 이리생각 저리생각 생각끝에 한숨이오

한숨끝에는 눈물이라 눈물은흘러 엇깔을담고

한숨은깊어 동남풍되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겠오

<sup>33)</sup> 이 소리는 다리를 뻗어 놓고 다리를 하나씩 치면서 하는 소리다.

#### ◇ 노랫가락

차종용: 화락춘성 만화방천 때는좋다구 벗님네야 죽장집고야 마혜(망혜)신고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폭포두나 참이좋구나 명산경기(경개)가 여기로다

> 비유직하야 삼천척을 옛말아니 들었더니 의식은 화락구천이요 과년흥년이 아니로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겟네

꽃은꺾어서 머리에꽂고 잎은뜯어서 입에다물고 산에올라서 들구경하니 가는행인이 길못간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노지는 못하겟네

뒷동산에 고목나무는 내속과같이도 썩는구나 겉이썩어야 남이야알지요 속이썩으니 누가아나 요내속 썩는줄 어느누가나 알어줄까

옥분에 매화를심어 거리노중에 던졌더니 궂은비 찬바람을 마질(맞을)때루나 맞았구나 박쥐가 나빈체하고 꽃을보고서 앉을까말까

변치를마오 양인의 청을랑 변치마오 남모르게 깊이든정 새벽쌈(싸움)인들 당할소냐 우리가 피차에 남북간 살어도 불변심석자 잊지마오

유자도 나무련마는 한가지에 둘씩셋씩 광풍이 건득불어서 떨어질줄을 왜모르나 우리도 언제 좋은이만나 유자와같이

푸른바다 한가운데 뿌리없는 나무같소 가지는 열두가지요 잎은 피어서 삼백예순 기나무 열매가열어 일월이라고 하오니다. 하늘천 따지자하니 집우자로나 집을짓고 거칠홍 째바지에다 달월자로나 달을놓고 밤중면 임을모시고 별진잘숙

## ◇ 꿩서방

차종용: 꿔궝뀌궝 꿩서방 자네집이 어디너

이산넘고 저산넘어 덤불밑이 내집일세

## ◇ 각시방에 불켜라

차종용: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 ◇ 권주가

차종용: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술하자을 잡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이술한잔 들으시면은 천년두살고요 만년도사오

## ♦ 어랑타령

차종용: 시집살이여 못하면 고리짝질만 하였지

줄담배 아니먹고 나는 못살겠구나

어허야더야 어허야간다 경기경성을 가노라

우리나여 부모가 와다시를야 기를제 업어둥둥 안어둥둥 나를길러 줬건만

어허야더야 어허야간다 나는도려만(돌아만) 가노라

간데여 쪽쪽에 정들여나 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허야좋네 사령사령이로다

고향은여 정절어 단향이나야 되고야 단향은야 정절어 내고향이나 되는구나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허야동등 내사령이로다

아들야 딸을못나서 삼재야불공을 말고 날같은 여자를 니가야 괄세를 말아라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랑타령에 다팔아먹고 배추건달이 되었네.

이십살여 안쪽에 본가장을야 잃고서 십오야 지둥을 니가야안고 도느냐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허야좋다 사령사령이로다

산두여 높어야 골이나야 깊지 죄꼬만 열다섯 니가야 얼매나깊느냐 어허야어야 어허야 어허야좋다 내사령이로다

우리어머니여 울아버지가 내나를 기를제 진자리 마른자리 다골러(골라) 키웠건만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타령에 다팔아먹고 내사령이로다

하던내여 살림살이를 어느내 누게다 믿고서 소방산 대틀에 누워서 가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타령에 다팔아먹고 배추건달이 되었네

철러덩철러덩철러덩닭 몸보신할려고 먹었더니 시어머니야 잰소리 사대나 절골이 녹는구나 어허야간다 에헤야 어허야간다 경기경성을 가노라

산천이여 파릇파릇야 가시던 님이 백사정야 휘날려도 왜아니야 오느냐 어야더야 에헤야 어허야간다 경기경성을 가노라

## ◇ 복남아 울지마라 34)

차종용: 복남아 울지말고 어서자거라

너를업고 배주리는 날도있단다 복남아 우지마라 우지를마라 니가울면 네눈에선 피눈물난다 복남인 등에 엎혀 울고있어요 복남아 우지마라 우지를마라

## ◇ 부엉새소리

차종용: (암부엉이는) 부흥 양식없다 부흥

(숫부엉이는) 걱정마라 부흥

## ♦ 앞니빠진 수망다리

차종용: 앞니빠진 수망다리 뒷골로 가지마라

## ♦ 영장사놀리는소리 50

차종용: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고

엿장사 똥구멍은 찐덕찐덕

사기장산 사그러지고 옹기장산 오그러지고

<sup>34)</sup> 이 소리는 차종용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불렀다고 한다. 일종의 창가인 듯하다.

<sup>35)</sup> 이 소리는 어렸을 적에 불렀던 것으로, 동네에 엿장사나 옹기장사 등이 물건을 팔러오면 뒤따라가며 그들을 놀리면서 불렀다고 한다.

## ◇ 자장가

차종용: 자장자장

우리애긴 잘도자고 남의애긴 못두잔다 머리잠도 내려놔라 눈에잠도 내려놔라 우리애긴 잘도자고 남의애긴 못두잔다

## ◇ 둥게소리

차종용: 둥둥 둥둥

아침바람에 연초롱 저녁바람에 대추씨

## ◇ 참새소리

차종용: 참새야 참새야 오늘똑똑한

캄캄한 골짜기를 나만혼자서 높은산 짚은숲을 무성한곳에 적적한 제집으로 찾아가노라 아니요 여러분 저곳에는

내어머니 내아버지 기다르셔요 잠이있는 우리집이 있는곳일새 잘가셔요 여러동무 짹짹짹

## ◇ 한손에 책보들고

차종용: 한손에 책보들고 모자를 눈썹까지

붕글러치고 나세니 사나운 곳일세 바람이 불때마다 시꺼먼 옷지락이 바람에 펄펄날릴제 주름이죽죽 제친다

무스워 세상이 무습다고(무섭다고) 벌벌떠는 나귀몸

다부려 다부려 다부려 천하를 한화로에 한바퀴 둘이뜬다. 기러기 떼를만나서 사랑을 받는다.

## ◇ 할미꽃

차종용: 뒷동산에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천만가지 꽃중에 무슨꽃이 되어서 허리굽고 등굽은 할미꽃이 되었나

## ♦ 어떤 하날(하늘)에 중이왔나

차종용: 어떤하날에 중이왔나 어떤하날에 중이왔나

아닌밤중 중일러냐 염주를매어서 중일러냐 고깔을써서 중일러냐 가사를매워서 중일러냐

아닌밤중 중일러냐 검고도 푸른중생

풀거도야 검은중생 바라를팔러 내려왔너

바라를사오 바라를사오 이바라를야 사고보면

없는자손을 점지하고 있는자손은 수명장수 재수발원도 하오리다

# 2. 속초시 대포동(大浦洞)

행정동으로서의 대포동은 1998년 10월 17일 洞 통폐합으로 기존의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이 합쳐진 곳으로 다른 지역과는 특이하게 어촌, 농촌, 관광지가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이다.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진 대포항 횟집 먹거리촌과 국립공원 설악산이 있어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洞 전체면적은 65.87km²로 속초 전체면적의 62.8%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93.1%가 국립공원지역이다. 현재 행정동으로서의 대포동은 대포동, 설악동, 도문동 등 3개의법정동에 15통 6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현재 인구는 1775세대 5224명이며, 남자 2612명 여자 2612명이다.

법정동으로서의 대포동은 대포리, 내물치리, 외옹치리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포리는 큰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대포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하였다. 독재를 기준으로 하여 대포리를 독재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큰마을, 큰독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포는 일제 강점기 때 상당히 큰 항구로 이 고장의 문호를 담당했다. 1937년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었으나 1930년대에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부터 1937년 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졌고, 그 이후 면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대포는 성황제를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내고 3년이나 5년마다 풍어굿을 한다. 여성황당은 봉수터 끝에 있고, 남성황당은 큰길 건너 야산 중턱에 있다. 대포/물치지구는 영북 제1위 어업전진기지로 면적은 371ha이다.

외옹치리(外甕峙里)는 독재(甕峙)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고 하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외옹치리다. 『여지도서』, 조선후기 『읍지』등을 보면 조선시대의 행정상 명칭은 옹진리(甕津里)였었다. 그후 일제 강점기에 외옹치리로 바뀌었고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이 마을은 3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전하는데 한국전쟁 전에는 150세대가살았으나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 해안경비대가 위치한 곳에 신라 시대부터 있어온 德山 烽燧가 있다. 외옹치의 동제는 성황제, 용왕제, 장승·집대제 등 3개가 있다. 성황제는 봄, 가을로 길일을 택해 지냈으며 20여 년부터 음력 3월3일과 9월9일로 고정하여 지내고 있다. 용왕제는 3년마다 하는데 음력 9월9일에 한다. 장승·집대제는 3년마다 가을 성황제 때에 지낸다. 외옹치항은 매우 아름다운 절경으로 속초팔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내물치리(內勿淄里): 쌍천을 사이에 두고 양양군 강현면에도 물치리가 있다. 『여지도서』, 조선후기『읍지』등에는 淄자가 緇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행정상 속초시 물치는 勿緇里, 양양군물치는 勿緇津里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속초시 물치를 內勿淄里, 양양군 물치를 沕淄里('勿'字가 바뀜)로 바뀌어져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마을 이름은 대해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물이 검으니 이를 향찰식 표기로 검을 치(緇)를 써서 지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암 송시열이 유배 가는 중에 이 마을에서 하룻밤 잠잘 적에 홍수를 만나 '물에 잠긴 마을'이란 뜻으로 지어주었다는 설이고, 또 하나는 물재(勿齋) 유희일의 아호를 따서 지었

다는 설이 있다.

물재 俞晦一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의 사후 사당에 봉사하였고, 그후 사당이 퇴락하자 그곳에 1748년 유허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예조판서 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洪鳳祚가 썼다. 1960년대 새마을 사업 시 유허비는 일출봉횟집 뒤 철길 옆으로 옮겨졌다. 설악산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마을은 1979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고지대로 주민 전체가 이주했으며, 100여 세대에 전씨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집성촌이다. 마을의 성황제는 음력 3월3일과 10월 초하룻날에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고, 몇 해 걸러 한 번씩 풍어제를 지낸다.

내물치에 위치한 설악해맞이 조각공원은 속초팔경의 하나로 1999년 국제관광EXPO 행사를 위해 20952㎡(약 6300여 평)으로 확대하여 조성하였다.

속초시 대포동 노인정. 2002. 5. 14

이동백: 남·86

이동백: 남·86, 대포동 2통 3반 / 과거에는 노래를 잘하여 '노래 잘하는 이동백'으로 소문이 났지만 최근엔 나이가 들어 노래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간신히 소리해주셨다. 슬하에 1남 2 녀를 두었고, 현재 막내딸이 근처에 살고 있다. 5년 전까지는 조그만 배도 하나 있었으나 지금은 나이가 많아 뱃일을 하지 않는다.

## ◇ 사랑가

이동백: 사령사령 잠든사령이 내사령아

사령이 불같고보면 타는가슴만 오죽타라 가슴만 탈뿐아니라 온몸전신이 다타는구나

## ◇ 아리랑

이동백: 정선읍내의 물레방이는 물을안고 빙글빙글 잘도돌아 가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어데가고선 날아고 돌줄몰르나

속초시 대포동 이규옥 씨 댁. 2002. 7. 8

이응숙: 여·71. 장세월: 여·79. 이규옥: 여·77

대포동 노인정을 또 찾아갔으나 채록에 실패했다. 몇 번이나 찾아가 허탕을 치자 그곳에 계시 던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70대 할머니들이 모이는 집을 가르 쳐주셨다. 이규옥 할머니 집을 찾아갔더니 70대 할머니 몇 분이 모여 놀고 계시다가 선뜻 응해 주셨다.

**이응숙**: 여·71, 속초시 대포동 3통 1반 / 속초 위 대진이 고향이다. 18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이규옥과는 동서지간이다.

장세월: 여·79, 속초시 대포동 / 대진에서 북쪽으로 20리쯤 들어가면 재진이란 곳이 있다. 그곳에서 살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을 나와 여기에 정착했고, 이름도 갈았다. 농사를 지었고 길쌈은 안 해봤다.

이규옥: 여·77, 속초시 대포동 / 양양 명지리(어성전 밑)에서 태어나 대포로 16살에 시집왔다. 남편은 농사일도 하고 뱃일도 하다가 20여 년 전 사망했고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이응숙과 동서간으로 이규옥이 큰댁이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나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이 집에 평상시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놀고 있다.

## ◇ 이거리저거리

이응숙: 이거리 저거리 갓고리

심지 망근 도망근 짝 바리 호양강 도루메 장치 장두깨

모개 밭에 작서리

동 지 섣 달

대서리

## ◇ 이똥 저똥

장세월: 이똥 저똥 행길똥

문둥이아들 곱새 똥

## ◇ 창부타령

장세월: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슬어마라

언제다시 오실적에 오신다하고 기별하나

니가 가면은 언제오나

이월세월 다넘어가고 언제한번 또오시나

얼씨구절씨구 기화자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 화투풀이

이규옥: 일월송학 속속한마음 이월매지에 매자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사월흑싸리 흩어졌네오월난초 나는나비가유월목단에 앉았구나칠월홍돼지는 혼자앉아팔월공산에 저달밝어시월단풍에 오신단님이섣달눈비도 안오시나얼씨구좋네 기화자좋네아니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 노랫가락

이규옥: 송죽같이 굳던절개 매맞는다구선 허락하나

몸은빌어(비록) 기생일망정 절기(절개)나 좋아서 잊을소냐 얼씨구나좋네 기화자좋네 아니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 세상달강

장세월: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서울로 가다가 밤하톨 주어서

고무락에 치트리더니

머리깍은 새앙쥐가 다파먹고 껍데기만 남았네 니하고 나하고는 껍데기 차지다.

## ◇ 화투풀이

장세월: 일월송학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앉었구나

상월사꾸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졌네 오월난초에 나는나비가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는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밝어좋아 구월이라 굳은절개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네 동짓달에 오신단님이 섣달이다가도 오지를않네 일촌간장에 맺은사랑이 도시간으로 이뤄졌네 얼씨구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 춘향이(신내리는소리)

이응숙: 성춘향이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 ◇ 치야칭칭나네 30

이규옥: 치야 칭칭나네

지내갱변에 돌도많네 지야 칭칭나네 놀아놀아 젊어서놀아 지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지야 칭칭나네

36) 이 소리는 관광을 가 놀 때면 언제나 마지막에 하는 노래고, 또 산에 가 돌아가신 분을 묻을 때, 묘 달구 질 할 때도 쓰는 노래라고 설명을 해주셨다. 후렴은 주위 할머니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었다.

인제가면은 언제오나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북망산천이 멀다해도 치야 칭칭나네 대문밖에 저승이네 치야 칭칭나네 언제오나 언제오나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먹고나놀자 쓰고나놀자 치야 칭칭나네 언제나 오나 언제오나 치야 칭칭나네 엄마엄마 울엄마야 치야 칭칭나네 인제가면은 언제올라나 치야 칭칭나네 실겅밑에 삶은팥이 싹이나면 올라던가 치야 칭칭나네 꽤꽤닭이 홰를치면은 올라던가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나는간다.

#### ◇ 어랑타령

이규옥: 어랑타령 본조종은 함경도 신고산인데

고무공장 큰아기 벤또밥만 싸노라

어이야 어야 어이야 어야 더야 얼싸 언마 둥가 디여라 내사령아

통치마 꼬리다 소주병을 달고요 오동나무 수풀로 임만찾아 가잖다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가는님 허리를 한아름담뿍 안고요 내잘못 했으니 십분의용서만 해주소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 ◇ 권주가

이규옥: 술은야 술술이 어루화 잘넘어가는데

찬물에 냉수는 중치만컹컹 미누나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내사령 뚝떼서 어떤경칠놈(년의 뜻) 주고요 사람만 보면은 생째장만 내누나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늘어라 놀어라 절기가(젊으나)젊어서 놀아라 나이많고 병들면 어루화 못노니로다 어야어야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좋다)

## ◇ 둥글레당실

이규옥: 둥글레당실 둥글레당실 너도당실

연자버리고 닭도밝소 냇가머리로 갈거나

둥글레당실 둥글레당실 너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소 냇가머리로 갈거나

## ◇ 권주가

장세월: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얼씨구절씨구 기화자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 노랫가락

장세월: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간밤에 꿈이좋더니 정든님께서 편지가 왔네

편지는 왔다만은 우리님은 못오시나 봉자야 먹을갈어라 님에게다 답장을하자 한자쓰니 눈물이돋아 두자쓰니 한심이로다 한심은짚어 동남풍되고 눈물은흘러서 한강수라 일전간장에 맺은사령이 요시깐(식간?)으로 이뤄졌네 얼씨구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 뱃노래

이규옥: 뱃놀이를 갈라면 어두로 갈라나

강릉야 경포대로 뱃노래 가잖다

어허야더허야 어야나더야 어기여차 뱃놀이나 갑시다

술은 술술히 잘넘어 가는데 찬물에 냉수는 중치만 미누라

어이야더이야 어야나더야 어기여차 뱃놀이만 가잖다.

## ◇ 각설이타령

이규옥: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뜨왔네

얼씨구씨구 잘한다 품바나품바 잘한다

일자나 한장 들고서…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김병국 씨 댁, 2002. 7. 10

김병국 : 남 · 68

동네 분들이 김병국 씨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몇 번이나 허탕을 쳤다. 이날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갔더니 마침 저녁을 드시고 쉬고 계셨다. 피곤할 텐 데도 1시간 가량이나 채록에 응해주셨다.

김병국: 남·68세,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 4대째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다. 젊어서 뱃일도 했고,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 95세 되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이분은 소리를 강릉이나 양양하고 다르게 상당히 부드럽게 부른다.

## ◇ 모심는소리

김병국: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나주게

넘어가네 넘어가네 넘어를가네 바다같은 논배미가 넘어를가네

## ◇ 산대소리

김병국: 에라소 가래라소(하게 되면은 매기는 사람이 있다가, 산대로 푸잖아요)

이산대는 서낭님이 봐주는 산대다

에라소 가래라소

## ◇ 놀배기소리

김병국: 으샤으샤

김병국: 가래라소는 여러 사람이 부르고 매기는 사람은 하나가 부르고 했죠. 도루묵 같은

거 많이 났어요. 그때는 (도루묵은) 고기가 아니어요.

조사자: 가래라소는 무슨 뜻인가요?

김병국: 산대에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신호인데 퍼 가지고 배에다가 많이 싣잖아요. 내막

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고기가 많이 나면은 가래라소라고 하지요.

#### ◇ 든대질소리

김병국: 자-아리아

되야 되야 자-자

조사자: 든대질이라고 있지요?

김병국: 배를 내쿨(내릴) 적에는 '자는 아리아'라고 매기면 밑에가 힘을 더 쓰라는 얘기고, 배라고 하는 것이 목선이니까 뒤가 덜렁 들리고 앞이 덜렁 안 들리면 안 나가잖습니까? 그때는 '뒤야 뒤야'하면 '자는 자'하고 구령을 맞추면 '뒤야는'하면 뒤에서 힘을 더 써야 발란스가 맞잖아요.

조사자: 배성주 모시죠?

김병국: 배에다가 성주를 매게 되면 특별한 것은 없고 제사처럼 다 채려 갖고 가서 그전에 서당당에 한번 갖다오고(제를 올리고) 배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부락 사람들이 술, 음식 나누고, 깃발(만선기) 많이 달잖습니까? 시운선 한다고 해서 (배에서) 꽹과리, 징 두들기며 놀았어요.

조사자 : 풍어굿도 하는 거죠?

김병국: 그때는 이 지방에서 다 그래 했어요.

## ◇ 뱃소리

김병국: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여기여차 뱃놀이 가잖다

조사자: 그때 뱃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병국: 그때 뱃노래는 '어기여차 뱃놀이 가잖다'지금 보면, 뱃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에 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여기여차 뱃놀이 가잖다.' 그러면 매기는 사람이 그때 따라 지어서 하지요.

조사자 : 장승이 있지요?

김병국: 저게(저기에) 장승 두 개가 있는데, 나무는 흔히 부락에서 몇 십 년 묵은 나무를 베어서 만들잖습니까? 흔히 구월구일 전에 날을 받아서 세우고 구월구일 제(祭)지내고, 봄에 간단하게(3월3일날) 제를 지내고, 옛날에 3월달도 날을 받아서 했는데, 그 전에 하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3월 삼짇날이 날이 좋으니 그날하자고 해서 그날로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월구일 날 지낼 때는 두사족(頭四足), 옛날엔 소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두사족인데 소 한 마리 꼴이 되잖아요.

조사자 : 소를 말이라고 하죠.

김병국 : 네. 그렇습니다.

조사자: 장승제, 풍어제, 서낭제 다른 겁니까?

김병국: 첫 번에 장승 할 때는 우리가 베었다가 술이나 부어 지내고, 삼 년마다 굿을 하쟎습니까? 서낭에서 굿을 해 가지고 장승을 서낭에다 모셔 가지고 서낭님하고 합신해서 굿을 시작합니다. 굿의 끝머리는 바다에 나가서 용왕굿을 하지요.

조사자 : 용왕굿은 어떻게 하나요?

김병국 : 용왕굿은 무당들이 하는 거니까. 거리 귀신들 밥을 다 먹인다고 해서 바가지에다

다 해 넣어서….

조사자 : 뭐라고 축원하나요?

김병국 : 장승을 모셔놓고 절을 한 다음에. "천하장군님 지하장군님 이 거리를 다니는 동네

부락주민들 어른 아이고 학생들이고 사고 없이 잘 좀 거들어서 편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조사자: 무당은 누구입니까?

김병국 : 동네 무당이 있어요. 그분한테 날짜를 잡아서 무당들은 모아 옵니다.

## ◇ 소모는소리

김병국: 이라

가자가자 가자 일어서

김병국: '이랴'하고 나서 청승스럽게 '가자가자 가자 일어서'하면서 소를 때리면서 청

승스럽게 꾸미는 거지 일정하게 다른 것이 없어요.

## ◇ 그물댕기는소리

김병국: 자 올라온다

자 봐라 푸름하다

자 자리자리

자 잘 물었다

자 봐라 푸름하다 (푸름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지)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뒤에 빨리 와 뺏게 (한사람은 고기를 벗기잖아요)

자 뒤 받아라 받아라

자 댕계

자 푸름하다

자 뒤에 받어

빨리 빨리 받어

김병국: 명태바리 나가게 되면, 낚시를 댕기게 되면, 그때는 손으로 댕겼잖아요. 댕기게 되면 달래요. 밑에 환하게 따르죠. '푸름하게 논다.' 하면서 선원들 사기를 도와 줘요. 같이 옆에서 잡아도 옆의 배는 (고기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봐라 야 푸름하다.' 하면서 옆에 배 사기를 죽이느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야 자리자리 물었다. 야 푸름하다'고 소리친다. 명태바리는 선장이 있고 기관장, 낚수사공이라고 있다. 낚수사공은 낚수(낚시)를 놔요. 놓게 되면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낙수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먹죠.

조사자 : 집반이란 뭐죠?

김병국: 100만원이라면 열씩이면, 선장은 15만원, 낚수사공은 13만원, 선원들은 일할 먹고, 낚수를 놓는 것도 낚수사공 손에 달렸어요. 낚수를 많이(깊이) 놓거나 얕게 놓거나 낚수사공 손에 달렸어요.

조사자 : 밥짓는 사람은 뭐라 하나요?

김병국 : 화쟁이라고 하죠. 명태바리는 밥을 싸들고 가기 때문에 따로 화쟁이가 없어요. 큰

배는 있어요.

조사자: 화쟁이는 몇 명 두나요?

김병국: 1명 두죠.

#### ◇ 한단소리(벼베는소리)

김병국: 얼른얼른 하더니

나도 한 단

나간다. (하면 저기서)

그 소리가 떨어지기 전에 나도 한 단 나가다

김병국 : 베(벼)를 빌 때 이짝에서 한단 베어 가지고 던지면 저짝에서 또 베어 던지죠.

조사자: 그걸 어려서 보신 거죠?

김병국 : 어려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낫으로 벨 때 직접 했어요.

조사자: 도리깨질소리는 있나요?

김병국 : 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없어요. 조사자 : 풀각시 갖고 노시는 것 아나요? 김병국: 나무에다 풀 매 가지고 머리 땋아 가지고, 예전에 처녀들이 하더라구요. '각시방에 불켜라'하는 소리 들었어요.

## ◇ 새야새야.

김병국: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청포장사가 울고간다

## ◇ 고기세는소리

김병국: 하나요 둘이요 세이요

넷이라 다섯이라 여섯이 일곱이라

여덟에 아홉열

열하나 열둘 열서이라

열너희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스물

#### ◇ 꿩서방

김병국: 꿔궝꿔궝 꿩서방 자네집이 어딨나

이산저산 넘어가 덤불밑에 집이있다

## ◇ 이똥저똥(방귀뀌는아이놀리는소리)

김병국 : 이똥 저똥 앵기 똥 집의 할미 곱새 똥

-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방귀를 뀌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목하다가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이 방귀를 꾸었다며 놀리곤 했다. 웃자고 하는 소리다.

## ◇ 앞니빠진수망다리(이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병국: 앞니빠진 수망다리 뒷골로 가다가

호박줄에 걸려서 아이구메야 엎어져라.

조사자 : 수망다리란 무슨 뜻인가요?

김병국: 이빨 사이가 빠졌잖아요. 그것을 수망다리라 하죠.

#### ◇ 세상달강(아이재우는소리)

김병국: 세상세상

할멈이 (아이를 두드리면서) 서울로 가다가

껍데기는 니가 먹고 알맹이는 우리 손지 먹었다

자장자장

#### ◇ 저건너 김서방 나무하러가세

김병국: 영감 배불러 나무 하러 가세

배 아퍼 못가

뭔색 장색

뭐배 자래배 뭔자래 애미자래 뭔애미 서울애미 뭔서울 탈서울 뭐탈 에지탈 뭔에지 귀리에지 뭔코리 생콜 뭔생 하늘색 뭔청 대청 뭔하늘 청하늘 뭐대 왕대 뭔왕 임금왕 뭔임금 나라임금 뭔나라 대나라 뭔대 쌀대 뭔쌀 보리쌀 뭔보리 가을보리 뭔갈 떡갈 뭐떡 개떡 뭔개 사냥개

뭔장 장꿩

#### 뭔장 강릉읍내장

## ◇ 가갸거겨하니

김병국: 가갸 가다가 거겨 거기서

고교 고기잡아 구규 국끓여서 나냐 나도먹고 너녀 너도먹고 다댜 다먹었다 더뎌 더먹을래

# 3) 속초시 도문동(道門洞)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가 있었고 도문면의 중심지였다. 그러다가 1914년 3월 1일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 쳐져서 오늘날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道川面)이 되었고, 이때 행정상 중도문리(中道門里)가 신설되면서 행정의 중심이 대포항으로 옮겨갔었다.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66년 동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 도문동이 되었다.

1926년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인구는 1119호 6219명으로 남자 3240명, 여자2979명이었다. 당시 991호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어업도 217호나 되었고. 소도 776마리나 사육되었다. 창동산업계(契)가 있었는데, 1927년에는 대포에 금융조합과 어업조합이 생겨날 정도로 금융이일찍 발달하였다.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다. 신라 때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法校)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 하여 道門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道門으로 변했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고 하여 도문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중도문리 출신 이석범은 쌍천학교를 세웠고 1919년 3.1운동 시 도천면에서 4월 5일과 6일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상도문1리에 있는 鶴舞亭(일명 육모정)은 속초팔경의 하나로 쌍천 시냇가 송림 속에 위치해 있다. 매곡처사 오윤환이 1933년 건립했는데 정자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고 부른다. 남쪽에 鶴舞亭, 북쪽에 永慕齋, 북동쪽에 仁智堂 남서쪽에 敬義齋이란 편액이 걸려 있고, 정자 안쪽으로 한시를 적은 현판이 13개나 걸려있고, 천장 중앙에 龍자가 적혀있으며, 6면 모두 분합문을 단 흔적이 남아있다. 중도문리 쌍천 냇가에는 벼락바위가 있다. 벼락을 맞아 갈라진 것처럼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벼락바위라 불린다. 도문동은 옛날 가옥들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 도문1리 김종우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하도문리 김 근수 가옥은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속초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동명동에 세워진 충혼탑이 1987년 도문동 신문덕으로 이전해왔다.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댁. 2002. 4. 27

김정수 : 여 · 75, 최춘옥 : 여 · 80 박순자 : 여 · 77, 정영춘 : 여 · 75

김정수 할머니 댁을 찾아갔더니 동네 할머니 분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계셨다. 소리는 못하신 다고 손사래를 치시다가 김정수 할머니가 몇 곡 응해주시자 다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 하셨고, 소리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다. 오후 5시가 지나자 저마다 집에 가야 한다면서 일어나시어 더 이상 녹음을 할 수 없었다.

김정수: 여·75, 도문동 5통 3반 / 인제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때 속초시 도문동에 큰댁이 있어서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가 그해 24살 때 도문동으로 시집을 와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시조부가 매곡처사 오윤환으로 속초의 팔경 중의 하나인 학무정을 세운 분으로 유명하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오윤환의 2대조되시는 분이 사 갖고 와 정착한 집이라 한다. 처마 끝에는 매곡고장(梅谷古庄)이란 현판이 아직도 달려 있는 고택이었다.

최춘옥: 여·80, 도문동 5통 1반 / 도문동 토박이로 매곡처사 오윤환의 외손녀이다. 19세에 시집을 가 2남 4녀를 두었는데 현재 동갑인 남편과 같이 예전 친정부모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박순자 : 여·77, 도문동 5통3반 / 도문동 토박이로 시집도 이곳이다. 살면서 잠시 속초 시내에 나가 살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정영춘 : 여·75. 도문동 5통 3반 / 속초시 척산리가 고향이다. 이곳에 시집을 와 여태까지 살고 있다.

## ◇ 재짱개짱

김정수: 재짱 개짱

소수레 넉장 콩죽 팥죽 얻어 먹었니 못얻어 먹었니 사 마

조사자: 이 소리는 뭐 하며 부르는 소리인가요?

김정수 :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놀 때 같이 마주 앉아서 다리를 서로 집어넣고 하나씩

다리를 치면서 소리를 해요. 당첨이 되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양반, 나중에 나오면 상놈 그러면서 놀았지 뭐.

조사자: 무슨 뜻이 있나요?

김정수: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한쪽 다리 하나씩 치면서 했다.

## ◇ 둥게소리

김정수: 둥 둥둥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등등 등등등

우리집에 화목동이야 건너집에 무신동이야

둥둥 둥기야

## ◇ 성님오네

성님오네 성님오네 사촌형님 오네 형님마중 누가가나 형님동상 내가가지 형님 모셔놓고 형님반찬 무엇을할까

## Ⅱ. 속초민요의 실제

앵두같은 팥을삶고외씨같은 전니밥에앞집에가 목기닷축뒷집에가 사기닷축닷죽닷죽 열닷죽이면형님반찬 될까

조사자: 닷죽은 무슨 뜻인가요?

김정수 : 닷죽은 50개다. 한 죽은 10개다. 사기 닷 죽은 사기그릇이 닷 죽이고. 목기 닷 죽

은 목기가 닷 죽이란 뜻이지.

## ◇ 아리랑

김정수: 정선읍내 물레방아 궁글대는 해풍산이 삼십육경 서른여섯바쿠

물살안고 빙글뱅글 잘돌아가는데

시누작네 맞자부야 날안고 왜 못돌아가느냐

조사자: 이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김정수: 이 노래는 친정할머니가 불렀던 노래지.

조사자 : 궁글대는 뭐지요?

김정수: 물레방아 돌아가는 살을 궁글대라고 해요.

## ◇ 자장가

최춘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자장

너무 우리아기 잘도잔다

(잠시 쉬었다가) 멍멍개야 짖지마라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댁, 2002. 5. 18

박계랑: 여 · 80

속초시 도문동 슈퍼마켓에서 옛날소리 잘하시는 분을 물으니 이분을 소개해주셨다. 찾아갔더니 할머니 여러 분들이 모여 담소를 즐기고 계시다가 선뜻 소리를 응해주셨다.

박계랑: 여·80, 도문동 / 속초시 도문동 토박이다. 생전에 친정 부모가 2녀를 두었는데, 본인이 둘째였다. 친정부모가 아들이 없고 마침 남편도 막내여서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친정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슬하에 아들(61세) 하나를 보았고, 며느리가 손자도 없이 먼저 유명을 달리 하는 관계로 지금은 아들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다. 예전에는 한 번만 보고 들으면 그대로 따라 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였고, 장구도 잘 쳤는데 며느리가 죽은 이후 기억력이 옛날만 못하다고 슬퍼하셨다.

## ◇ 한오백년

박계랑: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압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아무려면 그렇고 그렇구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뇨

한많은 이세상에 야속한님아 정을두고 몸만가니 눈물이나네 아무려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하으백년 사자는데 웨성화뉴

## ◇ 에라만소

박계랑: 서울접자 광주땅에

서울접자 광주땅에 밀대같은 내오래비

어수해(어사화)를 숙여쓰고

세멘춤(세면장고춤)도 잘도춘다. 우리나 부모님 살았더라면 저런귀경(구경) 하시련만은 우리남매 살았다가 귀한귀경(구경) 보는구나 에라만소

삼천장 베레또래(벼릇돌에) 일천장 먹을갈어 부모님의화상 그레(그려)놓고 보자하니 눈물지어 못보겠네 아강아강(아가아가) 그말마라 찬냉수에 목이 맨다. 에라만소 대신이야

서울이라 치켜달려 서울이라 치켜달려 나무집이 어디없소 괴비고사리 집을짓고 난초잎을 대문달고 양지짝에 금자리깔고 저문앞에 국화꽃을 한짐 뜸뿍쥐고 아장아장 들러나오는 아가씨 저거동보소 은을주면 내가살까 금을주면 내가살까 금도싫고 은도싫고 백년채분 나를주게

박계랑: 옛날 오빠가 과거해 가지고 내려왔대.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쓴다고 하잖아. 과거해 가지고 내려올 때 쓰는 거라구만. 이게 다 옛날 뜻이 깊은 소리지요. 에라만소하면 모두다 좋아하였어.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쓰고 나를 데리고 세면장구 들여매고 여러 나졸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나. 뜻이 깊은 노래다.

조사자 : 이 소리는 언제 부르셨나요?

박계랑 : 처녀 적에 가만히 듣고 배웠다.

조사자 : 언제 시집을 가셨나요? 박계랑 :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조사자 : 시집가기 전에도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박계랑 : 그럼요. 그때 에라만소 소리를 하면 밤이 새도록 합니다.

조사자: 그때 하던 다른 소리를 좀 해 주세요.

박계랑: 이것도 에라만소야. 에라만소는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돼.

#### ◇ 강물은 돌고돌아

박계랑: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어 하라 어디로가나 요요 사또 능라도 버들속에 봄비가 온다.

#### ◇ 나물캐는 노래

박계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 주게

억수장마 할라른가 저산밑이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넘어간다

박계랑: 옛날 처녀 적에 저 산(주봉산)에 나물 캐러 갈 때는 늘어진 것을 하여야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 아니 들어.

#### ◇ 하오백년

박계랑: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젊어만 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젊어질 못하고

노류야 대빠리야 왜 달개드냐(달려드냐)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뇨

박계랑 :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하다가 슬픈 사람은 눈물이 나서 울며 올라

가고 좋은 사람은 소리하고 그렇지 뭐. 짧은 소리는 숨이 차서 급해서 못해.

조사자: 밭 맬 때는 어 떤 소리를 하시나요?

박계랑 : 모 심굴(심을) 때는 여러 사람이 소리하라고 하니깐 하지만 밭 맬 때는 혼자 하는

데 소리 언제 하겠어요?

## ◇ 권주가

박계랑: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하잔만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년만년을 사신다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세만세를 사실터이니

술이 아니라 먹고노자는 백화주요

이리놓아라 저리놓아라 열이고죽어도 나는못놓겠네

## ◇ 꿩서방

박계랑: 꿔꿩꿔꿩 꿩서방 자네네 집에 어딨나(어디있나)

이산저산 넘어가서 덤불밑이 내집이지

# ◇ 돈타령

박계랑: 에라만소

돈나온다 돈나온다

잘난사람은 못난돈 못난사람은 잘난돈

만국통화가 오십전 십전이전 고리동전이 다있어도 각중에 무일푼하니 장부한심이 무한심하구나

1801 722011 872801

에라만소

박계랑: 이게 어릴 적에 오빠들이 하더라구. 왜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이라고 하나, 돈을 흔하게 쓰다가 돈을 다 써 없어지니 장부한심이 무한심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놀지. 이게 술집에서 기상(기생)들 놀리는 노래래.

## ◇ 뚜두기소리

박계랑: 앞산에 뚜두기는 뚜둑뚜둑

뒤산의 빼꾸기는 빼빼국 운다

고래명당 열어서서 잠을자니 그방치사(치장) 어떻더냐

앞문에단 용그리고 뒷문에단 황그렸소

그집옆에 무엇을 심었더냐

줄국화를 심었더라

그줄국화속에 무엇이 있더냐

팔십먹은 누인이 갈강낫을 빡빡갈어

지게둥테기 달아지고

앞동산에 높은데 우물구물 기올라가서

낙락장송 늘어진가지

툭툭찍어 한짐듬뿍 짊어놓고

젊어 소시절에 아들딸 못난것이 한이로구나

에라만소

박계랑: 그게 얼마나 슬퍼서 아들 딸 못난 것이 한이 되겠소?

조사자: 뚜두기는 뭔가요?

박계랑: 뚜두기는 시방 비둘기를 가지고 뚜두기라 해요.

조사자 : 줄국화가 뭐지요?

박계랑 : 화초가 줄국화이던데. 백일홍 같은 것이 줄국화 아닌가. 나는 이 노래를 해도 사

실 잘몰라

조사자: 갈강낫은요?

박계랑: 꼴 비는 낫을 갈강낫이라고 해. 앞산이든 뒷산이든 뚜둑이든 뻐국이든 맘 대로 해

도 돼. 앞문에는 청룡이고 뒷문에는 황룡을 그렸다네.

조사자: 나무. 검불 하러 갈 때 무슨 소리하나요?

박계랑: 별 소리 없어. 그저 늘어진 소리를 해.

#### ◇ 검불하는소리

박계랑: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주게

## ◇ 둥게소리

박계랑: 둥둥둥둥 둥둥둥 내손주야

은을주면 너를살까 금을주면 너를살까

둥둥둥둥 집안안의 화목동이야

등게등등 등등등기야 부모님앞의 효자동이야 등등등등 등기등등

나라님 앞의 충신둥이야

등등등등 등등등기 너는 무신의 권하으로

할머이 할아버이 손끝에 놀고 …

박계랑: 예전에 젖 먹여놓으면 할머니들이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하더라. 우리야 일 하러나갔지뭐. 문서가 많더라구 그런데 우습게 들어서 … 다 몰라.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댁, 2002. 5. 26

박계랑: 여 · 80. 김정수: 여 · 75. 김종필: 남 · 60

박계랑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아갔더니 일요일이어서 아들과 함께 있었다. 기억력이 너무 좋아 저번에 왔던 사람임을 알아보고 또 그때 했던 말들도 기억하셨다. 그 동안 담바구타령을 제대로 기억해 내었다고 하시면서 즐거이 채록에 응해주었다. 채록하는 동안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반 복하면서도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으셨다. 한참 하시다가 김정수 할머니가 유식한 소리를 잘 한다며 김정수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해 불러주셨다.

김종필: 남·60, 박계랑 할머니의 아들.

## ◇ 담바구 타령

박계랑: 구야구야 담바구야 너메국이 어떻길래

우리의국도 좋거니와 대한의민국으로 유람을제

돈도없구 운도없어담바구씨를 갖고왔지저기 저기 저산밑에담바구씨를 뿌렸더니밤이면은 찬이슬맞고낮이면은 태양을받어

곱게곱게 길러서

천하비수 드는칼로 와싹와싹비어서

영감의쌈지도 한쌈지 할멈의쌈지도 한쌈지 아들의쌈지도 한쌈지 며늘의쌈지도 한쌈지 손자의쌈지도 한쌈지 나의쌈지도 한쌈지 청룡황룡 대통수에 이글에이글에 부쳐놓고 담배한모금을 피우네 목구멍에서 골안개피네

또한대를 피우니 손톱과발톱이 육갑지랄을 하는구나

또한대를 피우니 세상만사가 태평일세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거던 사우(사위)삼지요

딸이있긴 있으나 나이가 적어서 못주겠소 아이구 할머니 그말씀마소 참새가 적어도 알만낳고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가요 고추가 적어도 맵기만하고

할머니 평생에 외손지 보리로다

조사자: '이글에 이글에 붙여놓고' 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랑: 이글이글 탄다는 말이지요.

# ◇ 추워추워춘달래

박계랑: 추워추워 춘달래 더워더워 던달래

## ◇ 달아달아

박계랑: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달속에 계수나무 옥도꾸로 찍어내어 금도꾸(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짓고 양친부모님 모셔놓고 천세만세 살어보자

## ◇ 내손이약손

박계랑: 내손이 약손이다.

원배야 자라배야 무슨자래 …

조사자: 비올때 뭐라고 하나요?

박계랑: 갈강비는 가라고 오는 비고 보슬보슬하는 거는 오라는 비라던가.

## ◇ 어랑타령

박계랑: 노르래 놀아러 젊어만 놀어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요 데헤요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짖고 우리님의 병세는 아구야짚어 가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 하늘에 아구야 잰별도 많고 요내나 가삼(가슴)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상(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에헤야 데헤야 데헤야 에헤요둥둥 몽땅내사령아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님도 모른다 어랑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어지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는구나 어라어랑 어허야 어허야 두둥둥 대한에독립이 왔구나

스스레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 좋아 꽃같은 날버리고 아구야 돈벌러 갔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항(은행)소복판에 묻고요 님그리워 죽은건 신작로복판에 묻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좋소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 보았너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좋소 요것도 사령이라

치매폭에 쌓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쌓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어랑어랑 어헤야 에헤야 두둥둥 대한의독립이 왔구나

천길에 만길에 뚝떨어져서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어라어랑 어허야 에헤야좋소 몽땅내사령아

늘민령 서둘기가 에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궈주겠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요것도 사령이라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조사자 : 늘민령이 뭔가요?

김종필(박계랑의 아들): 저항령을 같고 그래요

박계랑 : 돌만 있는데 올라갈 때에 불러요. 그 다음에는 안 그랬다우. 돌이 한번 내려굴면

삼 년을 내려군다고 하대요.

## ♦ 회심곡

박계랑: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며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아을손가 이삼십일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갚아 어이없고 애닯구나 무정세월 여류하여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닯고도 설운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홍안백발 늘어가면 인간의 이해공도를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 못하리다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예탁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니 약효험이 있을쏜가 판수불러 경읽는들 경덕을 입을손가 무녀불러 굿을하들 굿덕인들 있을손가 재미쌀을 쓸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촛대한쌍 벌여놓고 향로향합 불갖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아을소냐 감흥이나 할까보냐 (감동을 도무지 아니하는가보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열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시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의 부리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 철봉들고 でかをの 
 お 
 お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さ 
 で 
 さ 
 さ 
 で 
 さ 
 で 
 さ 
 で 
 さ 
 で 
 さ 
 で 
 さ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활등같이 굽은질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문을 박차면서 뇌성같이 소래하며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삐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목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잣돈이나 갖고가게 만단계뉴에 애결한들 어느사자 들을소냐 애고답답 설운지고 이를어이 하잖말인가

#### ◇ 다복녀

박계랑: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부뚜막에 삶은팥이 싹나거든 오마더라.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아강아강 다북녀야 실겅밑에 삼년묵은 말뻐따구 살붙거든 느엄마가 오마더라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느어머니 병풍뒤에 그린닭이 홰치거든 오마더라 다북다북 다북녀야 울고가지 말고 집으로나 돌아오마 저기저기 서산너머 죽은 고목나무

#### 잎이부야 꽃피거든 느어머니 오마더라

박계랑: 이기 이렇게 질면서도 슬프더라구.

조사자: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박계랑: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배웠어. 장고도 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는 그냥 배웠어. 갈강낫 갈았더라는 것도 어렸을 때 배운 거고, 삼천장 베레 똘(벼룻돌)도 그때 배웠어.

조사자 : 어릴 적에 이 마을이 몇 호였지요?

박계랑: 100호 되었나.

조사자: 매곡선생 아시나요?

박계랑: 어릴 적에 여자소학이라고 그러대. 그 집의 손주딸이 둘이거든. 나하고 친구야. 나보다 한 살씩 더 먹었어. 여자들 시집가서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구. 친구에게 부탁해 그 책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책을 베끼었지.

조사자: 매곡선생이 어떤 분이셨나요?

박계랑: 육모정 그 터는 복판에 비 하나 세웠잖아요. … 준택이 할아버지가 아이들 가르치고 일년에 쌀 닷말이던가, 하늘천 따지 가르치고, 하두 더우니까 나가 가르치려고 육모정을 그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 ◇ 지정다지기

박계랑: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이 나면 열녀가 난다

조사자: 메나리를 여기서 하지요?

박계랑: 남자들이 하지요. 음보를 신기하게 넘기더라구.

조사자 : 들어보았어요?

박계랑: 들어봐도 점심 해이고 가서 잠깐 점심 잡수면 들어가다보면 하구. 그저 우습게 여겼지 뭐. 남형이 양반 여기 있는데, 그 양반이 잘하는데.

조사자 : 소를 모시는 신이 있나요?

박계랑: 군웅대감이라는 거는 옛날에 마구 있을 때에 귀신 머리다가 달아매던데. 조(종이) 한 장 달아매더라. 여느 땐 안 그러다가 설에 차사 지낸 후 술 한 잔 붜넣고 고기

한 접시 대더라구. 시방 세월엔 안 해.

조사자 : 영등에 무 찌개 하나요?

박계랑: 영등 때 시방 하는 사람은 해요. 바람영등 내려올 때 별 게 아니더라구. 무 한 대가 리 뚝딱뚝딱 썰어, 왁찌기 넓적 넓적 썰어 명태 한 마리 넣고, 끓여 가지고 메 지어 가지고, 요만한 데다가 식구 숟가락 수대로 밥그릇에다가 꽂아서 왁찌기 명태 한 마리 넣고 끓인 거 하고 내놓고 "바람님 내려오셔서 우리 농사 잘되게 해주고 집안 식구 다 건강하게 해달라"하구. 내려오시던 날도 하고 또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하구 잘 올라가시라고 하데.

조사자: 15일날 가시나요? 20일날 가시나요?

박계랑 : 보름날 올라가시고 스무날은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베(수부)님이라고 그러데, 또

마저 해놓고 그래.

## ◇ 아라리(나물캐는소리)

박계랑: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 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산이나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나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 날만 넘게주게

산이나 고와서 뒤돌어보았나

임과실어(싶어) 혹시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박계랑 : 아리랑 중간에 노래를 하고 앞뒤로 아리랑을 붙이지. 그저 그래.

조사자: 밭 갈면서 괭이 하면서도 하나요?

박계랑 : 그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무슨 노래를 하나? 이 노래는 나물 캘 때 하는 노래지.

## ◇ 권주가

박계랑: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구비구비를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 ◇ 에라만소

박계랑: 화란춘성 만화방청요 때는좋구나 봄이로다 잎은야뜯어서 책은불고 꽃은꺾어서 머리에꽂고 동무따라 산에귀경을 가보느니 폭포수는야 좋거니와 산천야정기는 니뿐이냐 이리능아라 저리능아라 열리본 죽어도 못놓겠소

> 뒷노깡(두만강)은 안주로삼고 압록강은쇠주로 삼아 팔포대 기상(기생)은 전봇줄 늘이고 돈없는 건달이 세멘만 치는구나 어절씨구 저절씨구 기화자자 저절씨구 아니아니노지는 못하리다.

박계랑 : 오보현이네 하고, 시방은 죽었지만, 밤새도록 에라만소 시합을 했네. 밤이 후딱 세 었어.

#### ◇ 뻐꾸기흉내내는소리

박계랑: 떠국떠국

박계랑: 뻐구기는 왜서 뻐구기냐 하면 우리들은 뻐구기라고 하는데 떠국떠국 한데, 옛날에지 엄마가 일찍 죽고 새엄마를 얻었는데 떡국을 한 다라 쑤어 놨는데, 옛날엔 개를 들어매 놓고 키우지, 개가 떡국을 한 함지 다 먹었대. 얘 엄마는 몰랐지 뭐.

갸를 실컨(실컷) 두드려 주었지 뭐. 개가 죽었대. 여식안지(여식아이인지) 머슴안지(머슴 아이인지) 몰라도. 갸(걔)가 죽어서 뻐꾸기가 된다네. 개가 죽어서 저 산에 가서 '떡국 떡국'한 대.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서 '뻐국'한데(한다고) 그러대.

## ◇ 비둘기소리

박계랑: 뚜둑뚜둑

자식죽고 에체하고 \_\_\_\_\_\_ 헌투데기 몸에걸고

뚜둑뚜둑

자식죽고 에체하고 ...

## ◇ 천자풀이

김정수: 자시 생천하니 유유지천에 하날 천

축시에 생지하여 오향을 맡았으니 양생만물 따지

유현미목 흑정색 북방현무 검을현

궁상각치 좌우동서남북 중앙토색에 누루황 천지사방이 몇만리냐 하루광한루 집우

연대곡조 고내금 …

#### ♦ 앵기땡기 37

김정수: 재짱 개짱

쇠스레 넉장 콩죽 팥죽

얻어 먹었니 못얻어 먹었니

사 마 지 꽁

박계랑: 이원 지원 가매 꼬지 …

<sup>37)</sup> 당시 박계랑, 김정수 두 할머니가 서로 다리를 마주 뻗고 손으로 다리를 치면서 해주셨다. 김정수 할머니가 끝나자 박계랑 할머니가 이어서 해주셨다.

## ◇ 이빨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종필: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박계랑: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너이빨 지붕위에 던져야

헌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나게해다오

조사자: 수망대가리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랑 : 빠진 것 같고 허장이라구 그런 거이지.

조사자 : 삼베 짤 때 어떻게 하나요?

박계랑 : 잘했는데 잊어먹어 가지고 못 하겠더라구. 우리가 질쌈을 무섭게 했지만 뭐 노래

하며 짰너?

김정수: 그저 팔이 아프서 … 사치미는 형제고….

박계랑 : 황소같은 도투마리 말라간다고

#### ◇ 베틀가

박계랑: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난간네 베틀노세

박계랑 : 근디 순서가 어딘지 잊어먹었어. 낮에 짜는 것은 무신,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 것

은 월광단이요 삼형제요 다른 데 가면 잘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고 우

리는…

#### ◇ 세상달강

김정수: 시상달겅 시상달겅 질루질루 가다가

방한톨 얻어 고무다락에 치뜨렸더니 머리깍은 새앙주가 딜민날민 다까먹고

조사자: 아이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몰러. '내손이 약손이다. 배아프지 말아라' 그저 그랬지뭐

박계랑: '뭔자래 읍자래'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 ◇ 장타령

박계랑: 어얼씨구 품바야 얼씨구 품바야

질루질루 가다가밤을한개 얻은걸얻은밤을 뭐했나낚수나하나 휘었지휘은낚시 뭐했나고기한마리 낚았지

품바품바 품바야 얼씨구도 잘한다 너못하면 내할라 얼씨구 품바야

## ◇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박계랑: 알나라 깔나라

알나라 깔나라

김계랑 : 진짜 그러면 알을 낳는다네.

박계랑 : 소금쟁이를 잡아 손바닥에 대고 알나라깔나라 하면 손바닥에 노란 알을 진짜로

똑똑 떨구더라구.

#### ◇ 제비보고 하는 소리

김정수: 에히여

강남갔던 제에비는 이집저집 다버려놓고

박씨 하나를 물고 흥부나 집으로 감돌아든다

이리눙이라 저리눙이라 못놓겠네

농지를하여도 난못놀겠네

## ◇ 화투풀이

박계랑: 정월이라 소식이왔네 이월매자(매조) 매자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맘을사월흑싸리 흑싸리냐오월난초에 날아간나비유월목단에 앉았구나칠월홍돼지 홀로앉어팔월공산에 달이떴네구월국준 굳은마음시월단풍 다쳐졌네동짓달에 드는액은섣달시루에 다쳐졌다

조사자 : 영등 할머니가 언제 오지요?

김정수 : 초하룻날

조사자 :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박계랑 : 이월 초하룻날 오면 무 한 대가리 왁째기 뚝딱딱 썰어서 탕 모양 해서 명태 한

마리 넣고 밥 할 적에는 팥 넣고 찹쌀 좀 넣고 밥을 잘 해 가지고 큰 그릇에 퍼가지고 숟갈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개 꽂고 서이면 식구대로 꽂아서 대내에다 내다놓고, '이월 초하룻날 영등날이올시다. 그런데 그저 풍신님이라구 그러더라구. 빌 적에는…. 풍신님요 그저 오늘날 내려오셔 가지고 이 터전 이 명당에 그저식구 다 모두 고이 곱게 일년 열두 달 삼백예순 날 과년 열석 달 하루같이 곱도록 잘 가꿔 주시고 금년의 모든 액을 동서남북 사해팔방 댕기더래도 낙성(낙상)재도 없고 관잴 귀손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아주고 그저 금년 농사를 재도(지어도) 금절미 대재미 하나 먹지 않게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발원이올시다.'

이거 별거 다해. 그리고 올라갈 적에는 보름날 올라갈 적에는 또 그렇게 해놓고 빌어요. '풍신님 올라가시는 날, 이월 보름날 올라가시는 날, 희망을 다 착실하게 하시고 올라 가시더래도 그저 섣달 그믐날까지라도 이 터전 이 명당 잘되게 해달 라고 축원이고 잘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축원하지 뭐.

조사자: 스무날 되면 수부가 올라가나요?

박계랑 : 스무날은 그러게 해놓고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부님 다 잘 올라가세요' 그러

더라구. 어른들은 하더구만 우리들은 아니해.

조사자 : 한 지가 얼마나 되세요?

박계랑: 안 모신지 한 10여 년 되지 뭐. 그래도 문서는 환하지.

## ◇ 다듬이질흉내내는소리

박계랑: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 ◇ 삼잡는소리

박계랑: 해돛이 책면(체면)에 피삼열삼을 팔눈으로 무치게 해달라

조사자: 눈티 나잖아요? 그거 없애는 노래 있나요?

박계랑: 눈다래끼는 그건 노래가 어딨너. 그게 나면 안섶을 실로 동여매대. 그러면 사그러

지대.

조사자: 실로 매면 눈다래끼가 없어져요?

박계랑 : 응

조사자: 그림 그려놓고 옷 치고 하는 것도 있나요?

박계랑: 그건 삼서는 건데, 옛날에 어른들 한 대로만 얘기해. 팥을, 새빨간 적두팥을 해가 올라오면 요만큼 뵈킬 적에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가대요. 물 한 반 대접 떠갖고 팥을 한 댓 개 집어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삼을 잡는 것을 내가 봤어. 삼 섰는 사람을 해오는 쪽으로 앉히더라구. 앉히구는 팥을 가지고 그 사람 삼 선 눈에다가 눈을 감으라고 하고 '해돛이 책면에 피삼열삼을 팥눈으로 무치게 해달라'고 하고 해를 보고서는 물대접에 똑 떨구니 아주 팥에 그저 이런 물방울이가 병

그렇게 붙더라구. 암만 그래두 열 개구 다섯 개구 다 떨궈서 팥에 물방울이 안 그러면 안 삭는대.

조사자: 그때 뭐라 한다구요?

박계랑: 해돋이 책면이라고 하대. 삼잡는 이가 요렇게 문디며, '아무 살 먹은 아무개가 피삼 열삼이 섰으니 해돋이 책면에 피삼열만을 삭게 해달라'고 하더라구. 팥에 팥만한 물방울이 탁 붇더라구. 팥에 물방울이 하나씩이니 쌍둥이 같애. 고상(고생)시키고 안 나으려면은 팥에 물방울이 안 붙더라구. 붙으께는 대접을 살살 가지고 (부엌에)들어와서 솥 뒤에 놓더라구. 조왕님이 피삼열삼 선 사람을 얼른 삭게 해달라고 빌고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언제 내버리나요?

박계랑 : 하룻밤 자고 나서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피삼이란 게 뭔가요?

박계랑: 뻘겋기도 하구 하얀 게 눈에 덮지. 그래도 피삼열삼이라고 하더라구.

조사자 : 몇 살 때 생기나요?

박계랑: 어른이나 아(아이)나 생기려면 생기지 뭐.

조사자 : 삼 잡는 이는 누군가요?

박계랑 :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해주지 뭐.

조사자: 만약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박계랑: 그러면 오래오래 고생한대.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댁. 2002. 6. 9

김정수: 여·75

김정수 할머니 댁을 세 번째 방문하였다. 마침 혼자 계시다가 이것저것 질문에 친절히 응해주셨다. 천자뒷풀이, 둥게소리, 한글뒷풀이 등 예전에 하셨던 소리도 해주시고 새로운 것도 해주셨다. 이하에는 새로 해주신 것만 기록한다.

조사자 : 이 집을 무슨 댁이라고 부르나요?

김정수 : 뒷댁이라고 해요. 옛날에 큰불이 났었다 하네요. 이 동네가 깡그리 타는데 뒤로

이 집만 하나 남았다내요

조사자: 시할아버지는 누구지요?

김정수: 매곡선생님, 이름은 모르고 매곡처사라고 하지요.

조사자 : 오윤환이라고 하는데 보셨나요?

김정수 : 시아버지도 못 보았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 왔어요. 5월 달에 돌아가시고

10월에 시집왔으니까. 사변 중에 다 돌아 가셨거든요.

## ◇ 담바구타령

김정수: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의 담바구야

니의국은 어떻다구 대한의국에 나왔나

우리국도 좋기는 좋다만은

대한의국에 심화풀이를 왔네

무신 심화풀이를 왔너

천년과부 만년과부 심화풀이를 왔나

무엇으로 그심회를 풀까

담바구 씨를구해 이편대편 던졌더니

오부동이 지었너 대부동이 지었너

그담바구 점점잘자라

겉에겉잎 적치고 속에속잎 뜯어

응달짝에 수짚은곳에 말려

서울이라 치달려 굽높은 도매로

경성이라 치달려

은장도칼로 어씩비씩 쓸어

총각의담배도 한쌈지 내쌈지도 한쌈지

한대를 먹고나니 천지가아득 진동하고

두대를 먹고나니 일월이팽팽 도네

#### ◇ 주머니소리

김정수: 양석단 두루미 주머니

만수문장에 글자를새겨

굵은샛별 수를놓고

잰샛별 삼칠달아

삼태성에 끈을달아

뒷동산 시누대끝에 달아놓고

올라가는 구관책방 내려오는 신관책방

이주머니 구경하고 가소

그주머니 누가진(지은) 주머닌가

하늘이라 무자선녀 지은 주머니

무자선녀 그주머니 지어놓고 어디를 갔소

양대산으로 구름을타고 비주러(비를 뿌리러) 갔소

조사자: 언제 부르는 소리죠?

김정수 : 몰러.

조사자 : 누구한테서 배우셨나요?

김정수 : 난 할머니한테서 배웠어. 친정할머니. 우리 부모가 아들도 없이 나만 키웠어. 그

래서 할머니가 천지 없다고 날 키웠어.

## ◇ 풀미

김정수: 풀미 풀미 풀미

먹으나 굶으나 풀미

입으나 벗으나 풀미 풀풀

은을준들 너를살까

금을준들 너를살까

풀미 풀미 풀미야

집안에는 효자동이 되고

나라에는 충신동이 되고

이웃간에는 화목동이 되라

풀풀 풀미야

## ◇ 아리랑

김정수: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숱한건달 다잘사귈 터인데 …

## ◇ 춘향이신내리는소리

김정수: 춘향아 춘향아 양골춘향아

춘향아가씨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조사자: '청사초롱 불 밝히고' 하는 춘향이 소리 있나요?

김정수: 춘향전에 나오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첫머리가 뭐이 있어 가지고, 청사초롱 불 밝혀서 춘향의 집으로 들고 가는데 첫머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아이 나. 지금 언문뒤풀이라는 걸, 할머니가 그러니, 아버지는 '날 데리고 그런 걸 가르친 다고 그거는 옛날에 무신 선생님이, 그때는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도 아니고 뒷간 이여, 뒷간에 가 앉아서 지은 글이래, 이 한글을, 이 몹쓸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천자 뒤풀이를 이게 진짜지'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조사자 : 춘향이 신 내리는 것 있어요?

김정수: 그런 것도 보기만 했지. 몰라요. 이 아랫집 아재가 잘 내려서 한번은 혼이 났어. 노래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데 노래를 하다가 중지하니깐 어떻게 그만 까물치더라 구. 봄에 화전놀이를, 저기를 망굿터라 하는데, 거기 나가 화전을 하는데, 아랫집 아재 이름이 봉화야. '춘향이 좀 해라'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춘향아 춘향아 양골 춘향아 춘향아가씨' 뭐 문서가 있더라구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하면 손이 차츰 벌어지더라구 그러면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내 정신이 아니여. 그러면 노래를 자꾸 대주어야 돌아가는데 그렇게 못하니 후딱까물어치대.

#### ◇ 작자리잡는소리

김정수: 앉은자리 꽁꽁 붙어라

앉은자리 꽁꽁 붙어라

#### ◇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김정수: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김정수 : 잠자리 붙잡아 가지고,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하면 손바닥에 알을 낳아 요. 노란 게 좁쌀낟 같은 거요.

## ◇ 한글뒤풀이

김정수: 지역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잤더니 인연조차 지중치 못하오

가가거겨 가이없는 요내몸은 그이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굳건하기 짝이없소

나냐너녀 나개(나귀)등에 손질하여 조선팔도 유람가자

노뇨누뉴 노세노세 젊어놀어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뎌 다달이 오시던손님 소식조차 돈절이오

도됴두듀 도담하도다 저몹쓸잡년이 도담하도다

라라러려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와나와 짝을짓자

마마머며 마자마자 맞았더니 인연조차 지중치못해

모묘무뮤 모지도다 저몹쓸잡년 모지도다

비비배네 밥을먹다 생각해도 임의생각

보뵤부뷰 보고지고 한양의 낭군을 또다시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시행차 바쁜길에 중간참 늦어진다

소쇼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한양산을 니가거든 임의소식 정코가게

아야어여 아다담삭 안던손목 인정없이도 똑떨어졌소

오요우유 오동복판 검은구름 사줄졸졸 미어타니

자자자져 잦은종종 만났더님이 편지조차 돈절이오

차차처쳐 차차리 죽었으면 요런광경 안당할까

초쵸추츄 촐촐히 서눌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요

카카커켜 은장검 드는칼로 요내몸을 비어주쇼

코교쿠큐 콜콜이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

파파퍼펴 파오파오 임의화공 그질없이 보고파오

포표푸퓨 폭포수 흐르는물에 거기평덩 빠졌더라면은 요런광경 안당할까

하하허허 한양당군 내당군인데 편지조차 돈절이라

호효후휴 호접접접 먹었던마음 탐삭 리 아니가네

# ◇ 우러리

김정수: 우러리야 우러리야

아참 잘 딛는다.

아이참 힘차게 잘딛는다. 어 잘딛는다 우러리야

방구꿨다 뽕나무 들어간다 우러리야

칼로 찔렀다 피나무

들어가네 우러리야 우러리

(무신 거 하고)

양장목 끝당목 도리 지둥감

다 들어간다 우러리야

고로쇠 박달 다 들어간다

우러리야 우러리야

#### ◇ 베틀가

김정수: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란간에 베틀노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안질개를 도다놓고 올라앉은 거동보소

잉앳대는 삼형제요 사치미는 형제

눌림대는 외아들이요

걸신대는 강태공의 낚시줄에 목을매고

쥐두강의 나갈새나 새두강에 나갈새나

황소같은 도투마리에

김정수: 도투마리는 황새같고 바디집 치는 소리는 원론 공산에 녹살알개 치는 소리요. 북 드나드는 형용은 무신 산에 무신 새 드나드는 형용이고…, 그런데 다 몰러.

## ◇ 추워추워춘달래

김정수: 아고 추워 춘달래 고추먹고 맴맴

조사자 : 성주 모실 때 어떻게 비나요? 김정수 : 성주 모실 때는 집 질 때 모시지.

조사자 : 고사 지내지요?

김정수 : 가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가을

에 동짓달에 지내.

조사자: 마굿간에 무슨 신이 있죠?.

김정수: 마굿간에 군웅이 있는데, 없는 집도 있어.

조사자: 어떻게 모시지요?

김정수 : 소 머리맡에 뭐 달아 매놓고 뭐 가져와도 뭐 놓고 그러던데

조사자 : 뭐 달아매죠?

김정수 : 종이장. 조사자 : 한지?

김정수 : 응. 이 동네도 그렇게 달아맨 집이 아직도 있어.

조사자 : 군웅은 왜 있죠?

김정수 : 시집갈 때 따라간대.

조사자: 고성에서 많이 온다죠?

김정수 : 응.

조사자 : 이 댁은 뭐 모셨어요?

김정수: 우린 성주제사밖에 없어요.

조사자 : 언제 지내나요?

김정수 : 저녁에, 본래 어떤 집들은 비는 이들을 데려다가 소지올리고 하지만,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지내고, 축 고하더라고. 성주에게도 지내고 터에게도 터제사라고

지내요 뒤안에 모셔놨어요

조사자: 그 안에 쌀이 있나요?

김정수: 기왓장 돌리고 요만한 단지에 쌀 한줌 넣어서.

조사자 : 터주신이라고 하나요?

김정수: 터지신이라고 해요.

조사자: 일년에 한번씩 제물 놓고서, 그때 쌀을 바꾸나요?

김정수: 그렇지.

조사자: 그러면 그 쌀은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바꾸나마나 찹쌀 집어 세 번 멥쌀 집어 세 번 넣는데, 가을에 가면 눅어서 다 썩

고 없어. 그러면 가을에 가서 다 떨어버리고 또 그렇게 집어넣어 놓지 뭐.

조사자: 영등할머니 모셨나요?

김정수 : 영등할머니도 영 너머엔 없잖어. 여기 시집와서 시어른들도 없지. 우리 영감도 그

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고 살았어.

## ◇ 각시방에 불켜라

김정수: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김정수: 이 거는 각시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풀뿌래기가 있어요. 개비릅이라고 해요. 그 뿌래기를 갖고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하고 문지르면 그게 빨개져.

조사자: 그 거 갖고 오나요?

김정수: 갖고 오기는 뭐,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지 뭐. 각시대가리 만드는 풀을 뜯어다가 갖고 놀다가 말로는 그냥 버리면 뭐이 된다고 해서. 놀다 들어올 땐 다 뜯어 버리고 오잖아.

#### ◇ 그네소리

김정수: 우두그네야

추천이야 나간다

조사자: 산에서 무슨 나물 주로 캤어요?

김정수 : 취, 곰취도 산 저 높이 가야 있고, 야산 나물이라는 거는 산나물같은 거지 뭐, 나

두 나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

조사자: 다듬이질 할 때 노래 하나요?

김정수: 다듬이나 하지 뭔 노래를 해요?

조사자: 머리 빡빡 깍은 아이보고 뭐라 놀리죠?

김정수 : 까까중이라고 그러더구만

## ◇ 쪽박바꿔주

김정수: 쪽박바꿔주 쪽박바꿔주

조사자 : 소쩍새는 어떻게 우나요?

김정수 : 소쩍새는 '소쩍 소쩍' 그러지, 쪽박바꿔주 새가 따로 있고,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

만 '쪽박바꿔주 쪽박바꿔주' 그러더라구

조사자: 무슨 새인가요?

김정수 : 무신 새인지는 모르지, 내가 울산바위에 돈 받느라고 몇 년 가 있었거든. 거기 새

가 그렇게 울더라구.

조사자: 뻐꾹새는 어떻게 우나요?

김정수: '뻐국뻐국'울지 뭐.

속초시 도문동 김남형 댁. 2002. 6. 16

김남형: 남 · 80

도문동의 소리꾼으로 소문난 김남형 할아버지를 녹음하러 몇 번을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했다. 이날은 80대인데도 불구하고 뒤란에서 집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다행히 만난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소리를 녹음하러 왔다고 부탁을 드리자 하던 일도 중지하고 녹음에 선뜻 응해주셨다.

김남형: 남·80, 도문동 5통 1반 / 양양군 강현면 출신으로 19살에 이곳으로 장가들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처음 장가들어 이모님 논 1천 평과 종가 논 1천 평 등도합 2천 평을 부쳐 3년 후에는 5-6천 평을 만들었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고, 57살까지 농사를 지었고, 그후에는 양봉을 시작하여 지금도 하고 있다. 주봉초교 육성회장. 노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문 미나리는 이곳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배웠다. 학교는 다녀 보지 못했으나 한문서당엔 한 3년 다녔다. 예전에 농악대가 있었을 때에는 꽹과리고 잘 쳐서 상쇠를 했었다. 지금 농악대는 없어졌고 악기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 올해 봄철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난 후로 살도 한 6kg 빠지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지만 팔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할만큼 참으로 건강하셨고. 아직도 약주를 즐긴다.

조사자: 미나리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김남형: 여기 와서 어른들한테 배웠지. 여기 들은 도문들이라고 하고, 저기는 화서평이라고 하지. 여기서 미나리를 하면 저쪽 들로 건너가고 저쪽 건네서 미나리 하는 소리가 이리로 건너오고 했어요.

조사자: (소리를) 주고 받고 했나요?

김남형: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여러이(여럿이) 하니까 소리가 커졌지. 아이짐이라고 벼가 요렇게 쬐금 할 적에는 미나리도 아이 하고, 술도 못 먹게 했어요. 약한 베(벼) 문 닥그린다고. 두벌 짐(김)부터 미나리를 하고 그랬어요.

조사자 : 보통 세벌 짐(김) 하죠?

김남형: 그렇죠. 네벌 짐(김)하는 이도 있지만 평균 세벌 짐(김) 하죠.

조사자: 미나리 할 때는 보통 몇 분이 같이 부르나요?

김남형: 다섯 아니면 여섯 되죠. 조사자: 소리 매긴다고 하나요?

김남형: 선창하죠. 받는 사람이 후렴하고

조사자 : 질 짠다고 하나요?

김남형: 네.

조사자: 그 사람들이 부르나요?

김남형: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듣기나 하고…

조사자: 잘 부르는 사람은 소리만 하죠?

김남형: 아녀, 같이 매면서 하지, 미나리라는 것이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못 배우고 말더라구요, 妻외숙, 오세준인가 하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 ◇ 도문미나리

김남형: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떳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김남형 : 숨 차. 아니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서 따라해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어

울리지 않아요.

## Ⅱ.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지정다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김남형: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러지. 그것두 혼자는 못해요.

조사자 : 명산들 다 주어 섬기죠?

김남형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백두산이 생겨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모를 기요. 커다란 돌에다가 구멍을 뻥 뚫었어요. 거기다가 낭그(나무)를 지다란(길다란) 것을 꿰 가지고 엇거(엮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밧줄을 시겹(세겹)이고 네 겹이고 하고 저쪽에다가도 밧줄을 시겹(세겹)이고 네겹이고 해서 소리를 주면 바싹 잡아당기면 돌이 쑥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다간 턱 놓구 씩 하면

턱 올라가다간 턱 놓구 그래서 줄을 맞춰 들죠.

조사자: 지정 맞추면 몇 시간 하나요? 30분 하나요?

김남형: 30분 갖고는 안 돼죠. 조사자: 후렴을 뭐라고 하나요?

김남형: 에헤라 달호야

조사자: 그건 회다지가 아닌가요?

김남형 : 회다지가 아니고 집터 닦는 것도 그렇게 해요

#### ◇ 지정다지기

김남형: (자 집터를 닦을 겁니다. 그러니 다 일심 받아서 해주세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라 에헤라 달호야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이 생겼구나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이 되었구나 금강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이집터가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소리맞춰 잘도찍소 에헤라 달호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에헤라 달호야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에헤라 달호야
딸을나면 열녀나고	에헤라 달호야
소를노면 우걱부리	에헤라 달호야
개를노면 삽살개다	에헤라 달호야
삽살개 짖는소리에	에헤라 달호야
오복이 굴러든다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거정다 된거같소	에헤라 달호야
막걸리 한잔먹고	에헤라 달호야

## ◇ 모찌는소리

김남형: 얼른 하더라니 한 춤(한 춤 떠서 집어내 던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연달아서 옆의 사람이 )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그러면 또 연달아서 저쪽에서)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조사자: 한춤이라는 게 뭐죠? 김남형: 모를 묶어 놓은 것이지. 조사자: 모 맬 때 뭐하나요?

김남형: 미나리하죠.

## ◇ 벼베는소리

김남형 : 흠청흠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흠처흠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 ◇ 벼세우는소리

김남형: 베(벼) 세울 때도 또 하지. 자 베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그래요.

김남형: (자 베를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아홉단에 스무단 한타래 세웠습니다

(여기서 스무단을 가지고 한 타래라고 합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다 아홉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 ◇ 도리깨질소리

김남형: 자 때려라.

저-호-저-호-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흐-어-허-요-호-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깨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조사자: 타작할 때도 소리가 있죠?

김남형: 그것 참 증말(정말) 옛날인데, 태 쳐서 집어던지면 하도리깨가 넘기는 건대… 잘

아돼요

조사자: 상도리깨가 있고 하도리깨가 있는 건가요?

김남형; 그렇죠

조사자: 똑같이 생겼나요?

김남형: 옛날에는 쩍패란 기계가 없어 가지고, 넓쩍한 탯돌, 널쩍한 탯산이라는 게 있어서 거게다(거기에다) 넓적한 돌을 놓고 벳단(볏단)을 감는 줄이 있어요. 감아 가지고 이짝으로 치고 왼짝으로 감아 치면 한쪽으로 한 두어 번씩 치면 베(벼)가 거의 다떨어져요. 그러면 쭉 풀민(풀면서) 던지면 저기 나가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도리깨가 딱 받아서 쳐요. 치면서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이렇게 후리면 베를 불끈뿔끈 뒤집어줍니다. 하도리깨란 가로쇠거든요. 하도리깨가 둘이고서이고 서서 소리 맞춰서 이렇게 하면,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자-아흐-어-허-요-호-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깨 있으면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온종일 탈곡을 해나 가지고 벳가릿개가 이만큼 되면 저녁에 베를 지운다고 하는 건대, 불을 해놓고는 꺼끄랭이 꺼슬린다고 불에다가 옷을 흔들어요. 그래 가지고 입고 자고 했어요. 꺼끄랭이 타라고 하는 거지요. 벳가래를 이만큼 뫄는 거를(모아 놓은 거를) 또가리를 해놓고, 짚으로 또가리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떠 냄기면(넘기면)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워요. 해보라우? 아랫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난 뒤에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해주세요

# ◇ 볏가리지우는소리

김남형: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가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짝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쎄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돼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예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돼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쎄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조사자: 벳가리 지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지운다는 거는 문지(먼지)를 날린다는 거지. 온 종일 털은 걸 뫄(모아)놔두었다가

가래를 들고설랑 쭉 올라갔을 때 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 맞춰서 하는 거죠.

빙글빙글 돌아가소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맞춰서 부쳐주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그후 산대미(삼태기)를 가지고, 여느 그릇은 안됩니다, 산대미를 가지고 두지( 뒤주)에다가 퍼들리는데(퍼 옮기는데), 일꾼들이 쭉 한 줄 서 가지고 산대미로 해야합니다. 짚으로 맨 산대미가 있어요. 낭그를 휘어가지고, 다래나무같은 거로, 짚으로 매었어요. 산대미라고 그래요. 떠주는 사람은 계속 떠주지. 그러면 줄이 닿아서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황덕불에다가 옷을 들고 털어 가지고 꺼끄랭이 끄슬려야 밤에 잘 때 꺼끄럽지 않다고….

조사자 : 여기서도 소를 모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 마라소라는 게 영서에서 밭을 갈 때, 논농사 질 때 내가 상일꾼이었어요. 두럼(두

엄) 벌리러 나가면 장부 되고, 둘이 잡아 댕기고 가래질하는 거 있잖아요.

모 심으러 나가면 한 스레 몰고, 한 스레라는 건 쇠 두 마리 가지고 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 두 필로 하는 것. 쪽스레라는 것은 소 한 마리로 하는 것으로,

뒤에서 번지를 친다고도 하지요.

조사자: 이랴 올라서라 이렇게 하지요?

김남형: 그건 영서사람들이나 잘 하지요. 여기서는 …. 잘하는 소를 바른손 쪽에 세우죠.

## ◇ 소모는소리

김남형: 이러-올라서라

바로가란 얘기다 이소야

어디 둘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여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 ◇ 초초아뢰는소리

김남형: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01-

OH-

OH-

 $\cap |-$ 

미리미리타불

조사자 : 초초 아뢰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일초. 이초. 삼초 아뢰는 게 있는데….

조사자: '초'가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불교계통에서 나와서 우린 몰라요. 그저 어른들이 하니 할뿐이죠. '미리미리타불'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불교계통인 것이 틀림없어요. 옛날에 일초, 이초, 삼초 아뢸 때는, 밤새도록 과외라는 걸 하잖아요. 밤과외. 자지 않습니다. 일초 아뢰고, 술 갖다 먹고 또 놀고 그러다가 이초 아뢴다 하고. 과외 한다는 것이 날 세운다

는 거예요. 삼초 아뢰고 아침에 발인 축 읽고 그러잖아요.

## Ⅱ.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상여 소리 후렴은요?

김남형 : 어허 난차.

망인 앞에 가서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담제 후'이래 요. '담제 후'하는 것은 상두꾼들 모이라는 뜻이어요.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망인 앞에 들어가서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세 번을 합니다. 그리구는 '아~ 어~ 어~ 이~' 한 후 '미리미리타불' 그러면 후렴으로 따라서 또 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조사자 : 드장 하고 그 다음날 일초 이초 삼초 아뢰고

김남형: 드장날 묻어 놔두었다가 그 다음날 묻었지요. 옛날에는 토롱 그 식인데 지금은 그 식으로 아니하고 가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발인축 읽기 전에 삼초를 아룁니 다. 삼초를 가는 날 아침에 삼초를 아뢰고 발인축 읽고 떠나갑니다.

조사자: 선소리 하시는 분이 요령을 흔들며 하죠?

김남형: 그렇지.

조사자 : 상두꾼은 몇 명이죠?

김남형: 24명입니다.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에 저승이로구나'하면서 잰소리 넣어 가지 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요령도 흔들어 봤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상여

맬라 하니 힘들어 (상여는 매지 않고) 요령을 흔들었어요.

조사자 : 봉분 만들며 하는 소리를 뭐라 하나요?

김남형: 회다지라고 하는데, 여긴 잘 할 줄 몰라요.

조사자 : 후렴은 어떻게 매기나요?

김남형 : 에호라 달호야

#### ◇ 곱새치기

김남형 : 오라버니 사정에 속옷벗구 담 넘어가네

...

#### ◇ 목도소리

김남형: 아-오-아-오-

어허여차 어허여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김남형 : 발 맞추는 것이니깐, 잘 하는 사람은 '저기가는 저 여자' 하면서 히야까시도 하죠

### ◇ 풀미

김남형: 풀미 풀미 풀미야

은을주면 너를사라 금을주면 너를사라 은자동아 금자동아

속초시 도문동 노인회관, 2002, 7, 13

김남형: 남 · 80. 오대환: 남 · 76

김순녀 : 여 · 70. 전기춘 : 여 · 68. 박선춘 : 여 · 65

김추월: 여·65. 이준애: 여·66

김남형 할아버지 댁을 다시 방문해 노인회관으로 오시라 한 후 도문동 노인회관(2층)에 찾아 갔더니 두 군데서 화투를 하고 있었다. 1층은 공사로 시끄러웠으나 녹음 관계로 협조를 요청하자 흔쾌히 1시간 가량 공사를 중단해주셨다. 도문동 미나리를 녹음하기 위해 오대환, 오순석 두분을 찾았으나 오대환 할아버지만 찾을 수 있었다. 김남형과 오대환 두 분에게서 소리를 채록한후 옆에서 조용히 놀고 계시는 할머니들한테서 또 소리를 채록했다. 할머니들은 화투를 하시면서 노래를 해주셨다.

**오**대환 : 남 · 76. 속초시 도문동 /

**김순녀** : 여 · 70, 속초시 도문동 10통 2반 / 속초 쌍다리가 고향이다.

전기춘: 여 · 68. 속초시 도문동 10통 5반 / 고성이 고향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박선춘**: 여·65,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 속초 토박이다. 가장 많은 소리를 해주셨다.

김추월: 여·72,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 양양 강현면 용호리 출신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이준애**: 여·66, 속초시 도문동 10통 4반 /

## ◇ 도문미나리 38)

김남형: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떳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 ◇ 초초아뢰는소리

김남형: 담제고 에이

대령하였느냐

오대환: 예이. 대령하였소

김남형 : 대령하였소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초초 아룁니다

김남형 + 오대환: 아 ~ ~ ~

어 ~ ~ ~ 에 ~ ~ ~ 이 ~ ~ ~ 미리미리타불

### ◇ 넘차 소리

김남형 + 오대환: 에에호

어이갈까 에이호

<sup>38)</sup> 김남형 선창에 오대환 합창으로 녹음을 했다. 소리가 끝난 후 오대환이 '동해동창 솟는해가 나의얼굴 비추고' 가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곧 김남형의 설명을 듣고는 수긍하셨다. 지여가네는 늦어가네라는 뜻이다.

에헤 에헤호 어이갈까 에헤호

조사자 : 질레 짠다고 하지요?

김남형 : 네

조사자 : 몇 명씩 짜나요?

김남형: 열두 집 정도 해 갖고.

#### ◇ 화투풀이 39

전기춘: 일월송학 속상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

한마음 오윌난초에 날아들다

유월목단 …

#### ◇ 나물캐는소리

김순녀: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랬더니

씨쩍새가 다파먹고 좃대만 간들간들

- 너무 내용이 진한 지 좃대가 아니라 조잇대라고 부언해 주셨다.

#### ◇ 어랑타령 40)

전기춘: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애기 단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연사연이로구나

<sup>39)</sup> 마이크를 처음 들이대자 긴장해서인지 제 곡조가 못나오고 가사는 잊어버렸다. 이하 칠월부터는 소리가 아닌 사설로 읊어주었다. '칠월 홍싸리 허숙하고, 팔월 공산에 달도 밝고, 구월 국준, 시월 단풍에 다 떨어 지고, 동지섣달 긴긴밤에, 나개만 떨어져도'

<sup>40)</sup> 김순녀, 박선춘 두 분이 주도하시면서 나머지 분들도 모두 합창으로 해주셨다.

김순녀: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을 찍구요

니탓이냐 내탓이냐 중매재(중매쟁이) 탓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에야 요것이 사령이로구나

간다 000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잠이나 자고가게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사령이로구나

#### ◇ 뱃노래<sup>41)</sup>

김순녀 外 4인: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탓더니

되지 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거잔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에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기사머리 가려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 데레(데려) 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sup>41)</sup> 김순녀, 박선춘 두 분이 주도하시면서 나머지 분들도 모두 합창으로 해주셨다.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울너머 담너머 꼴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랑은 외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나는야 언제나 남자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 노랫가락

김남형: 대천바다 한가운데에 뿌리없는 나무새여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피어서 삼백육십 그나무에 열매가열었네 일월이냐 명월이냐

> 사람마다 벼슬을주면 일할농부가 어디있나 의사마다 병고친다면은 북망산천은 왜생겼소 아서라 끄지마라 화류계여자를 괄세마라

이몸이 학이되어 나래 에다 유령실고 천만리 날어를가니 이별이없는 곳일러라 그곳도 이별보시는 또천만년

오대환: 가랑잎이 반들반들 고초닢(고추잎)도 반들반들

우리동네 한처녀가 언제나봐도 반들반들 임나만나 고운얼굴에 연주찍고 분바르네 한손에다 술병들고 한손에다 술잔들어 깨끗하게 곱게입고 상코가는 저총각이 여자눈에 이럴때야 남자눈에 오죽하랴

조사자: 노래를 언제 부르셨나요?

오대환 : 열댓 살에 불렀어.

#### ◇ 양양팔경

김순녀 外 4인: 산종고 물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뒷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조사자: 이 노래는 언제 배우셨나요?

김순녀 : 7~8살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돌아다닌 거 배운 거지.

#### ◇ 앵기땡기

전기춘: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짝 발레 회양주

#### ◇ 세상달강(아이 어루는 소리)

박선춘: 실겅달겅

할머니가 서울가서 밤한되 사온거

고무락에 치뜨린거 머리까믄 새앙쥐가 다까먹고

한톨을 냄긴거가매물에 삶아서조리로 건제서껍데기는 아범주고

고물은 엄마주고 실겅달겅 너랑나랑 알맹이먹자

#### ◇ 두껍아

박선춘 : 두껍이 두껍이

헌집줄게 새집다오

두껍아

조사자: 그거 언제 불렀나요? 박선춘: 대여섯 살 때 불렀어요.

#### ◇ 춘향이소리(신내리는소리)

박선춘: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아가씨 이도령님 만났을때

종글종글 내리시오

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

양골양골 춘향이아가씨

박선춘: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은 두 손바닥을 모으게 해놓고 여럿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손바닥이 슬슬 벌어져 춤을 추고 논다고….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대 신(센) 사람은 그게 안 돼.

### ◇ 추워추워춘달래

박선춘: 추워추워춘달래

더워더워 더달래

#### ◇ 내손이약손

전기춘: 자래배 자래배

엄마손은 약손이다 싹싹 문질러 풀어줘라

#### ◇ 꿩서방

김추월: 꿔궝꿔궝 꿩서방

자네집이 어딨너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밑이 내집이지

# 4) 속초시 동명동(東明洞)

1963년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함에 따라 속초리 2구가 동명동이 되었고, 동해 바닷가에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작명하였다. 동명항은 비교적 큰 항포구로서 인근의 배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15년 동안 방파제를 축조하였다. 마을에는 처음에 구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그후에 이씨, 신씨, 김씨의 순으로 정착하였다.

2000년 현재 이곳의 면적은 0.78km², 인구는 2190세대 5865명으로 남자2921명, 여자 2944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7개통 8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이곳의 어촌계는 속초시 수협산하의 어촌계로 영랑동과 합쳐서 영동어촌계라 부른다.

동명동에는 속초팔경의 하나인 영금정의 등대전망대와 해돋이정자를 비롯하여, 바닷가의 활어횟집, 보광사 등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속초를 수복하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함경도 피난민의 성금과 1군단의 지원으로 母子像으로 된 수복기념탑을 1954년 5월 10일 세워졌으나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부셔져 그해 11월 17일 다시세워졌다.

동명동 등대밑의 바닷가에 42.98평의 영금정이 있다. 옛날 이곳에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뻗어야 겨우 맞닿을 정도의 큰 노송이 두 그루 있었고, 꼭대기 바위 바닥에는 장사가 천마를 타고 달린 말 자국이 있었으며 말 죽통같은 괴석도 있었다. 이 괴석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이거나 발로 차

면 똑같은 징소리가 났으므로 징바위라고 불렀다. 또 괴이한 것은 파도가 석산 절벽에 부딛혀 신묘한 음곡이 들려왔으므로 이것은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하여 영금정이라 불렀다. 또한 밤이면 선녀들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묘한 음조곡을 즐기면서 놀던 곳이라 하여 비선대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위를 볼 수 없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속초항만 축항 공사 시 석재로 쓰기 위해 영금정 바위를 깨어 사용했기 때문이다.

동명동에서는 음력 5월 5일 단옷날 2박3일 동안 열다섯 마당의 풍어굿을 성대하게 치루고 10월 달에도 지낸다. 대체로 매년 풍어제를 겸한 굿마당을 열고 있는데, 어민들의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지금은 4년마다 별신제 풍어굿판을 열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마을의 성황제는 5월과 10월 지내는데 5월은 단옷날 10월은 택일하여 영금정 근처에서 소를 잡아 용왕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성황제사를 올렸으나 15년 전부터는 성황당에서만 용 떡을 만들어 바치고 제사를 올린다.

최근 속초-자루비노-훈춘 간 항로가 개설되었고, 금강산 관광선도 동명항구에서 출발하고 있어 국제항로로도 각광받고 있다.

속초시 동명동 최재윤 씨댁, 2002. 7. 2

최재윤 : 남 · 82

동명항을 찾아가 항구 주위에서 뱃소리를 할 만하 분들을 찾아보았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영 동어촌계(영랑동과 동명동의 어촌계)를 찾아갔는데, 문은 잠겨져 있고, 마침 구판장 낚시가게를 운영하던 아주머니가 자신의 시부모를 추천해줘서 찾아가 옛날 뱃소리 몇 수를 채록했다.

최재윤 : 남  $\cdot$  82, 속초시 동명동 1통 2반 영금정 아파트 / 속초 토박이로 오랫동안 뱃일을 하다가 지금은 연세가 많아 뱃일을 못 하고 쉬고 계신다.

#### ◇ 놀배기소리 42

최재윤: 어야디야

어야디여

어야라 디여

42) 놀배기소리란 노젓는소리다.

#### ◇ 그물당기는소리

최재윤: 에야디어 어여라

댕겨보자 에여디여 에야디여 어여라디여

에야 어여디여

우리가 이지랄 아니하면 에야디여 어야디여

무신먹(덕)으로 살아볼까나

조사자: 함경도 소리는 어떻게 하나요?

최재윤: '다리고 내자 / 다리고 내자 / 어여디여 / 다리고 내자'이게 함경도 소리입니다.

조사자 : 설망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최재윤 : 배를 진수식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기를 꽂고 배를 띄우고, 끌고 다니면서 장고,

꽹과리 등 농악 치고 놀면서 바다에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 집에서 한잔씩 먹고

그러지요.

조사자: 고기 푸는 것을 뭐라 하나요?

최재윤: 가래소리라 합니다.

#### ◇ 가래소리

최재윤;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허어허야 데헤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여차 자 자

최재윤 : 산대로 고기를 푸니까, 뱃사람들이 산대 댕겨 올릴 때는 '에라소 가래로구나'하

고 산대가 넘어오면 댕기면 그러면 '야~ 자~' 하면서 힘을 써서 댕기죠.

#### ◇ 산대소리

최재윤: 이번 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이번 산대는 선원들 산대요.

#### ◇ 든대질소리

최재윤: 여-차 여-차

최재윤 : '여~차 여~차' 하면서 배를 올리는 거지요. 이쪽에서 배를 들어올리면 저쪽에서

도배를 들어올려야 하는데 서로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로 소리를 맞춰 누르면 배가 쑥쑥 올라가지요. 괴목을 놔요(놓아요). 거기다가 팔뚝같은 나뭇대기

를 들이대죠.

조사자: 가장 무서운 바람은 원산내기죠?

최재윤: 원산내기란 것은 샛바람이죠. 맞바람은 겁을 안내요. 내바람이 그 다음에 무섭죠.

조사자: 내바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최재윤: 내바람은 다른 말로 하늬바람이라고 하죠. 맞바람은 마파람이라고 하고 ….

## 5) 속초시 영랑동(永郎洞)

영랑동은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를 4개 구로 나눌 때 속초리 1구가 되었던 지역이다. 속초읍이 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난 후 동제 실시에 따라 1966년 1월 1일 영랑호에 인접하였다고 해서 영랑동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영랑동은 삽짜개마을이라고 도 하는데, 이는 어부들이 동쪽을 새짝이라고 부른데서 연유하며 성황봉의 동쪽에 있다는 뜻이다.

영랑호란 이름은 신라시대 화랑인 永郎이 이 호수에서 즐겼다하여 명명한 것이다. 속초시 서북쪽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 쌓인 둘레 8km, 넓이 약 36만평의 석호이다. 신라의 화랑인 영랑이 술랑, 남랑, 안상 등과 함께 금강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명승지 삼일포에서 3일 동안 유람한 후 각각 헤어진다. 영랑은 동해안을 따라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호수를 발견하고 범바위 등의 자연경관에 매료당하여 서라벌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며 풍류를 즐겼다 한다. 고려 충정왕 원년 1349년 이곡이 쓴 『동유기』에 영랑호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이중환(1690~1752)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구슬을

큰못에 갈무리한 것 같다고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범바위는 속초팔경의 하나로 .영랑호 중간지점 서남쪽에 잠겨있는 큰 바위로서 위엄이 당당하며 마치 범 형상으로 생겼다고 하여 범 바위라 불린다.

영랑동은 영랑동과 장사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7.58km², 인구는 2000년 현재 2638세대 7683명으로 남자3891명, 여자 3792명이다. 동내 19통이 있다. 약 10만kg의 쌀을 생산했으며, 한우도 89두를 사육하고 있고(속초 관내 2위), 14ka의 조림지를 갖고 있고(속초 관내 1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가 17개소나 되는(속초 관내 1위)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영랑동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지정다지기가 전해온다. 지정다지기는 주로 낮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녁부터 자정까지 횃불을 켜놓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먼저 토지신에 대한 제사를 드린다. 각종 제물을 차려놓은 다음 집사가 오늘 저녁에 영랑동 000씨 집을 짓기 위해 이웃이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고 축문을 읽는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와 집주인이 음복을 하고 집주인이 지정을 다지러 온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술을 권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지정다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집사와 메기는 소리에 맞추어 집터를 다진다. 지정다지기 소리를 하며 다지다가 집사가 쉬었다가 할 것을 지시하면 일꾼들은 '어어차 어이차 어이차' 함성을 지르며 지정석을 동시에 높이 쳐들어 신호를 하고 휴식에 들어가며 술과 안주로 피로를 푼다. 이때에 농악대가 나와 흥겹게 논다. 어느 정도 쉰 다음 다시 지정다지기를 하면 날이 어두워진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횃불을들고 집터를 밝힌다. 지정다지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지정을 잘 다져 주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하고 준비된 음식을 제공한다. (『속초시지』)

속초시 영랑동 노인회관, 2002. 7. 4

최월선: 여·77, 김윤문: 여·84, 김옥진: 여·81.최경희: 여·82

며칠 전 최재윤 할아버지가 소개한 김갑용 할아버지 댁(남촌 아구찜 = 며느리가 운영)을 찾아 갔더니 안 계셔서 인근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30여 평 크기의 방에 할머니들만 30여 명 계셨다. 그 중에서 속초 출신으로 옛날소리 잘하는 분 두 분을 위주로 하여 4명에 게서 소리를 채록했다.

최월선: 여·77, 영랑동 1통 5반 / 동해시 북평면 미도리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지는 50여년이 넘었다.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 어디 나가 놀지도 못했고 소리도 별로 배우

지 못했다. 소리는 이곳에 와 많이 배웠다고 한다. 바우엄마로 이곳에서는 불리고 있었다.

김윤문: 여·84, 속초시 영랑동 / 영랑동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평생 살아왔다. 남편은 마산사람으로 이곳에 장가 든 이후 이곳에서 같이 살았다. 옛날 창가를 잘하였다. 부모가 학교에 못 다니게 해서 밤이면 부모 몰래 가만히 나가 예배당에 가서 글을 배웠다.

김옥진 : 여  $\cdot$  81, 속초시 영랑동 / 속초에서 부모 때부터 살아왔다. 남편은 어업을 하였고, 지금은 혼자 되었다.

최경희: 여·82. 속초시 영랑동 / 양양에서 태어나 20살에 이곳으로 시집왔다.

#### ◇ 성주풀이

최월선: 나의경서(낙양성)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무덤에

영역호걸(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절대가인이 그누구냐

우리인상도 아차죽어 잊으면

저기저모양 되는구나 에라만소 에라 대신이야

#### ◇ 정선아라리

최월선: 정선읍내 물레물반 남천물을 안고도는데

우리집 저멍텅구리 날안고돌줄 왜몰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냄게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냄게주소

한치뒷산에 곤드레딱죽이 나지미맛만 같더면

고것만 뜯어먹어도 봄살어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냄게주소

#### ◇ 어랑타령

최월선: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간다 좋아요 나도나 젊어서 노지요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어랑타령 본조조은 함경도 원산이요 시사시까미 본조종은 경성 신마찌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 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 ◇ 둥게소리

최월선: 둥기둥기 둥기야

 두둥두둥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두둥둥둥 둥기야
 우리아기 잘도자고

 잘도논다 두둥둥
 두둥 두둥기 둥기야

#### ♦ 어랑타령

김윤문: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사령아

내사령을 뚝띠다가 어드메경칠년 주고

사람만 보면은 생째장만 내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내사령아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아기 단봇짐만 싸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사령아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는지 정거장 마당이 한강소가 되었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사령아

#### ◇ 이똥저똥 ⁴3)

김윤문: 이똥 저똥 행기똥

제 할미 곱새 똥

이고리 저고리 갓고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짝 발래 회양주

#### ◇ 그물바리하는소리

김윤문: 어기여차 어기여차

#### ◇ 헌니가져가고(이빨빠진아이보고하는소리)

김윤문: 헌니 가져가고

새니 나라

### ◇ 앞니빠진수망데이(이빨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윤문: 앞니빠진 수망데이 뒷골로 가다가

오줌독에 미끄러져서 …

최월선: 앞니빠진 갈가지 뒷니빠진 수만이

도랑건네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랠라

조사자: 영금정에 전설이 있지요?

43) 다리를 뻗어놓고 서로 다리를 피면서 하는 소리이다. 다리가 마지막 소리에 맞으면 맞은 다리를 구부린다. 별 다른 벌칙은 없다.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고 놀이다.

#### Ⅱ. 속초민요의 실제

김옥진 : 영금정이 옛날에 너무 좋았어요. 돌멩이를 장사가 굴려 가지고 손자국도 있고 발

자국도 있고, 좋았어요. 바위 깨 가지고 망가졌죠. 영금이 영감하다고 그랬죠.

최월선 : 청태산 마고할미가 살림 살았잖아요.

김옥진 : 그전에 한번씩 단오굿을 했어요. 마고할머이 추드리고 서낭님 추드리고 했어요.

지금 서낭을 저리로 옮겨갔어요. 축항 하고 옮겨갔어요. 꽤 오래되어요. 그전에 돛배 할 때에 사람이 많았지요. 새짝. 마짝이라고 마을이름을 불렀죠. 새짝은 여

기고, 마짝은 동쪽이죠. 영랑동이라는 이름은 없었죠.

#### ◇ 이똥저똥

김옥진: 이똥 저똥 행기똥

제 할미 곱새 똥

#### ◇ 앞니빠진 수망데이

김옥진: 앞니빠진 수망데이 뒷골로 가다가

오줌독에 미끄러져서 개똥에 빠졌네

#### ◇ 비둘기소리

최월선: 부꾹부꾹

지직지직 죽고 현투데기 목에 걸고 어린자석(자식) … 물가천지 숲에 하고 …

#### ◇ 다보녀

김옥진: 다북다북 다북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니

우리엄마 몽진골로 젖먹으러 간다

최월선: 다북다북 다북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나

울어머니 젖줄바라 울고간다

살겅밑에 삶은팥이 싹이나면 느어머니 오마더라

생팥이야 싹이나지 삶은팥이 싹이날수냐

다북다북 다북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나

울어머니 젖줄바라 울고가네

느어머니 젖을짜서 구름질로 띄워주마 (그리고 뭐가 붙는데)

다북다북 다북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나 울어머니 몽진골로 신발없어 울고가네 다북다북 다북네야 느어머니 신발사서

바람질로 띄워준다

#### ◇ 형님오네 형님오네

최월선: 형님오네 형님오네 분고개로 형님오네

형님마중 누가갈까 반달같은 내나가지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형님형님 그말씀마오

행주초매 아홉쪽이 눈물콧물 다딱았네

형님형님 그말씀마오

삼단같은 내머리가 비사리초미 다되었네 분질같은 요내손이 깍쟁이야 다되었네

#### ◇ 노랫가락

최월선: 일났네 봉산가자 일악산 까마귀골로만 든다

그대불린 정불리나 그대불린 정불리나

#### ◇ 장타령

최월선: 어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저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또왔네 어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또한대문이 들어간다 이대문을 댕겨서면 겨우살이를 면해 어얼씨구 잘하다. 저얼씨구씨구 잘하다.

#### ◇ 베틀가 <sup>40</sup>

최월선: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되누나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은 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며 놓아 낭군님 와이셔츠나 기워줄까

에헤야 베짜는아까씨 베틀에 수심만 되누나

#### ◇ 꿩서방

김옥진: 꿩아꿩아 꿩서방 자네집이 어딨나

이산저산 넘어가서 덤불밑이 내집이지

조사자: 이곳도 영등을 하나요?

김옥진 : 그전에 했지. 쇠고기 들어오면은 달아 매놓고, 들어오는 거마다 달아매 놨다가 떡

해 놓고 2월 초하룻날 고기 쪄놓고 찌지개 하고 한데(바깥)다 놓고 지냈죠. 영둥때 마다 했죠. 15일 올라가고 20일 마저 올라가고, 비가 오면 며느리 데리고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좋지요. 예전에는 많이 모셨지요. 지금은 아이(아니) 해요. 예전에 부모가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했죠.

조사자: 배성주 제사도 지내나요?

김옥진 : 배성주 제사는 좋은 날 날 받아 하죠. 초지조(종이)에 실 묶어 가지고 달아놓아요.

<sup>44)</sup> 베틀가는 삼척에 있을 때 배웠는데 이제는 다 잊어먹었다면서 '잉앳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독신이로 다. 베를 짜세 베를 짜세' 등 가사가 많은데 다 잊어먹었다며 아쉬워하셨다.

여성주도 있고 남성주도 있어요. 똑같이 모셔요.

조사자: 단오날에도 제사를 지내나요?

김옥진: 단오날 무당이 와서 굿을 하지요.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은 3년마다

한번씩 해요. 어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깐 1년에 한번씩 못해요.

#### ◇ 내손이약손

김옥진: 내손이 약손이다

내손이 약손이다

#### ♦ 아리랑

최월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냄게주소

만첩산중에 호랑나비는 말그물 조리 없으요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냄게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냄게주오

인자당신은 어데로갈라고 신발단장 하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냄게주소

-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대목에선 갑자기 주위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셨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보복대'의 원한이 사무친 까닭이다.

#### ◇ 아이재우는소리

김옥진: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 Ⅱ. 속초민요의 실제

최월선: 자장자장 어리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깬다 자장자장

#### ◇ 형님오네 형님오네

최경희: 형님오네 형님오네 분고개로 형님오네

형님마중 누가가나 반달같은 내가가지 니가어째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 ◇ 오고리도고리

최월선: 오고리 도고리 갓고리

중지 망근 도망근 갓고리 회…

#### ◇ 새야새야 파랑새야

김윤문: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가 울고간다

#### ◇ 니나니난실 45)

김옥진: 니나니난실 날라리야 나나니 나니난실 날라리요

울긋불긋 하지마라 꽃이피니 니나니난실 나비상상 너풀너서 춤을추니 니나니난실

니나니난실 날라리요 나나니 나니난실 날라리요

<sup>45)</sup> 어렸을 때 속초지방에서 불리어지던 노래라고 설명해주셨다.

내가가면은 아주나가나 아주간다고 잊을소냐 얼씨구나좋다 기화자좋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나가가면은 아주나가나 아주간다고 잊을소냐 니나니난실 날라리요 나나니 나니난실 날라리요

#### ◇ 양양팔경 46)

김옥진: 산종고 물맑은 양양이로다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에 동해야 뒷뜰에 설악산 에야나 기화좋다 낙산사로다 에에에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 ◇ 어랑타령

김옥진: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이로다

올려다 보면은 안창님의 비행기 내리다보면은 김복동의 자전차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랑이로다 다듬이다듬이 연다듬이 어깨넘어서 놀고 니하고 나하고 한이불속에서 논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아 내사령을 뚝띠다 어느경칠년 주고요 말한마디만 잘하면 천상연분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아

아실아실 춥거든 내품에 들고요 비게(베게)가 낮거든 내팔을 비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아

46) 이 노래는 어려서 배웠다고 한다. 주위의 여러 할머니들이 같이 합창을 해주셨다.

#### Ⅱ.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다듬이질 할 때 부른 소리가 없나요?

김옥진: 다듬이 할 때 (소리 없이) 그냥 하고, 연다듬이(위의 어랑타령) 소리도 했어요.

속초시 영랑동 개인 집, 2002. 7. 6

김영애: 여·78. 김갑용: 남·79

뱃소리를 채록하기 위해서 며칠 전 최재윤 할아버지가 추천한 김갑용 할아버지가 노는 곳을 수소문해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실제 할아버지는 뱃소리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다른 소리를 몇 수 해주셨다. 마침 그곳에서 같이 노시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적극적으로 소리를 해주 어 다행히 몇 수 채록할 수 있었다.

김영애(榮愛): 여·78, 속초시 동명동 3통 4반 / 양양에서 출생해 19살에 이곳으로 시집왔다. 남편은 뱃일을 하였으나 젊어서 돌아가셨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고 주위에 누가 하는 소리를 듣고 배웠다.

김갑용: 남·79, 영랑동 1통 1반 / 경주 김씨로 이곳에서 11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다. 아들이 남천 아구찜을 근처에서 하고 있다. 옛날에는 배를 많이 탔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뱃소리는 못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것 몇 곡 해주셨다.

#### ◇ 노랫가락

김영애: 놀아요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다시젊지는 못하리라

#### ◇ 나물하는소리

김영애: 산과들이 쌓였던 눈은다녹고

따뜻하고 유쾌한 봄돌아왔네 푸른풀나고 나뭇잎뜯어 종달새울고 나비는00 솔솔부는 봄바람 춤을추는데 늘어진 버들가지 휘날린다 엉간에건건 남발하였소 금수강산 보기좋게 단장하였네 농부들은 소몰고 들에나가서 밭갈고 심하기를 분주하더라

- 이 노래는 시집오기 전에 배운 노래로 처녀 적에 산에 나물하러 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창가조로 불렀는데 위 ㅇㅇ 부문은 자신 없는지 그냥 어물어물 부르셨다. 다시 한 번 소리 를 부탁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 ◇ 화푸풀이

김영애: 일월송학에 속속한맘이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에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어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준(에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고 오동지나섣달에 오신다는님이 섣달눈비도 아니오네

#### ◇ 이똥저똥 47)

김영애: 이똥 저똥 행기똥

지 할미 곱새 똥

#### ◇ 돌아간다

김영애: 돌아간다 돌아간다

<sup>47)</sup> 여럿이 다리를 서로 뻗어놓고 소리를 하다가 끝말에 맞는 다리는 구부린다. 구부린 다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다리를 대상으로 또 해서 또 맞는 다리를 구부리고 한다.

김영애 : 종지를 돌리면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냥 그렇게만 했지요. 종지를 붙잡으면 그 사람이 안하고….

#### ◇ 두껍아 두껍아

김영애: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 ◇ 이빠진 갈가지

김영애: 이빠진 갈가지 뒤축골로 가지마라

개똥에 넘어지면 ...

조사자: 빠진 이빨은 어떻게 하나요?

김영애: 빠진 이빨은 지붕에 던지며 새이 나게 해달라고 하지요.

조사자: 아랫니는 어떻게 하나요? 김영애: 웃니나 아랫니나 똑같아요.

#### ◇ 장타령<sup>48)</sup>

김영애: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일선에 계신 우리장정 통일되기만 기다리고 이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이수건너 백로주가 백로나펄펄 휘날린다. 삼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삼팔선이 가로막혀 부모처자를 다잃었소 사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사주팔자 기박하여 장돌뱅이가 되었구려 오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오리안팍에 계신님을 만나볼날 그지없네 육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육관대사 성진 팔선녀데리고 춤을추네

<sup>48)</sup> 옛날 장타령은 못하고 요즘하는 장타령이라고 하시면서 해주셨다.

칠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칠보단장 누구에게 보이려 집을나가나 팔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팔자에 만석이만 낳아 고생문이활짝 열렸구려 구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구박맞던 우리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찼네 십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십년만에 찾아오니 고향산천도 변했구나 지리구도 지리구도 잘해

조사자 : 만석이가 누구죠?

김영애: 만석이라고 말만 들었지 몰라.

#### ◇ 산비둘기우는소리

김영애: 두둑두둑

헌투데기 목에 걸고…

#### ◇ 권주가

김영(내: 잡으시오 자으시오 (기술하자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 ◇ 꿩서방

김영애: 꿔궝꿔궝 꿩서방 자네집이 어딨나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밑이 내집이지

#### ◇ 내손이약손

김영애: 내손이 약손이다

내손이 약손이다

#### ◇ 양양팔경

김영애: 산종고 물맑은 양양이로다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에 동해안 뒷뜰에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야나 좋구좋다네 팔경이로구나

#### ◇ 뱃노래

김영애: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어기나여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두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어기나여차 뱃놀이 가잔다

#### ♦ 신세타령

김영애: 아침나절 성튼몸이 저녁나절에 병이들고

찾는것은 냉수만찾고 부르는것은 어머니라 약을쓰니 약발을받나 침을놓으니 침발받나 침발도나 약발도 아니받고 영영히 가셨는데 소매도 일곱매끼요 현매끼도 일곱매끼요

이칠십사 열네매끼를 묶어

소방산 대틀위에 덩그렇게 실어놓고 상두꾼만 발맞춰라 초롱꾼아 불밝혀라

어허넌차 하는소리는 북만(북망)의 산천이 들여오네 북만의 산천이 멀다더니 저건네 저산이 북망일세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에 저승이라 쑥대로 울을삼고 뗏장을 입을삼고 황토나흙을 밥을삼고 근심없이 누웠으니 어느네 형제가 나를찾으며 어느네 친구가 나를찾나 찾는사람 전혀없네 잠든날 병든날을 다제하고 나니 당사십도 못먹는 우리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것이 인생인데 우리나 한세상 사는것이 어찌나 요리도 허무하나

조사자: 이 소리 제목은 무엇인가요?

김영애: 제목은 몰라요. 신세타령 한가지죠. 중년에 배웠어요. 마지막 가는 노래잖아요.

#### ◇ 방아개비부리는소리

김영애: 저녁거리 찌라 저녁거리 찌라

아침방아 찌라 저녁방아 찌라

#### ◇ 든대질소리

김갑용: 어- 하 어- 하

김갑용 : 어- 하 하면 저쪽에서 눌리고 이쪽에서 눌리고 해서 배를 조금씩 앞으로 밀죠.

조사자: 그걸 든대질이라고 하나요?

김갑용: 네.

#### ◇ 그물댕기는소리

김갑용: 어샤어샤

조사자: 가래소리는 어떻게 하지요?

김갑용: 그건 정치망하는 사람들이 하지, 우리들은 안 해.

#### ◇ 놀배기소리

김갑용: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조사자 : 놀배기소리요?

김갑용 : 일본 아(애)들은 '어여차 디야 어여차 디야' 하는데, 한국인도 그 비슷해. '어이야

디야 어이야디야' 했지. 사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사설을 들어

보지도 못했지.

조사자 : 망쟁이 있죠?

김갑용: 일본말로 '오끼야' 라고 하지, 고기가 오면 기를 가지고 신호를 하죠.

#### ◇ 창부타령

김갑용: 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서지는 못하리라

잊어라 꿈이로구나 모두다 잊으라 꿈이로구나 옛날옛적 과거지사는 모두다 잊으라 꿈이란다. 나를싫다고 나를놔두고 나를버리고 가는님아 잊어야만 옳을줄을 나도우연히 알면서도

어리석은 믿음이나마 그래도 못잊어 아니로다 얼씨구절씨구 기화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 어랑타령

김갑용: 날모세 갈거라 나를다려를 가거라

정달이 지도록 나를데려 가거라

어랑어랑 어쳐야 어허야디어라 좋다 나사령이로다

청처마 밑에다 과수죽병 달고요 복동네 수풀로 임을차서 가란다

어야디야 어허야 어허야디여라 좋다 나 령이로구나

# 6) 속초시 장사동(章沙洞)

장사동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살촉 6점이 1980년 12월에 발견되었다. 이 것으로 볼 때 이곳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이곳에는 동예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다.

장사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간성군 토성면 소속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에 간성군이 없어지면서 한때 양양군에 속해 있다가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속초의 팽창에 따라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리로 편입되었다. 두 마을이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장사동이라 이름하였다.

사진리는 오늘날 장사동의 중심지역이다. 조선 후기 읍지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에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렸다. 이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하고,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웃하는 용촌리도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두 마을을 구별하기 위해 사진리는 나룻모래기, 용촌리는 촌모래기라고 부른다.

장천리(獐川里)는 영랑호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는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고개에서 유래하는 노루 장(獐)자를 썼다고 한다. 마을 앞 냇가를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일제강점기 때 노루 장(獐)을 글 장(章)으로 바꿔 불렀다.

장사동에 처음 정착한 이는 차씨와 기씨인데 당시는 15세대 정도였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과 고성군 현내면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늘어났다. 반농반어로 1997년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20여 호 남짓 된다. 7.07㎢ 802세대 2653명이 살고 있으며 5통 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성황제사는 매년 웃마을에서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내고 있다. 풍어제는 5년에 한 번 정도 지낸다. 장사동에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통천군민의 순국동지충혼탑, 해양경찰 충혼탑, 이형근장군 덕정비 등 여러 탑과 비(碑)가 세워져 있다.

동해안은 항구의 유무에 따라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으로 나뉘는데, 장사동은 속초의 대표적인 날바리땅이었다. 날바리땅에서는 배를 진수시킬 때 든대질을 해야만 했다. 날씨가 궂을 때는 아주 빠른 동작으로 해야 배의 파손을 막을 수 있었고, 반면에 날씨가 좋을 때는 허리도리(선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다른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 등이 그러하듯이 다양한 사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든대질소리는 전옹암,

박인성, 김형준, 김동성 등에 의해 민속놀이로 재현되었는데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든대질로 배를 처음 진수시키면 우선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그후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농악을 울리며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속초시 장사동 축항, 2002. 5. 6

서영복 : 남·61

아침에 대포동 어촌계와 노인정을 잇따라 방문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점심 이후에는 장사동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다들 관광을 가시고 노인정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바닷가 축항으로 나 가 그물을 손질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채록을 하였으나 헛되이 시간만 허비하다가 겨우 한 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서영복: 남·61, 장사동 15통 1반. 속초시 장사동 토박이로 평생 해업에 종사하였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흔쾌히 한 곡 불러주셨다.

#### ◇ 그물당기는소리

서영복: 다리어 다리어 허야 다리어 다리어 허야

서영복 : 그물을 당길 때 고기가 엄청 나게 많이 올라오면 (그물을) 칼로 짤라 남겨놓고 그

냥 돌아와 풀어 놓은 후 다시 나간다.

조사자 : 요즘은 어떤 것을 많이 잡나요?

서영복 : 꽁치, 놀래기 등이 잡힌다. 속초는 명태가 일년 농사인데 명태가 요즘은 없다.

조사자: 든대질이란 뭐죠? 그때도 소리를 하나요?

서영복 : 배를 올리고 내리는 거다. 그때 소리가 있는데 다 잊어 먹었다야. 배를 가운데 놓

고 서로 맞추어야 하니까 '허이 허이' 하면서 하지.

속초시 장사동 바닷가, 2002. 5. 6

김태흥 : 남 · 75

서영복에게서 채록을 한 후 저쪽(속초시 장사동 축항)을 손가락질하면서 그쪽에 가면 가리비 손질하시는 여자 분들이 소리를 곧잘 한다면서 추천을 해주셨다. 그곳을 찾아갔더니 소리를 해줄듯하면서 끝내 해주지 않는다. 아마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같다. 할 수 없이 다시 바닷가로 다시 나와 마침 양미리 그물을 손질하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소리를 부탁했다.

김태흥 : 남·75, 청호동 12통 3반 미림마을 / 이북 출신으로 24살에 월남하여 어업에 종사했다. 뱃소리는 고향에서도 배웠지만 대부분은 여기 속초에 와서 배운 것이다.

조사자: 배그물 작업할 때는 속초에 소리가 있던가요?

김태흥 : 여기서 손질할 때는 소리 없다. 다만 고기를 가득 싣고 올 때 '여사여사 여샤여

샤'라고 하더라.

#### ◇ 고기잡아오는소리

김태흥 : 여사여사 여샤여샤

속초시 장사동 노인회관, 2002. 6. 30

남복우: 여·84. 김정자: 여·68. 이옥란: 여·78

예전에 찾아 왔을 때는 아무도 없더니 마침 오늘은 할머니 여러 분들이 화투를 하고 계시다가 선선히 채록에 응해주셨다. 장사동 노인회관은 횟집건물 3층에 있었는데 동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동쪽을 장식하여 전망이 무척 좋았다.

남복우 : 여  $\cdot$  84, 장사동 / 거진면에서 출생하여 18살에 이곳에 시집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 농사도 짓고 뱃일도 한때 했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김정자 : 여 · 68, 장사동 /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이 고향이다. 강릉시 사천면으로 시집갔다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온 지 3년이 지났다. **이옥란**: 여·78, 속초시 장사동 / 고향은 고성군 봉포리(장사동 바로 위)인데 여기 온 지 10년이 된다.

#### ◇ 한알개 두알개

남복우: 한알개 두알개

삼사 너구리 똥개 망개 참낭그 지게통 고불통 내아들

조사자: 이 소리는 언제 하나요?

남복우 :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서로 집어넣은 후 다리를 치

면서 부르는 거죠.

조사자: 당첨되면 어떻게 하죠?

남복우: 그러면 발을 이렇게 고부립니다.

#### ◇ 각시방에 불켜라

남복우: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 ◇ 권주가

남복우: 잡으세요 잡으세요 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이술은 받아서먹으면 천년만년을 살고지고

#### ◇ 배쓸어주는소리

남복우: 배야배야 아프지 말아라

할머니손이 약손이다.

#### ◇ 꿩서방

남복우: 꿔꿩꿔꿩 꿩서방 자네네 집이 어디나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밑이 내집이네

#### ◇ 둥게소리 49)

남복우: 둥기둥기 내사랑 얼싸좋다 내사랑아

우리손주 어디갔나 등등등등 내사랑아 얼싸좋다 내사랑아 우리손주 풀미하면서

잘도놀구 잘크네

#### ◇ 어랑타령

김정자: 에헤 개울개울 빨래질소리 시내갱변이 울고요

다듬다듬이 연다듬 질가는행각이 우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시절이 좋아서 노잔다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가는 소리 고무공장 큰아기 벤또밥만 싸누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요것두 몽땅 내 사랑

맹지(명주) 스차스치(석자석치)를 잃고서 집안이 들썩하는데

49) 아이를 앞뒤로 흔들며 하는 소리이고, 아이를 옆으로 흔들며 할 때는 '풀미 풀미' 한다고 설명해주셨다.

눈치없는 저총각 목도리하고 왔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시절이 좋아서 노잔다

#### ♦ 아리랑

김정자: 명사십리가 아리라면은 해당화는 왜피나

춘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우나

술과 담배를 날권하지 말고

후원별당 잠든큰애기 날권해주게 달뜨는 동산에 달이떠야 좋고 임우는 동산에는 임이와야 좋네

#### ◇ 뜸북새소리

이옥란: 헌투데기 목에걸고

뜸북뜸북 뜸북새야

지집죽고 자식죽고

#### ◇ 세상달강

김정자: 세상달겅

서울로 가다가 밤한 톨을 주어서

고무락에 던졌더니 새양주(새앙쥐)가 다파먹고

한톨은 남은거 껍대기는 애비주고

보물은 애미주고 속알맹이는 니하고나하고 둘이먹자

달겅달겅달겅

남복우: 달강달강 하다가 질루질루 가다가

방 한톨 얻어서 고무다락에 치뜨렸더니 새앙쥐가 다먹었네 껍데기는 아범주고

고물은 어멈주고 알맹이는 니하고 나하고 둘이먹자

달강달강달강달강

#### ◇ 곤지곤지 잼잼

남복우: 잼잼 재미야 짝지짝지 짝지짝지

 곤지곤지 곤지야
 도리도리 도리야

 아이구 우리손주는
 잘도하네 잘도해

#### ◇ 창부타령

남복우: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나노지는 못하리라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도 높은사랑이 사해같이도 깊으구나 칠년대한 왕가물에 빗발같이도 솟는사랑 광명하에 춘향이는 이도령하고도 춘향인데

일년열두달 삼백육십오일에 하루만이라도 못보아도 못살겠네

이리리리리리리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조사자 : 이빨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남복우 : 젖니 간다고 해요. 빠지면 지붕에 던져요. 소리는 모르겠어.

속초시 장사동 축항, 2002, 7, 2

김현배 : 남 · 49. 김성용 : 남 · 47 그 외 2인

장사동 축항으로 나가 현장에서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뱃소리를 채록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무동력선이어서 뱃소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가 동력선이어서 뱃소리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40-50대 된 뱃사람들 몇 명이 옛날에 들었던 소리를 몇 곡 해주셨다. 김현배와 김성용 외에도 다른 몇 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록에 응해주셨다.

김현배 : 남 · 49. 속초시 장사동.

김성용 : 남 · 47, 속초시 장사동.

#### ◇ 그물댕기는소리

김현배: (푸름하다. 물밑이 푸름하다. 기분조타 오늘, 참 운이 좋다.)

1/10/0 1/10/0

조사자: 고기 댕길 때 뭐라 하나요?

김현배 : 고기가 많이 올라오면은 그물 댕기면서 '푸름하다 물밑이 푸름하다 기분조타 오늘 참 운이좋다'하죠. '어기야 영차' 하면서 댕기죠. 빨리 댕길 때는 '어이사 어이사' 하면서 댕기죠. 그러면 옆에서도 '어이사 어이사' 해야 힘이 안 들어요. 옛날 분들은 고기 걸린 걸 갖고 맞은 고기는 천천히 하라 하지만 (요즘은)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빨리 하죠. '고기야 잘 죽었다 내가 산다 / 고기야 잘 죽었다 내가 산다'고 하지요. '또'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다리어 다리어'하죠. 옛날 일본말이죠. 써서는 안 되는데, 계속 다리어는 고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올라왔네'라는 말을 안 써요. '푸름하구나. 강물은 꺼먼데 고기가 걸리니까 푸름하구나'하지요.

#### ◇ 든대질소리

김현배: 자-자-어샤

자는지는 어사! 자는지는 어사!

김현배: 옛날에는 목선을 땟하고 같다대면은 양쪽에 두 명씩 4명이 목도를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요. '자-자- 어사'하면 목도꾼들이 이거 누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밑에서 목도 판 바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바치는 사람은

자- 자 어샤 (힘차게 빨리) 하면 빨리빨리 바쳐주고

자- 자 (낮은 목소리로) 하면 천천히 받쳐주고

자 자 어샤 (힘차게 빨리)

자- 자- 어샤 (힘차게 빨리) 하면 신이 났어. 배가 번쩍 뻐쩍 올라갈 때는 밑에 사람이 얼른얼른 받쳐주어야 돼. 근데. 자-자 어샤 (낮은 목소리로) 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주민A: 배를 처음 내리는 것은 진수식이고, 그물을 처음 하는 것은 설망한다고 하죠. 그날에 어촌계 회원들이 동합해서 굿판식이라고 해서 자기 항구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는 술 한 잔 먹고 식사하고 나누는 거죠.

조사자 : 멸치 털 때 어떻게 하나요?

주민A: 여긴 지금 털지는 않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후리는 해요. 후리는 트롤식이죠. 거 기에 노랫가락은 없어요. 멸치배, 정치망 대로 용도가 있어요. 난 정확한 것은 몰라요.

조사자: 지어소리라고 있죠? 산대소리라고, 고기 뜰 때.

김현배 : 가래소

김성용: '가래소'가 아냐. '가래라소'야

김현배: '가래라소?' 어. 맞어.

김성용 : 멱 줄기 당길 때

김현배: '감아라 감아라' 그러지

김성용: 구성지게 하면서, 욕 식으로, '아 이놈아 감아라'하지요. 정기복이 형 아버지가 하는 것 보면, 콧소리를 하잖아. 앞에서 소리를 매긴단 말이야. '에야에야' 댕기면 만철이 아버지는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잖아 '에야에야'(흉내내면서) 하잖아.

주민A: 방씨 아저씨는 '물어가자'로 하는데, 남들은 몰라, '밀어가자'는 뜻이야, 사투리죠.

#### ◇ 노젓는소리

김성용: 에라소 가래라소

김현배: 에라솔 가래라솔

김성용: 다리어내자 하는 것은 놀매기소리, 즉 노 젓는 소리라구.

'에라소 가래라소'라 하지

김현배: 바쁠 땐 '에라솔 가래라솔'(힘차고 빠르게)이라고 하잖아.

김성용 ; (그건) 산대 푸는 소리야.

#### ◇ 멸치터는소리

김현배: 자자 자자

지-지 - 1자-지

김현배 : '자-자- 자-자-' 하다가 고기가 많다 이거야. 고기를 빨리 털어야 돼. 그러면

'자- 자- 자-자-'(빨리) 하면 옆에서 또 '자-자- 자-자-'(빨리) 하지. 창자고 비

늘이고 막 튀어서.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하는 거지.

#### ◇ 그물당기는소리 500

김성용;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헤산자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이통저통	에이산자	이통산을	에이산자
	다리고보세	에이산자	에헤산자	에이산자
	에헤산자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헤산자	에이산자
	넘어지고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신고신고	에이산자	당기어보세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 ◇ 고기숫자세는소리

김현배: 하나이란다이 둘이란다이 서이란다이

서이 다음에 너이란다이 다섯이라 여섯 일곱이란다이

여덟 아홉이라는데

열이로구나 (그러면 한 두릅이야. 넘어가는 거야)

열에 하나 열둘 열셋란다이

<sup>50)</sup> 후렴 '에이산자'는 김현배 외 주민 2명이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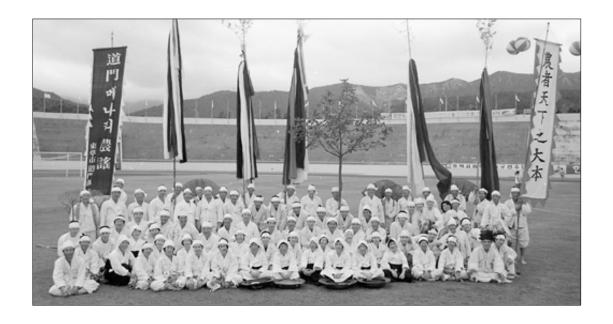
열너이 열다섯이라는구나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이라 열 스물이라

김현배: 열 다음에 스물이 넘어가고 열 다음에 서른이 넘어가고 '열'은 항시 서요. 열 스물, 열 서른, 열 마흔 이렇게 가고, 열 구십까지 나가다가 열 첫백이요 하고 나가요. 명태나 오징어 세아릴(셀) 때, 목청이 서글프면은 안돼. '서이너이란다이'하면서 고기잡을 시간을 주어야 돼. 참 옛날 목소리가 정다운 목소리야.

김성용: 고기를 잡을 때 금방 집을 수도 있고 금방 못 집을 때는 말을 끈다고, 그래서 '-런 데'를 몇 번이나 들어간다고. 명태를 두 마리씩 집어야 해, '하나인데 둘이란데 서이란데'하다가 '너'자가 못 들어갔단 말이야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면 '서이 다음에 다시 너이란데'하고 넘어가는 거야. 미처 못 잡으면…

주민A: 고기 많이 잡은 사람은 '하나이구나, 둘 서이너이 다섯 여섯'(빨리) 이렇게 넘어가는데 못 잡은 사람은 '하나로구나 둘이로구나'(천천히)

# 도문동 농요 회원 명단



# 도문동 농요 회원 명단

단장: 최용문(속초문화원장)

고증: 김남형(남·81)

학술연구: 강원도민속학회(장정룡 강릉대학교 교수)

지도연출: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양언석(관동대학교 겸임교수)

신목 : 오준석

서낭대: 이상호, 김정길, 오기현, 박용범, 김훈기

농기: 박충일

단기: 오세진

좌상: 최선준

마름: 박원규

소리꾼: 오순석, 오두현, 최도수, 이상옥, 김환기, 장진영, 주동진(호적), 오명현(쇠)

농악(징): 오진석, 신승태, 정호열

농악(북): 김동유, 김용학, 김태희, 정현애, 조성현

농악(장구): 박인옥, 김명진, 전성호, 최수미, 주미애

농악(꽹과리): 김동연, 박치영, 최웅식, 윤기준

지게꾼: 김진표, 유복만, 구학림, 박의균

함지박 : 허금희, 권금자, 김정희, 윤복수

농부1조 : 오준택, 박용필, 박상균, 최준집, 오호택, 김진택, 이상녀, 안숙희, 홍성욱,

온설자. 박선춘

농부2조: 진석환, 손복수, 박용성, 오임석, 오갑석, 신한용, 이한표, 김영애, 윤정숙,

박리선, 김순덕, 박옥련

농부3조: 윤태환, 오세나, 김기영, 오춘석, 전제수, 손백수, 김옥수, 김순덕, 박순이, 마금주

농부4조 : 윤부웅, 이사선, 김용수, 김광수, 김정기, 이옥순, 김향필, 민경순, 최정숙, 오영자

지원(스텝): 최택수, 이용운, 김성준, 정종천

#### 저자 약력

#### 장 정 룡(張正龍)

-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박사
- 강원도 문화재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단 이사
- 국제아세아 민속학회 부회장
- 강원도 민속학회 회장

#### 이 한 길(李漢吉)

-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 역서『황금당나귀』
- 논문「속임/속음의 서사구조」 「도깨비담과 도깨비 연구」 「강릉관노가면극의 문화적 특성」外
- 현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与至印则鱼

2003年 10月 10日 印刷 2003年 10月 15日 發行

著 者:張正龍・李漢吉

發 行: 束草文化院

속초시 영랑동 570-5

phone.033-632-1231 / fax.033-632-1241

印刷處: GOOD DESIGN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강릉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6

phone.033-648-2819 / fax.033-640-2727